광주인민봉기10돐기념문학작품집

분노의 지점에서



문예출판사1990

조선은 하나다

1 반만년의 피줄을 이어온 우리는 하나의 민족
백두산의 줄기가 내리여 이땅은 하나의 강토
갈라져 몇해더냐 헤여져 몇해더냐
겨레여 나서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2. 슬기로운 민족의 가슴에 애국의 피가 끓는다
짓밟힌 남녘의 강산은 원한에 몸부림친다
통일이냐 분렬이냐 력사의 물음앞에
겨레여 나서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3. 단결하자 조선민족아 통일의 문을 열자
혁명의 태양을 따르는 민족의 마음은 하나
수령님 밝혀주신 5대강령 홰불을 따라
자주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통일이냐 분렬이냐 력사의 물음앞에
겨레여 나서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차 례

단 편 소 설

서 정 시

미완성조각

고 병 삼

5월, 광주의 밤거리로 하얀 위생복을 입은 의대생 처녀가 걸어가고있었다.

정적, 피…붉은 피, 길가에 딩구는 돌멩이와 부서진 기와장, 부러진 가로수, 짓밟힌 화단에도 피, 흩어진 책가방, 바람에 흩날리는 교과서와 학습장에도 피… 소년소녀들의 발에서 벗겨진 구두, 만신창이 된 뻐스와 바리케트에도 피, 피다.… 하늘에서 내린 봄비도 아닌, 흩어진 꽃잎도 아닌, 젊은이들의 피로 물든 아스팔트길우에 하얀 위생복자락을 스치며 처녀는 이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고있었다.

자유를 위해 일떠선 시민들과 발톱까지 무장한 군대와의 전대미문의 대결이 며칠째 계속된 도시에 밤은 깊어갔다.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눌렀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음료수를 달라고 웨치던 목마른 소리도 이제는 들려오지 않는다. 높고낮은 창문마다 불빛이 꺼지고 거리에는 인적도 없다.

《투항하라, 투항하라…》

《항복하면 살려준다.》

80만 시민들을 향해 삐라를 뿌리며 목이 쉬게 짖어대던 직승기들도 어데론가 날아가버리고 방금전까지 거리에 나타나 닥치는대로 쏘고, 찌르고, 매달고, 발칵 뒤집던 놈들도 사라져버렸다. 지금은 도시밖에서 비쳐오는 탐조등불빛만이 피에 젖은 길바닥을 핥으며 도적고양이

눈알처럼 퍼어렇게 벙긋거리고있었다.

폭동군중들의 손에 장악된 도시는 방금전 서울로부터 밤하늘을 썰며 다급히 날아온 공수륙전대에 의하여 포위되였다.

처녀는 탐조등불빛에 붙잡힌듯 얼굴을 드러내놓았다가 땅에 잦아든듯 사라졌다.…

잠시후에 비명을 지르며 지하가를 달려나온 그는 쏘는듯이 강력한 광선을 한손으로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하얀 위생복에 가리워진 그의 몸매는 이 음산한 밤과는 너무나도 엄청날만큼 아름다왔다. 하얀 위생모의 붉은 적십자표식은 이마에 새겨진듯 유난스러웠다. 어깨너머로 흘러내린 검은 머리카락이 부러진 가로수가지의 파란 잎사귀를 스친다. 그는 탐조등이 가로세로 누비며 벙끗거리는 금남로쪽으로 허둥지둥 걸어가고있었다. 이 밤, 이 거리에 살아서 움직이는것이란 애타게 땅바닥을 살피다가 원망스레 하늘을 쳐다보는 그의 눈길뿐인듯싶었다.

5월의 향기도 봄의 감각도 아닌, 이상한 감각에 의대생은 마치도 누구의 가슴팍에다 청진기를 대고 숨결을 가늠해보는듯싶은 표정을 지으며 꽃발과 가로수밑에 눈길을 주고 귀를 기울인다.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방금전에 구호대가 담가를 들고 지나간 거리건만 처녀의 감각에는 광주의 아들딸들의 숨결이 들려오는듯싶었다. 그때마다 그의 순결한 심장은 첫사랑을 언약하던때처럼 높뛰였다.

《혜경이ㅡ 서혜경이ㅡ》

어데선가 자기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아서 한번 발걸음을 멈추기만 하면 땅에 붙어 떨어지질 않는다. 때로는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가서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만져본다. 마침내 그는 빛을

잃지 않은 눈동자를 발견했다.

(아니 어쩌면는 신통히도 같을가?!)

그것은 지금 그가 찾는 그 사람의 눈동자같다. 그가 아직 애인이기전, 다시말해서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움트기전에 보던 그의 눈매를 방불케 했다. 혜경은 다 차란 처녀가 아니라 갑자기 소녀같은 눈매로 지켜보다가 나어린 소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숨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썼다. 소년의 얼굴은 탐조등에 비껴 뚜렷이 나타났다. 손에 자그마한 돌멩이를 꼭 쥔채로 반듯하니 누워 밤하늘을 쳐다보는 눈동자는 너무도 맑아서인지 살아서 움직이는듯 입가에는 미소가 떠돌았다.

(아— 아직 살아있구나.)

혜경은 하얀 위생복자락에 소년을 감싸안고 가로수앞으로 걸어나오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 거리에 누가 없어요?… 아이참 영걸씨— 어데 계시나요?— 오영걸씨—》

혜경은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그 이름이 저도 모르게 입밖으로 튀여나가자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길건너편을 살펴보았다.

탐조등불빛이 언뜻 스쳐지나가는 저쪽 가로수밑에서 웬 검은 옷자락이 가볍게 흐느적이고있었다. 땅바닥을 스치는 검은 옷에 검은 두건을 쓴 웬 신부가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음산한 정적이 스민 항쟁의 거리를 살펴보며 그 무슨 복음서라도 외우듯 중얼거리고있었다. 처녀의 목소리를 들었음인지 그는 두건밑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탐조등불빛에 흰서리처럼 아물거리며 길을 건너왔다.

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신부님!—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입니다. 어제부터 여기 와서 외과의사 안박사의 자혜병원에서 부

상자들을 치료하다가 거리에 나왔어요. 이 소년을 안고 게까지 가자며는 너무 멀군요. 혹시 이 근방 어디에 신부님이 잘 아시는 병원이 있으며는요 수고스럽지만 좀 도와주세요.》

신부는 말없이 소년을 받아안고 가슴에 귀를 대보면서 몇발자국 걸어가다 말고 꽃밭에다 조심스레 내려놓고 일어서며 십자가를 그었다.

《아가씨, 공연한 수고를 하셨소. 이 애는 이미 숨을 거뒀군요. 이런 애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여기다 눕혀놓으면 부모들이 와서 찾아가기도 쉬울겁니다.》

《아니애요, 살았어요. 저 눈과 저 주먹을 좀 보시자요. 살았습니다. 살았지요!》

《눈을 감기엔 너무나도 천진란만한 어린 넋이니까 그렇게 보일수도 있을테지…》

신부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쳐다보며 야릇한 애수에 잠기였다. 혜경은 소년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다는것을 확인해보고서도 그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소년의 앞날을 바다에 비길가 하늘에 비길가. 하나의 세계라고도 말할수 있을 높은 삶의 봉우리와 살아야 할 인생전체를 미지수로 남겨두고 떠나간 소년이기때문인지 아이가 아니라 그 어떤 거인의 장렬한 최후와 같이 숭엄해보이기도 했다.

소년의 입가에 떠도는듯싶은 미소는 마치도 혜경에게 누나! 나는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노라고 속삭이는것만 같은 인상을 주는것이였다.

혜경은 신부가 재촉해서야 어데로 가는지도 모르고 뒤따라가고있었다.

《아까 아가씨는 누구의 이름을 부른것 같던데요, 그이가 뉘신지요?》

《…》

혜경은 의혹이 짙은 야릇한 시선으로 미동에 흐느적이는 검은 옷자락을 바라볼뿐 입을 다물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인 아가씨가 어떻게 여길 왔소?》

《예가 저의 고향입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나서자랐습니다.》

혜경이의 목소리에는 이 땅의 딸로서의 긍지와 비감이 담겨있었다.

신부는 혜경이더러 뉘집 따님이냐고 물었다. 혜경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집에 홀로 남은 어머니는 저 무등산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었다. 혜경이가 어머니의 이름을 대자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김영순선생의 따님이시군!》

혜경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신부는 이 도시에서 인망이 매우 높은 교육자인 김영순선생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신부님! 그러시다면 혹시 오영걸씨라구 아시는지요?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재능있는 젊은 조각가입니다.》

혜경은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았으나 신부는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모나리자》같은 세계적인 그림을 남긴 미술가의 이름은 기억하고있는 신부지만 이 도시에 오영걸이라는 조각가가 살고있다는 말은 못들었던것이다.

《신부님이 그이를 모르다니?…》

실망에 잠긴 혜경의 눈엔 탐조등불빛이 언뜻 지나갔다. 혜경은 그를 모른다거나 이즈음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세계를 잃어버린듯 앞이 캄캄했다. 세상사람들이 다들 그를 모른다고 해도 혜경이 자기만은 그 인간, 그의 심장, 그의 재능을 알고있기때문인지 하늘이 무너진듯 암담하다. 혜경은 동요시절

부터 그와 이웃에서 함께 자란 사이였다. 고향집정원의 동백나무밑에서 그와 함께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자 혜경은 입술을 떨었다.

동백꽃 동백꽃
봄이 가고 가을이 와도
다시 피는 동백꽃
헤여져도 다시 만나도
언제나 함께 피는
동백꽃 동백꽃

생각하면 그때 아직 이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즐겨부르군했다. 그 나무에 몇번 꽃이 피고 지는 동안에 그의 심장은 사랑이라는것이 기쁨인줄로만 알았다. 생각하면 사랑의 의미를 다는 모르면서도 기쁨의 그 감정마저 아껴온 혜경이였다. 애국적인 지조를 지켜온 가문출신이며 교육자인 어머니가 자기의 그 마음을 헤아려보고있으면서도 이 거치른 세상에서 이 땅에 뿌리박은 대숲을 딸의 절개의 상징으로 믿고있다는것을 혜경이는 잘 알고있었다. 허지만 너무나도 아껴온 그 사랑을 잃어버린것만 같은 지금에 와서 그가 없이는 자기의 젊음도, 아름다움도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것을 의식하는것이 괴로왔다.

좋은 앞날을 기약하며 서로 향학열에만 가슴을 불태우려고 애쓴 보람도 없었다.

혜경이보다 두해나 앞서 서울 가서 조각공부를 하던 오영걸은 학비에 쪼들린데다가 가정사정으로 중도반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무렵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혜경은 안타까왔다. 어머니의 박봉으로 겨우 공부를 하고있는 자기 처지에서 그를 도와줄수 없었던것이

다. 차라리 그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도싶었으나 외동딸 하나를 믿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기대와 성의를 저버릴수도 없었다. 혜경은 자기의 딱한 처지가 눈물날만큼 슬펐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를 밤차로 보내고 서울역 플랫트홈에 외로이 서있던 그밤은 참으로 쓸쓸했다.

혜경은 그날부터 맑은 눈으로 서울을 바라볼수가 없었다. 워낙 빛을 잃고 안정을 잃은 서울은 온갖 사회악만 남은 불합리한 부조리의 도시지만 그래도 오영결이가 가까이에 살고있는동안에는 한가닥 따스한 감정과 아름다운것을 지향하는 하나의 심혼이 자기를 지켜주는듯싶어 혜경은 외롭지 않았다. 그러던 그마저 떠나가자 갑자기 추위가 닥친듯 온몸이 으스스함을 느꼈다. 허지만 무서운 이악쟁이인 혜경은 몸을 고슴도치처럼 도사리고 4년이란 세월을 의학공부에만 바쳐왔다. 방학때마다 서울역을 떠나는 밤차가 왜 그리 더딘지 몰랐다. 허지만 상봉의 기쁨뒤에는 알수 없는 불안감이 뒤따르군했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생활하고있는 오영결의 처지는 눈물날만큼 가긍했다. 허지만 그의 작은 오막살이는 흙과 석고로 빚고 칼로 깎고 다듬은 조각상으로 진렬장을 이루고있었다. 손에 조각칼만 쥐면 언제해가 저무는줄도 모르던 오영결의 눈은 차츰 회의와 고뇌에 젖어 맑은 빛을 잃기 시작했다.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는 아름다운것을 추구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의학도인 혜경의 감각은 민감한것이여서 눈길만 살펴보고도 사랑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것은 자유없이는, 맑은 공기가 없이는 한순간도 진정하지 못하는 그런 심장을 가진 사나이여서 반항하지 않고서는 못사는것이 그의 생리이며 생존방식이기도 했다. 머리우에서는 저기압이 내려누르고 눈앞에서는 권세

와 사기협잡배들이 날치고, 방종이 한계점을 넘어 란무하고, 발밑에서는 언제 분출될지 모를 저류가 흐르는 서울거리를 걸으면서도 혜경은 고향도시 광주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심장에 청진기라도 댄듯 불안감을 느껴왔다.

허지만 방학에 내려왔다가 돌아가서는 늘 후회하였다. 그에게 무엇보다도 녀성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것을 느끼면서도 혜경은 언제한번 그를 뜨겁게 포옹해주지도 못했었다.

달밤이면 구슬을 내뿜는듯싶게 빛을 발산하며 서기어린 무등산은 그들의 어릴적 꿈이 깃든 사랑의 동산이기도 했다. 광주라는 첫 글자는 이곳의 진산인 이 무등산의 그 밝은 빛에서 생긴 이름이기도 했다.

혜경은 방학때마다 오영걸의 손목에 이끌려 무등산에 올랐다. 그때마다 혜경은 마치도 그립던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싶어하던 소녀시절처럼 숨박곡질하듯 나무뒤에 숨어 요리조리 피해달아나며 웃어버리군했다. 그러나 오영걸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단지 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써 자기는 삶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않고있는데 당신은 너무도 랭담하다고 불만스러워했다. 그때마다 혜경은 그의 고수머리카락을 쓸어만져주며 다짐을 받듯이 속삭이군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줘요. 네, 꼭 참고 기다리지요? 기다리지요?》

《기다리는게 문제가 아니요. 문제는 당신이 나처럼 온 심장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있소. 허지만 당신이 옳을수도 있소. 이 무서운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겠소? 당신은 자유로운 몸이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기약하지 않는것이 옳소. 래일에 우리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소? 내가 당신을 다시 못볼수도 있

을거구…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없다 해도말이요. 우리집에 와서 벽장쪽에 친 백포를 들치면 거기에 내가 온 심혼을 바쳐 깎고 다듬어온 조각이 있소. 그걸 보면 내가 당신을,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수 있을겁니다. 아직 미완성작품이긴 하지만 거기엔 나의 넋이 깃들어있소. 그걸 보면 내가 당신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리유와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심정을 알수 있을겁니다. 내 조각가로서 당신에게 선물할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소. 내가 당신에게 하고싶던 말은 이것뿐이요. 잘 가오.》

이것이 지난 겨울방학때 혜경이가 그에게서 들을수 있은 마지막말이였다. 이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었다. 그때 그 조각을 보여달라고 졸랐으나 그는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 엄격한 어머니에게서 교양을 받은 혜경은 그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결혼하기전에는 자기를 깨끗이 지켜야만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것이 오해로 되지 않기 위해 혜경은 자기를 그리워하는 그의 마음을 상냥한 말로 위로해주고 그와 헤여졌다. 허지만 서울가는 기차에 몸을 싣자 혜경은 창밖을 내다보며 그에 대한 가없는 생각, 늘 자기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 쓸쓸한 생활이 눈에 밟혀 눈물이 났다.…

사랑하는이여! 한해만 참고 기다리시라! 내 대학을 졸업하면 그대를 위해 그대의 재능을 꽃피워드리기 위해 이 한몸 바치오리다. 광주땅의 공기를 마시고 무등산의 흙내와 숲냄새를 맡으며 달빛과 해빛에 반짝이는 산천의 그 맑은 빛을 눈에 담고 함께 자라던 내 그대곁을 떠나서는 살곳도 죽을곳도 없으리라…

혜경은 자기 내심의 목소리를 그앞에서는 한번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혜경은 자기의 고향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

을 서울에서 듣자 눈앞에 맨 먼저 떠오르는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였고 귀전에 다시금 울리는것은 그의 목소리였다. 폭동에 대한 소식은 마치도 오영결의 그 젊은 심장이 중세기적인 중압을 견디다 못해 파렬되였다는 소리처럼 들렸던것이다. 불안하고 초조하면서도 한편 이상야릇한 흥분속에 서울역을 떠났으나 도중에서 교통이 마비되여 어제아침에야 이곳에 도착한 혜경은 그의 집부터 먼저 찾았던것이다. 그 작은 오막살이는 텅 비여있었다. 사뭇 허전한 심정으로 고향집에 도착한 혜경은 대문밖에서 자기를 맞아주는 어머니의 치마꼬리에 매달린 소년을 보았다. 오영결의 동생이였다. 혜경은 그 애를 와락 끌어안고 볼을 비볐다. 어머니가 오영결의 쪽지편지와 함께 백포에 싼 조각상을 헤쳐보였을 때 혜경은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진실이라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그것은 젊고 아름다운 녀성이 첫애기를 두팔로 받들어 하늘높이 쳐들고 어머니가 된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땅을 밟고 굳세게 서있는 모습을 조각한 작품이였다. 파쑈의 폭압에 대한 반항, 자유에 대한 갈망, 그 어떤 미래를 상징하는 형상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쩌면 혜경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얼굴도, 눈매도, 선이 선명하고도 섬세한 몸매도 혜경이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면서도 예술가의 넋과 사랑이 깃들어있어서인지 더욱 진실하고 아름다와보였다. 조각대 테두리에는 《혜경씨의 얼굴에 영원한 미소가 남아있기를 진심으로 념원하면서…》라는 글자가 새겨져있었다.

다른 때 이 글발을 읽었다면 혜경은 야속하여 노여웠을것이지만 준엄한 시각이여서 그런지 고통받는 그 어떤 숭고한 정신이 자기를 아껴주고 지켜주다가 이것을 남겨놓고 영영 떠나가버린듯 가슴이 찢기는것만 같았다. 그날부터 혜경은 광주의 대학생들과 같이 부상자를 담가로

나르면서도 애타게 찾고 찾았건만 오영걸의 얼굴은 볼수가 없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며칠전 항쟁이 가장 가렬처절하던 날 머리에 흰수건을 질끈 동인 그가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달리며 삐라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투쟁을 호소하는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불덩어리같은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것을 보면 필경 잘못되였으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혜경이 후회를 안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현실이 암담했다.

그는 신부에게 자기 심정을 호소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세상에 밝은 신부는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아가씨는 애인을 찾고있는것이 분명한데말이요, 이것 보시오, 아가씨! 마음을 좀 진정하시오. 눈앞에서 피가 흐르는 이런 때엔 아가씨! 사랑의 언약이란것이 매우 무력할수 있다는걸 알아야 하오. 신앞에서의 맹세두 저버리는 때니 하는 말이요.… 지난번 이 거리에 나타나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한 저 악명높은 공정부대에는 한때 신학교에 다닌적있는 하느님의 신도라고 떠벌이던놈들도 있었소. 더러운 유다같은놈들이말이요… 그건 그렇구. 지나간 일은 약과요. 탐조등이 비쳐오는 대숲 저쪽에서 맹수처럼 울부짖는 저 야수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오. 아가씨, 미구에 우리 도시는 더욱 처참해질것이요.》

혜경은 길바닥을 스치는 신부의 검은 옷자락에 탐조등빛이 벙끗거리는것을 여겨보며 신음하듯 물었다.

《아— 이 무서운 밤에 신부님은 누구를 찾아 거리에 나오셨나요?》

《나말이요? 나두 아가씨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길입니다. 꽃같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

지는걸 내 어찌 보고만 있겠소. 그들을 구원하는건 성직에 있는 나의 천분이지요.》

신부는 하늘가 저 멀리를 숙연히 바라보았다. 지난 며칠동안 시민대표의 한사람으로 선출된 그는 이번 사건을 조절하기 위해 폭동주모자들도 만나보고 군부대에도 드나들며 쌍방의 요구조건을 제기해보았다. 허지만 타협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 폭동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흘린 피의 대가는 너무도 값비싼것이여서 그것을 놓고 군부와 흥정하기에는 때가 늦었던것이다. 허지만 최후의 시각을 앞두고도 끝까지 지탱점에 집착해있는 청년들을 만나려고 찾아가는길이였다.

《아가씨, 나하구 같이 갑시다. 저 무등산에 있던 청년들도 내가 찾아가는 거기에 모여와있을것 같소. 혹시 그들속에 아가씨가 찾는 그 젊은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사랑의 힘은 신의 뜻보다 강한 때도 있소. 아름다운 아가씨가 저 젊은이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천사가 돼준다면 나는 그에서 더 기쁜 일이 없겠소. 우리는 힘을 합쳐 어떻게든 그네들을 구원해야 하오.》

신부는 생각에 잠겨 탐조등불빛에 얼른얼른 비치는 혜경의 얼굴을 여겨보았다.

녀성의 아름다움은 총검보다 위력할 때도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이 살벌한 밤거리를 홀로 헤매는 처녀를 신부는 도와줄뿐만아니라 그에게서 도움을 받고도싶은 심정이였다.

혜경은 말없이 신부를 따라 도청앞 광장쪽을 향해 걸어갔다. 불현듯 더욱 강력한 탐조등불빛이 뻗쳐오는 도시밖에서는 아츠러운 소리가 들려왔으나 도청안에서는 비장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의 소원은 민주

혜경은 처음듣는 노래소리가 아니건만 가슴이 북받쳤다. 어제 오늘 벌써 여기를 두번아나 찾아왔다가 헛걸음을 한 혜경은 별로 기대를 가지기는 어렵지만 여기말고는 갈데가 없었다. 담가를 맞들고 도청밖으로 나오는 청년들의 얼굴이 탐조등불빛에 얼른얼른 나타났다. 지하실에서 동료들의 시체를 찾아 옮겨가며 부르는 노래소리는 더욱 비장했다. 죽은듯 고요했던 광주시가 불현듯 숨을 쉬는것만 같았다.

혜경은 정신없이 달려가서 살펴보았으나 담가우에도, 담가를 든 사람들속에도, 도청앞에 눕혀놓은 얼굴들속에도 오영결은 없었다.

세 소년이 바께쯔며 깡통에다 물을 길어들고 무장을 갖춘 웬 청년을 따라 뒤문으로 들어가고있었다. 이미 이곳을 여러번 찾아온바 있는 신부는 혜경을 데리고 보초가 선 뒤문을 쉽게 통과해 들어갔다. 앞에 선 소년들을 뒤따라 긴 복도를 지나 층계를 밟고 옥상으로 올라간 혜경은 무엇이라 형용할수 없는 비장한 감정에 휩싸여 입술을 떨었다.

평면으로 된 옥상에는 조명이 밝지 못했다. 혜경의 눈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스름해보이다가도 탐조등불빛이 대각선을 그으며 스쳐지나갈 때마다 환히 나타나군했다. 그찰나를 놓칠세라 한사람한사람을 눈여겨보았다. 소년들의 손에서 깡통이며 바께쯔를 받아서 입에 대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도 그 애들더러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눈을 부릅뜨고 쫓기도 하고, 카빙총을 광장쪽으로 겨누고 조준련습을 해보기도 하고, 금시 불을 달면 터질 화약에다 도화선을 늘이기도 하는 사나이들의 눈동자는

쏘는듯 예리했다. 다들 새파랗게 젊었다. 혜경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애정이 담겨있었다. 하얀 위생복을 입은 혜경은 이밤 옥상우에 밝으면서도 이상야릇한 색조를 가미해주고있었다. 웬 처녀냐고 묻듯 신부의 얼굴을 의문스레 쳐다보면서도 입에서는 노래소리를 그치지 않는 청년들도 있었다.

《아따 이 개땅쇠들아! 노래는 신부님따라 천당에 가설랑 부르구 빵이나 묵어라. 게 가문 선녀를 만날텐데 의짜자구 늬 헛눈 파노?》

짐짓 고향땅의 흙내 나는 옛사투리로 롱을 하며 터뜨리는 호방한 웃음소리에 혜경은 깜짝 놀라 살펴보았으나 그가 찾는 얼굴은 아니였다. 여기서도 그 얼굴을 볼수 없게 되자 이 세상에서 더는 할일이 없어진듯 생기를 잃어버린 혜경은 서있을곳을 몰라했다.… 잠시후에 이마에 흰수건을 질끈 동인것이 유표한데다가 긴 장발을 한 머리카락이 스치는 어깨우에 탄알상자를 멘 청년이 불쑥 옥상에 얼굴을 나타냈다. 제 륙감인지 혜경은 얼굴을 보지 않고도 감각으로《그이다!》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체취와 숨결을 느끼였다.

비로소 혜경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가치를 의식한듯 숨소리가 높아지고 두눈에 불꽃이 반짝였다. 두팔 벌리고 막 달려가서 그립던 그 가슴팍에 안기려고 한발자국 내디디던 그는 그만 신부의 등뒤에 숨어들어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떨었다.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그, 살아있는 그를 눈물 없이는 만날수 없었으나 그 한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의 비장한 얼굴을 생각하니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수가 없었다.

탄알상자를 저쪽 란간옆에다 내려놓고나서 신부앞으로 다가오는 오영결의 발자국소리에 뒤이어 그립던 그 목소리를 듣자 혜경은 가슴이 조여들었다.

《신부님! 왜 또 오셨습니까? 우리의 요구조건이 실현될수 없는 굴욕적인 대화에는 이미 종지부를 찍었는데 왜 또 오셨습니까? 우리더러 투항하라고 또 설교하시렵니까, 이젠 그런 설교엔 싫증이 났습니다… 신부님, 빨리 여기를 떠나주십시오.》

《여보게, 영걸이 이사람아, 지나간 일을 가지구 신부님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자네답지 않군그래.》

름름하고 날파람있게 생긴 체구며 나이도 영걸이와 비슷한 20대의 청년이 계단을 올라오더니 밀막아나섰다. 뭇시선이 그에게로 쏠리는것을 보아서 주동자의 한사람임을 짐작할수가 있었다.

《신부님! 이사람 말을 노엽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부님의 그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와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신부님, 저두 이사람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군요. 여기는 신부님이 서계실 자리가 못됩니다. 그렇게 아시구 어서 돌아가주십시오.》 하고 그는 작별하듯 고개를 수그려보이고는 저쪽 란간쪽으로 걸어가며 도시밖을 내다보았다.

등뒤에 서있는 동행자의 일은 망각해버리고 자기 생각에만 잠긴 신부의 얼굴을 살피는 시선들속에는 나어린 소년들의 여섯 눈동자가 탐조등불빛이 스칠 때마다 유난히도 반짝이고있었다. 오영걸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너희들은 왜 또 나왔느냐?》

《마실 물을 길어왔어요.》

《용타, 이젠 됐다. 너희들은 신부님을 따라 빨리 떠나가거라.》

《아저씨들은요?》

《우리두 곧 뒤따라 가마. 자, 빨리 먼저 떠나가거라.》

가라고 아무리 쫓아도 아이들은 란간옆을 살살 맴돌며 가지 않았다.

돌연 《제군들!》 하고 자못 엄숙하게 부르는 신부에게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였다.

《제군들! 이 늙은 사람의 말을 듣는게 해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희생되기엔 그대들이 너무도 젊소. 앞길이 구만리같은 그대들이 아깝소. 그래서 나는 시내 장로교목사들과도 의논했소. 우리 도시의 성당, 교회당에 그대들을 피신시키기로 약속을 해뒀소. 저 악마같은 무리들이 몰려오기전에 나와 같이 여기를 떠나주기를 바라는바이요. 이것은 신의 뜻이니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군들!》

신부는 눈물어린 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하늘을 쳐다보며 가슴에 십자를 그었다.

잠시 조용했던 오영결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신부님두 참, 우리의 불타는 심장과 자유로운 넋을 도대체 어데다가 숨겨둔단말입니까? 그럴바엔 차라리 천당으로나 안내하시지 땅우에 있는 교회당으로 끌구가실 생각을 하시다니요… 허허…》

잠시 말을 끊고 웃음을 거두더니 거리쪽을 내려다보며 명상에 잠긴 오영결은 신부의 등뒤에 누가 서있는지는 살피지도 않았다.

폭동의 주동자인듯싶은 사나이들은 줄곧 검질기게 비쳐오는 탐조등불빛너머로 도시밖을 살피며 저쪽 란간결에 몰켜서서 무엇인가 의논하고있었다.

신부는 묵상하듯 눈길을 떨구고 생각에 잠겼다. 오영결은 신부에게로 다시금 눈길을 돌리더니 죄스러운듯 고개를 수그리며 《신부님》 하고 조용히 불렀으나 차츰 목소리가 격렬해졌다.

《저의 무례한 발언을 용서하십시오. 신부님 말씀대로 우린 젊습니다. 허지만 자유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젊음이 누구를 위해 필요하단말입니까? 이젠 때가 늦었습니다. 저 거리가 우리 광주의 아들딸들의 피로 물든것

을 보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망친다는건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우리의 벗들과 80만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비렬한 행위입니다. 〈자유가 없이는 사랑할수도 없고 사랑할수 없을진대 우리의 심장을 뽑아던질지어다.〉 이것은 우리의 좌우명입니다. 우리는 비록 몸은 죽을수 있어도 인간된 존엄과 정신만은 끝까지 지킬것입니다.》

그립던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비로소 자기의 심장이 살아서 고동치고있음을 의식한 혜경은 고개를 쳐들고 그에게로 접근하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다는 몰랐던 오영결을 새롭게 보는듯싶었다. 그런데 이 순간 저쪽 란간결에서 누군가가 오영결의 말에 호응하듯 웨쳤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수 없을진대 우리의 혀와 눈을 뽑아던질지어다—》

뒤따라 다들 노래로 호응하였다.

우리의 소원은 민주
꿈에도 소원은 민주
…

오영결은 이 노래에 목소리를 합치며 란간쪽으로 걸어가고있었다.

혜경은 눈에 눈물을 담고서도 맑고 깨끗한 고음으로 따라불렀다. 오영결은 놀라 문득 돌아서더니 신부앞으로 걸어오다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동행자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신부는 혜경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자 장벽이 물러선듯 앞이 틔였다. 혜경은 희미한 조명아래서 타는 눈길로 오영결을 바라보며 노래로써 호흡하고 노래로써 생각하듯 온몸

으로 불렀다. 남성들의 낮고 비장한 목청을 고음으로써 튕기며 끌고서, 저 멀리 새들이 날으며 우짖는 맑은 창공을 찾아, 연록색 초원과 설레는 바다를 넘어 새 세계를 부르고, 통일을 부르고, 또 부르며 이끌어갔다.

혜경의 아름다움은 날씬하면서도 균형이 잡힌 육체의 매력이나 부드럽고 선이 선명한 얼굴에 있는것이 아니라 긴 속눈섭밑에서 이글이글 타는듯싶은 눈빛과 맑고 랑랑하면서도 명상적인 목소리에 있는것이였다. 허지만 그것도 오영걸의 불타는 심장과 함께 숨쉴 때만 흠잡을데 없이 아름다왔다. 왜냐하면 오영걸의 곁에서만 그의 눈은 반짝이고 그의 얼굴은 밝고, 그의 목소리는 맑고 힘차기때문이였다. 젊은 사나이들은 자기들의 노래에 화음된 녀성의 아름다운 고음을 감득하고 그의 존재를 몸가까이에 느끼였다. 귀에 익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오영걸의 눈에는 삶의 불꽃이 타오르고있었다.

《아니 혜경씨? 당신이?!》

《저예요, 영걸씨! 혜경이예요.》

그들은 그립던 얼굴을 서로 뚫어지게 보며 마주 접근해갔다. 어스름이 점차 걷혀가는 새벽하늘이 비껴도는듯싶은 눈과 눈이 희미한 조명아래서 마주치자 불꽃이 튀는듯도 했다.

《혜경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전 어제야 도착했어요. 오늘 전 여러번 여기를 찾아왔댔어요.》

《내 무등산에 가있을 때겠구만…》

《전 찾았어요. 안타깝게 찾았어요.》하고 혜경은 오영걸의 넓은 가슴팍을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서며 눈을 내리감았다.

《그런 사이로군.》신부는 기뻐했다. 그의 눈에는 저 젊은이를 구원하기 위해 신이 저런 아름다운 아가씨를

점지한것만 같이 보이기도 했다. 옥상에 있는 모든 눈동자들이 밝고 따스한 빛을 띄고 그들의 상봉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도 오영걸은 웬일인지 하얀 위생복으로 감싼 혜경의 잔등을 두루 더듬다가 그를 멀리하듯 가볍게 밀치며 물러섰다.

이때 도시밖에서 인간이 아니라 굶주린 이리떼가 아가리를 벌리고 몰려오는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신부는 란간을 짚고 적정을 살피는 오영걸네곁으로 다가갔다. 옥상 한복판에는 혜경이만 남고 다들 한쪽 란간곁에 쏠렸다.

새파랗게 설레이는 대숲과 그 저쪽으로 하얗게 내린 락하산이 벙끗거리는 군용트럭들의 전조등불빛에 비껴 대낮처럼 나타나보였다. 공수륙전대들이 우글거린다. 그 무슨 액체병을 입에 대기도 하고 날이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하늘을 베며 날뛰기도 한다.

인간적인 모든것을 잃고 야수성과 포악성으로 무장한 눈알들이 전조등불빛과 더불어 희번득거리며 도시를 노려보고있었다.

오영걸은 동료들과 무엇을 의논하는듯싶더니 급히 혜경이를 데리고 옥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안으로 걸어들어갔다. 천정에 드리운 전등이 아니라 벽에 걸린 카바이드 등불빛이 어스름히 내비치는 아홉번째 계단에 그들은 엇비듬히 마주앉았다. 검은 옷자락을 날리며 뒤따라 내려오던 신부가 그들의 머리우의 네번째 계단에서 발걸음을 멈춘줄도 그들은 몰랐다.

《혜경이, 그리웠소. 몹시 그리웠소.》

《나는 그립지 않은줄 아세요?!》

《아— 혜경이, 당신이 어쩌면 이 엄혹한 시각에 나를 찾아왔소? 엉?》

오영결은 조각칼을 쥐던 손으로 혜경의 머리카락을 쓸어만졌다. 뜨거운 입김에 혜경은 목언저리가 서물거렸다. 오영결의 눈은 삶의 불꽃이 피여오르다가 한순간에 타버린듯 내리감기였다.

《영결씨! 당신은 이 몇해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오셨어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고통을 잊어주세요. 이봐요, 눈을 뜨시구 내 얼굴을 좀 봐요. 우린 함께 있지 않나요. 함께 있지요? 이젠 전 아무데두 가지 않구 당신곁에 있겠어요.》

혜경은 두팔을 벌려 그의 손을 꼭 끌어잡고 그립던 그 얼굴을 지켜보더니 가슴에 파고들어 하나로 융합되고 용해되려고나 하는듯 무엇인가 말할듯싶었다. 생각하면 너무나도 사랑하기때문에 아껴온 사랑이였다. 귀중한 그 말이 입밖에 나가면 식어질가보아선지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 그들이건만 상봉의 시각은 너무도 짧았다. 시간이 없였다. 밖에서 땅크와 군용트럭이 구을러오는 소리, 총소리, 철의 장막이, 굉음이 도시를 덮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금 도청이 아니라 난바다로 표류하는 난파선의 선창에 앉아있는것만 같다. 이 엄혹한 시각에 혜경은 웬일인지 어린 시절에 함께 부르던 동백꽃, 동백꽃 노래가 생각났으나 입술이 떨려서 부르지 못했다.

《작두날에라두 올라설 사내대장부의 심장두 당신을 보니 약해지는구려. 이 엄숙한 시각에 내 거연히 쳐든 머리를 수그려야 한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전 당신을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혜경이, 고맙소. 내 언젠가 당신에게 약속한바 있소. 당신의 얼굴을, 아니 앞날의 당신 모습을 산 인간처럼 조각해서 아름다움의 절정에 세우고싶었소. 그러나 그것은 완성되지 못했소. 허지만 내가 이 세상에 남기구

가는 산 예술작품은 그것밖엔 없소. 거기서 미래를 상징하는 영원한 미소를 당신이 감득할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겠소.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수 있는 사랑의 전부요…》

《전 보았어요. 당신의 작품을, 저의 어머님이 간사했더군요. 당신의 동생도 어머님이 집에 데려왔어요.》

《혜경이, 고맙소. 동생때문에 걱정했더니 정말 고맙소. 그리고 그 작품엔 나의 심혼이 깃들어있소.…》

이처럼 준엄한 시각에도 오영걸은 미술이 화제에 오르자 활기를 띠고 눈에 생신한 빛이 떠돌았다. 그는 눈물에 젖은 지금의 혜경이가 아니라 소녀시절의 깜찍한 계집애던 그의 코등을 손가락으로 튕겨주군하던 시늉을 하며 웃었다.

《혜경이, 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소?》

《아니야요, 저는 리해할수 없어요.》

《혜경이, 용서하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랑보다 아름답고 귀중한것이 무엇이겠소. 허지만 자유는 사랑보다 더 귀중하오. 내 당신과 함께 백년을 살고싶었건만 자유 없이야… 놈들은 지금 이 옥상에 마지막까지 지탱하고있는 우리들을 주목하고있소. 동료들의 피에 젖은 이 땅에서 내가 만일 놈들의 발밑에 엎드려 굴복한다면 내 어찌 우리 광주땅의 아들이겠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두 전 알고있어요. 당신의 심장이 어떻다는걸 알구있어요. 아까 신부님에게 허신 말씀두 들었구요.》

《그렇다면 혜경이, 나의 마지막부탁이니 들어주오.》 하고 오영걸은 손을 꼭 쥐고 혜경의 눈을 들여다보며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 옥상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곧 여기를 떠나주오. 혜경이, 이것이 사랑이요.》

주위는 비좁고 어스름했으나 혜경의 눈은 타는듯이 강렬한 빛을 발산했다. 그의 입에서는 난생처음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불같은 사랑의 말이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영걸씨! 왜 저에게다 그런 부탁을 하세요? 이젠 그런 부탁을 듣기엔 때가 늦었어요… 당신의 영향이예요. 제가 당신을 이렇게까진 몰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전 여기를 떠나서 당신없는 세상을 살아갈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허지만 지금의 저는 마음도 몸도 당신의것이예요. 죽어두 살아두 저는 당신의것이예요.》

혜경은 놈들의 발밑에 엎드려 굴복한 패자의 얼굴을 보며 한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자기를 깨끗이 지킨 그와의 한순간의 삶을 위해 최후를 같이하고싶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의 곁을 떠나서는 혜경이 자기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을것이였다.

《혜경이,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도 눈물을 많이 흘렸소. 당신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어머님을 생각해보오.… 그리구 내 동생도… 내 당신을 이렇게밖에 달리는 사랑할수 없구려.》

오영걸은 눈길을 떨구었다. 아끼는 마음이 그의 사랑이기도 했다. 삶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워도 당신만은 살아야 한다는것, 후날 나와 나의 동료들이 갈망하던 자유로운 세상이 오면 행복할 당신의 얼굴과 이 땅에 새로 태여날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죽을수 있다는것— 이것이 자유를 갈망하는 사나이의 심장임을 알아달라고 그는 호소하며 혜경의 눈굽에 고인 눈물방울을 훔쳐주고는 미소를 지어보였다.

《아— 더 말씀마세요… 영걸씨,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거예요!》

혜경은 아직 어머니 손길 말고는 그 누구의 손도 와닿

은적이 없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앞가슴에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끌어다가 안고서 고수머리카락을 쓸어만지였다. 그의 손길은 떨렸다.

최후의 시각을 앞둔 그들의 사랑은 숭고하다할만큼 아름다왔다. 신부는 깊은 생각에 잠기여 옥상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름다움이란 사랑을 담은 그릇이라고도 일러왔다. 그는 이 거치른 세상에서도 깨끗하고 진실한 이 젊은이들의 존재를 처음으로 보는듯싶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번은 찾아오는것이지만 숭고한 사랑은 아무 사람에게나 찾아오는것이 아니고 아무때나 찾아오는것도 아니였다. 조용하게 100년을 살아도 다는 알지 못할 일생의 새로운 의미로서 결합된 그들의 넋은 죽음의 심연을 넘어 자유로운 세계를 지향하고있었다.

허지만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였다. 불현듯 밖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황급히 옥상으로 올라갔다.

하얀 위생복자락을 흩날리며 오영결과 나란히 서서 광장을 내려다보는 혜경의 등뒤에서는 신부의 검은 옷자락이 펄럭거리였다. 여기 옥상에서는 죄다 보였다.

공수륙전대들이 도시를 점령해 들어오고있었다.

탐조등, 전조등, 전지불빛이 피에 젖은 새벽거리를 샅샅이 뒤지고있었다. 피묻은 칼날이 번뜩인다. 총소리, 칼부림소리, 군화발소리, 단말마적인 부르짖음소리, 신음소리, 전대미문의 살륙전이 벌어졌다. 처녀를 라체로 가로수에 매달고 칼부림하며 피를 낸 쾌락에 너털웃음을 치는 상판들, 길바닥을 썰며 굴러온 군용트럭과 땅크가 광장에 멎어섰다. 전조등불빛이 란무하는 광장에는 살기어린 놈들의 눈알이 오글오글거린다.

야수와 인간의 대결이였다.

혜경은 탐조등불빛을 한손으로 막고서 내려다보며 치

를 띠였다. 최후의 결사전을 앞둔 봉기자들의 눈빛을 표현하기에는 어휘가 부족했다. 투항하라는 놈들의 고함소리에 옥상에서는 총소리로 대응했다. 카빙총을 쥔 청년들의 어깨가 물결치듯한다. 일제사격이 벌어졌다. 그들의 겨드랑밑에서는 소년들의 여섯눈동자가 새벽빛을 받아 반짝이고있었다.

《혜경이, 이건 우리들의 명령이요. 아애들을 데리구 신부님과 같이 빨리 뒤문으루 빠져나가주오.》

오영걸은 어느새에 손에 수류탄을 쥐고 고리를 뽑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순간 혜경은 아까 꽃밭에 눕혀놓고 온 소년의 눈동자가 생각났다.

《아— 인간이란 이렇게도 살기가 힘든걸가?》

혜경은 몸부림치며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는 밝아오는 새벽하늘을 담은 눈길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다가 비칠거렸다.

《아니, 혜경아— 네가?…》하는 녀인의 목소리에 다들 통로쪽을 돌아다보았다. 하얀 모시옷으로 백색단장을 한 녀인이 옥상에 나타난것이다. 젊지는 않았으나 아직도 미모를 잃지 않은 얼굴만 보고도 혜경의 어머니임을 알수 있었다.

《아니, 어머님이 어떻게?》

혜경은 아이들의 손목을 끌고 어머니앞으로 다가갔다. 오영걸이도 다가왔다.

《자네두 여기에 있었구만. 그런걸 난 왕청같은데 가서 찾아헤맸네… 참 신부님은 어떻게 오셨어요?》하고 어머니는 신부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신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보였다.

《어머님, 혜경씨와 같이 빨리 여기를 떠나주십시오. 저의 심정을 아시겠지요? 곧 떠나십시오.》하고 오영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였다가 놓더니 황급히 란간쪽으

로 다가가서 카빙총을 잡았다.

《어머니! 이 불초딸을 용서해줘요.》하고 혜경은 어머니가슴에 얼굴을 묻었다가 떼고는 아이들의 손목을 끌어다가 어머니손에 맡기였다. 《어머님, 저는 여기를 떠날수 없어요. 전 마지막까지 저이곁에 있겠어요. 이 애들을 부탁해요. 어머니!》

《…》

어머니는 굳어진듯 움직임이 없었다.

정황은 긴급했다. 저쪽 란간곁에서는 몸집이 다부지게 생긴 청년이 두손에 도화선을 쥐고 놈들에게 흔들어보이며

《이놈들아! 올라올테면 올라오라. 이 도청을 폭파해서 날려버리구말테다—》 하고 웨치다가 한쪽 가슴을 부둥키고 뒤로 쓰러졌다.

《어머니! 저는 의학도예요. 전공이 의학인데 피흘리는 사람들을 두구 어찌 떠날수 있겠나요. 어머니, 이 애들을 데리구 빨리 떠나주세요.》

혜경은 다급히 란간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위생복주머니에서 붕대퉁구리를 꺼내쥐고 쓰러진 청년의 머리를 무릎우에 놓고서 피흐르는 가슴을 더듬었다.

《영순선생! 아이들을 데리구 빨리 떠나십시오.》신부는 초조히 거닐며 말했다.

《아— 하늘이 무너져내리구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것 같군요. 신부님, 세상에 이런 일두 있나요?!》

어머니는 성글어진 머리카락을 날리며 입술을 떨었다. 이 도시의 혈통을 이어받은 어머니의 생활은 얻은것보다 잃은것이 더 많았다. 일찌기 학생시절에 널리 알려진 광주학생사건에 관여한 친정아버지도 이 땅에 묻혔다. 4. 19때 서울서 교수단데모에 참가했던 남편은 그후 군사독재의 희생물로 옥에 갇혔다나와서 이 땅에 묻혔

다. 곡절많은 한생을 살아온 어머니는 이 세상과 인생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남은 여생을 딸의 행복을 바라며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으나 딸은 지난날의 자기와는 다른 길을 걷고있는것이다.

《얘들아— 내 아들딸들아— 이리 오너라, 마지막일지두 모르니 한번 안아보자꾸나.》

어머니는 두팔을 벌리고 다가가더니 손에 잡히는대로 젊은이들을 끌어안았다. 끝으로 그는 딸과 영결의 목을 한품에 꽉 껴안고 볼을 비비다가 놓아주었다.

《이사람들아— 나는 놈들의 발밑에 머리를 떨구고 엎드린 자네들을 보려구 찾아온게 아니네. 그래서야 어찌 자네들이 우리 광주의 아들딸이겠나? 나두 마지막까지 자네들곁에 있구싶네만 교육자로서 이 애들을 위해 나는 가네… 얘들아, 우린 먼저 가자.》하고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비칠거리며 옥상을 내려갔다.

《어머니—》하고 부르는 절절한 목소리를 뒤에 두고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끌고서 뒤문으로 빠져나갔다.

신부는 혜경의 어머니를 보내고나서 옥상 한쪽에 엄숙히 서있었다.

총알은 비발치듯 날아오고 청년들은 하나 둘 장렬하게 쓰러졌다. 그들이 흘린 피는 옥상바닥에 붉은 기폭처럼 퍼져나갔다. 잠시 총소리가 뜨음해졌다.

《신부님두 빨리 떠나시오.》

다급하게 재촉들을 했으나 신부는 혜경이와 오영결의 곁으로 다가갔다.

《나두 조선사람이요. 나는 그대들에게서 진실을 찾았소. 성직에 있는 이 늙은 몸이 이 시각에 그대들을 두고 어데루 간단말이요. 잠간만, 당신들 두 남녀는 내앞에 서있어주오. 그대들은 혼례두 이루지 못했지요.… 아, 신의 뜻보다 강한것이 이 거치른 세상에두 존재한다면 그

것은 그대들의 사랑을 두고 이르는 말일수도 있소.… 이건 종교적인 의식이기전에 이 늙은 사람의 진정으루 알구 받아주오.》

신부는 자못 엄숙하게 말하고는 두손으로 그들 두 남녀의 머리카락을 쓸어주고나서 하늘을 쳐다보며 가슴에 십자를 그었다.

이윽고 닥치고 들부시고 열어제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총칼을 번쩍이며 도청안으로 밀려드는 소리였다.

점점 수자가 줄어들어 몇명밖에 안남은 봉기자들은 혜경이와 오영걸을 가운데 두고 스크람을 짰다. 혜경의 눈빛은 오영걸의 눈과 더불어 아직은 새벽하늘을 담고있었다.

《무등산아— 잘 있으라—》

《영산강아—》

《광주천아— 잘 있으라—》

그들은 뭉쳐서서 원을 그리고 정든 고향산천을 부르며 웨쳤다. 무등산은 아무 일도 없는듯 새벽빛이 서리여 빛났고 저쪽으로는 여전히 질푸른 대숲이 설레인다. 물맑은 광주천도, 저 멀리 옥야를 감돌아흐르는 영산강의 물결도 여전히 잔잔하다. 그들을 둘러싼 하늘은 너무도 푸르고 땅은 너무도 고요했다.

《아— 통일의 기운이 서린곳은 어디?…》

《이 겨레 살릴 우리의 조국은 어디?…》

그들은 맑은 눈길로 북녘하늘가 저 멀리를 바라보았다.…

한편 아이들을 데리고 뒤골목을 빠져나온 어머니는 어느 다리목에 다달았다. 광주의 그 많은 다리를 죄다 기억하고있는 어머니는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도청옥상에는 놈들이 오르고있었다. 원쑤의 목을 끌어안고

허공으로 뛰여내리는 청년의 모습이 보이더니 도청 옥상에는 불길이 치솟아오르고있었다. 모든것이 불길속에 휘감겨들어가고있였으나 봉기자들의 입에서는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있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

마지막탄창을 풀고 왼쪽 가슴팍을 끌어쥐며 주저앉아서도 노래를 부르는 오영결의 이마의 흰수건이 벌겋게 물들어가고있었다。그의 잔등에 무릎을 고이고 그의 노래에 자기 목소리를 합치는 혜경의 흰 위생복자락도 붉은 기폭처럼 벌겋게 물들어 펄럭이고있었다.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 노래소리마저 멎어갔다. 그들의 모습은 그 어떤 재능있는 미술가도 예술적인 령감만으로는 창조하기 어렵지만 그대로 사멸할수 없는 하나의 조각이였다. 그들의 뒤에서는 신부의 검은 옷자락도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혜경아! 영결아— 내 아들딸들아— 내 차라리 너희들곁에서 돌처럼 굳어지고싶구나— 광주의 아들딸들아—》

어머니는 도청이 잘 보이는 가까운 언덕에서 흰 머리카락을 날리며 피타게 절규했다. 그의 곁에서는 소년의 여섯눈동자가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있었다.

《애들아— 울지 말구 똑똑히 봐둬라. 너희들은 저 형님들과 누나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더니 갑자기 어른스러운 엄연한 눈길로 그쪽을 지켜보다가 어머니의 손길에 이끌려 무등산으로 올라가고있었다.

1983. 8

대 장 부

남 대 현

꺽두룩한 키에 불쑥 두드러진 광대뼈, 거기다가 뜨직뜨직 토해내는 투박한 사투리.

그였다. 틀림없는 순호였다.

멀리 대학교문수위실 지붕우에서 연설하고있었지만 그가 틀림없이 순호라는것을 확인하게 되자 수정은 절로 가슴이 떨렸다.

(아, 무사했구나!)

무엇보다 그가 체포되지 않았다는것으로 하여 마음이 놓이기는 했으나 한편으론 지명수배를 받고있는 처지에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놓으면 어쩌나 하는 위구 또한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기뻤다. 더없이 반가왔다.

《얼매나 기다리던 오늘입니꺼. 얼매나 가고싶던 판문점입니꺼.》

확성기를 통해 터져나오는 그의 말소리가 수만으로 설레이는 인파우에 뢰성처럼 울려퍼졌다.

《그래 학우들 귀에는 지금 우릴 애타게 기다리며 빨리 오라고 부르는 이북학생들의 고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꺼? 얼싸안고 포옹하길 바라는 이북형제들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가 말입니더.》

울부짖는듯한 그의 웨침소리를 듣느라니 수정은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면서 은연중 어떤 회오에 잠겨들지 않을수 없었다.

(어쩌면 저런 사람을…)

사실 몇달을 한집에서 살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는것이 없는 수정이였다. 설사 알려고 했다 해도 그의 사람됨을 리해할수 없었다는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얄팍한 동정으로부터 깔끔한 경원, 그것이 다시 싸늘한 랭소와 질시로까지…

《용서해주세요, 절 용서해주세요.》

수정은 이렇게 뇌이면서 겹겹이 둘러선 사람들을 헤치기 시작했다. 그한테로 가고싶었다. 아니 가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던것이다.

그를 첨 만난것은 2월초 설악산등산에서 돌아와서였다. 학교써클친구들과 함께 특히 자기네 철학써클을 지도하고있는 S대의 기태오빠까지 동행해준것으로 하여 수정이에겐 각별한 의의를 가지는 등산이였다.

집에 돌아온 그가 대문에 붙어있는 초인종을 누르기 바쁘게 《딩동》소리와 함께 문을 연것은 뜻밖에도 엄마가 아니라 웬 허줄한 잠바차림의 낯선 사내였다.

《누구시죠?》

못마땅한 눈길로 쳐다보는데 두눈을 슴뻑거리며 마주보던 그가 더 큰소리로 되묻는것이였다.

《니는 누고?》

고등학생인 자기를 니라고 불러치우는데는 비위가 상했지만 그의 입에서 튀여나오는것이 어떻게나 툭 불거진 사투린지 절로 웃음이 삐여져나왔다.

《저요?》

《아— 그런께 니가 수정이구나.》

필경 엄마가 데리고 온 짐군이려니 했는데 이름까지 아는것이 아닌가!

《내 순호라칸다. 너거집에서 같이 살라고 왔은께 그리 알아도고.》

(같이 살려고?)

수정은 더욱 열떠름해졌다.

《하숙생이다 이말이다.》

하숙생이라는 말에 수정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고 은연중 미간이 찌프려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설악에서 안고온 흥심이고 뭐고 일시에 다 날아나고 말았다.

(엄만 정말!)

저도 모르게 이런 불만이 튀여나왔다.

아무 일에서나 그저 인정 하나만을 앞세우군하는 엄마가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 검질기게 생긴 사내의 청에 못이겨 물러서고 말았으리라는 짐작이 들자 속이 무르기만한 엄마가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그런 엄마에 대한 불만이 크면 클수록 또 엄마를 그와 같은 처지에 몰아넣었을 이 미련한 하숙생이 밉살스러워 참을수 없었다.

《이것 보세요.》

자기는 결코 엄마와 다르다는것을, 절대로 자기라는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느끼게 할 양으로 수정은 속이 토라질 때면 그런것처럼 신랄한 문구를 골라내여 톡 내쏘았다.

《우리 집에서 실제 주인은 엄마가 아니라 저라는걸 알아주세요. 지금처럼 아버지가 해외에 나가계실동안은 더욱 그래요. 하숙을 하고말고 하시는건 제가 다시 엄마와 합의한 다음으로 미뤄주세요. 아시겠어요?》

《뭐—라?》

어떤 호의가 있기를 바라던 하인이 주인의 뜻밖의 호령에 어리둥절해하는 그런 기색이 그의 얼굴에 비꼈다.

《너거 어무이한테 다 승낙받았다 말이다.》

《제 승낙이 더 중요하다잖아요.》

《그라문 니는 안된다는기가? 이봐라. 내 나쁜놈 아인기라.》

그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가 하는것이 다 적혀있기라도 한것처럼 조금도 선량해보이지도 않는 그 얼굴을 바싹 디밀었다.

그날저녁 수정은 엄마한테 들이댔다. 왜 자기가 없는 사이에 하숙생을 들였으며 들여도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입주시켰는가고.

《그 사람이 어째서?》

《우선 인상부터 보세요. 어디 정나미가 붙게 생겼어요?》

《이 철없는것아, 사람이란 인상을 가지곤 몰라. 난 여태 살면서 인상하고 맞아떨어지는 사람 본적없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촌에는 로부모님밖에 안계시는데 이젠 일도 제대로 못하시는 나이라잖니. 그런데다가 받은 친척도 없다는거야. 누이들까지도 다 출가를 했으니 말야.》

《그런거야 얼마든지 꾸며댈수도 있는거죠.》

《넌 어쩌면…》

엄마의 눈이 휘둥그래지는것을 본 수정은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그럼 대학엔 어떻게 다녀요?》

《대학 올 생각은 않고 그저 입시고사만 쳐봤는데 글쎄 300점을 땄다지뭐냐. 유수학과를 맘대로 택할수 있는 점수가 아니니, 그게 아까와 동네사람들까지 푼돈을 모아 학비를 보태주기로 했다는거야. 우리 동네에도 잘난 대학생 하나 둬보자고 말이야. 사람들 눈에 얼마나 의젓하게 비쳤으면 그런 동정을 다 받겠니. 우리도 성의껏 대해야지. 그렇지?》

(300점? 동네사람들까지?)

엄마의 말은 수정이에게 어느 정도 충격이였다.
속이 무른 엄마를 탓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엄마 못지 않게 인정이 예린데가 있는 수정이였다. 한창때의 처녀들이 그런것처럼 그도 야무진 말을 내뱉을 때가 있었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가슴에 못이 되였다고 여겨지기라도 하면 곧 제편에서 더 속을 태우는것이였다.
순호에 대해서도 그런 자격지심으로 하여 며칠간은 그의 눈치만 살폈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어느때나 시체류행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허줄한 잠바를 걸친채 말없이 수걱수걱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있는 그가 어쩐지 점점 측은하게만 비치는것이였다. 그래서 수정은 자기 잘못을 빌기로 했다. 빌지 않고는 속이 내려가지 않을것 같았던 것이다.
《용서해주세요, 못되게 군걸.》
신문을 뒤적거리던 그가 무슨 말이냐는듯이 쳐다보았다.
《첫날 일 말이예요. 전 원래…》
그제야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뭔소리 하노? 낸 다 잊어뿌렀다.》
그러면서 고개를 쳐들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도 천진스러운지 수정이도 따라웃지 않을수 없었다.
확실히 그는 소탈하고 순박한 사람이였다. 자기에 대한 모욕을 새겨두거나 앙갚음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였다. 더우기 어떤 경우에도 일부러 티를 내거나 꾸며보이는적이라고는 한번도 없었다. 그렇다고 어리숙한 사람은 결코 아니였다. 어떤 땐 오히려 대범해보이기까지 했다.
서울이라는 번화가, 그것도 한다하는 1류대학을 허줄한 막벌이군 차림으로 드나든다면, 또 어쩔수 없이 입에서 막 쏟아져나오는것이 그 거친 사투리라면 약간한 정

도는 주눅이 들거나 계면쩍어하기 십상이련만 그는 그런데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더군다나 여유푼전 한잎 없이 살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서 오는 소심성이랄가 렬등감따위는 찾아볼래야 볼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궁색한 자기 처지를 위장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그런것은 조금도 수치나 창피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태도였다. 기분이 좋을 때면 목청을 뽑아 《날 좀 보소》를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노래라기보다 학질을 앓는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낑낑거리는 신음소리같은것이여서 수정은 물론 엄마까지도 배를 그러쥐게 만드는것이였다.

수정이에게는 그의 이런 점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 불가사의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만사를 자기가 생각하는대로만, 다시말해 락관적으로만 대하는듯한 그였으나 그렇지만은 않다는것을 안것은 얼마후였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항시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있었던것이다.

어느날 수정은 음식을 만들어놓고 그를 청했었다.

《어디 맛 좀 보시고 평가해주세요. 급히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평점은 될거예요.》

《이기 뭐라는기고?》

《비프테끼요. 그리고 이건 함바그스테끼.》

《낸 듣도 보도 첨이다. 묵어도 되는기가?》

《네 어서요. 근데 이건 저가락이 아니라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거예요.》

《괘안타. 낸 이기 더 좋다.》

저가락으로 함바그를 집어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던 그였으나 한참만에 돌아보니 벽쪽으로 비스듬히 돌아앉아있는것이였다.

목이 메서 그러는가부다 하고 얼른 물을 떠가지고 다

가서는데 이외에도 그의 눈언저리가 벌겋게 상기돼있었다.

《왜 그러세요?》

《내 이래 좋은거 묵고있는줄 우리 어무이 모를기다. 이걸 보문 얼마나 좋아할기고. 수정아, 니 고맙데이.》

더 듣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의 뒤모습을 보느라니 수정의 가슴도 알알하게 저려들었다.

그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가지 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그 자신으로서는 더없이 중요한 일이여서 그것을 버리고는 자기한테서 아무런 보람도 재미도 있을수 없는 그런 일에 집착돼있다는것이였다. 다른 일에 무관한 대신 그 하나에만은 몇곱절이나 더 심취하게 되는것 같았다.

그게 뭘가?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사로잡는것일가?

하지만 그것이 어떤것이라는것을 안 수정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요즘 시내에 떼강도가 나타났다는 말 들으셨어요?》

언젠가 집에 들어서는 길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주고받은 얘기를 그에게 털어놓은적이 있었다.

《글쎄 오늘은 마포, 래일은 신촌 닥치는대로 털어가는데 그게 다 한패당이라잖아요.》

《걱정말그라. 그 노마들 우리 집에 오문 내가 싹 잡아뿔게. 내사 힘이 세이까이.》

그리고는 히죽 웃어보였는데 그런 미소는 그가 뭔가 더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나타내군하는 버릇이였다. 그는 곧 무슨 비밀이라도 털어놓듯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수정아, 니 내가 젤 좋은 운동한다는게 모르제?》

《무슨 운동이게요?》

격검이나 태권도쯤 하는게 아닐가 하고 짐작하는데 그의 대답은 왕청같은것이였다.

《학생운동.》

(학생운동?)

《그 운동만 잘하면 떼강도가 아이라 나라 팔아묵은 진짜 강도 때려잡는다말이다. 떼강도는 가막소에 가둬뿔문 되지만 이노마 진짜 강도는 몽디이로 때려죽이뿔기전에는 안되는기라.》

유순하기만 하던 그의 눈이 번쩍했다. 어떻게도 단호한 빛을 뿜는지 수정은 가슴이 선뜩해지기까지 했다.

(이사람이?)

수정은 새삼스런 눈길로 그를 쳐다보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수정이도 써클에 몸담고있어 현《정권》의 부패한 체질과 그로 하여 초래되는 온갖 부조리들에 대해 문외한은 아니였다. 더우기 젊은 세대로서의 위치와 사명감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일가견이 있었다.

그의 이런 견해는 주로 써클을 지도하고있는 기태에 의해 주어진것이긴 했지만 그는 아직 한번도 그의 견해에 의심을 품어본적이 없었다.

그가 알고있는 기태란 학식에서뿐만아니라 사회현실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있는 사람이였다. 그런 폭넓은 식견도 식견이였지만 수정은 그가 남달리 선량하다는 측면, 특히 누구보다도 량심적이라는 그 점으로 하여 각별한 호감을 느끼고있었다. 그를 마주할 때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깨끗한 사람이 있을가 싶었는데 그때마다 자기자신도 한결 깨끗하게 정화되는 듯한 감을 느끼군했다. 바로 그런 매력으로 하여 수정은 그의 말 한마디한마디를 더욱 어길수 없는 공식처럼 받

아들이는터였다.

(투쟁이란 매 단계의 목표가 명백하고 그 투쟁에서 성과가 뚜렷할 때만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는것이라고, 때문에 아무때나 투쟁만이 능사라는 관점은 배제되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모르긴 해도 기태가 가르쳐주던 투쟁의 순차성 그리고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의 학생운동이라는 면에서 따져볼때 순호의 태도는 어딘가 일면에만 치우쳐있는것 같았다. 순차고 뭐고 당장 무슨 소동을 일으키고야말 사람같았다.

아니나다를가 대학들에서 투쟁이 시작되자 그는 대번에 딴사람처럼 변해버렸다. 시위때 얼마나 구호를 웨쳐대는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가려듣지 못할정도로 목이 쉬여있는가 하면 어떤 땐 경찰들의 주먹에 눈두덩이 퉁퉁 부어 돌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한쪽눈을 붕대로 싸맨채로 각종 선전물들과 프랑카드를 만드느라고 또 부산을 피워댔다. 마치 서울에 온것이 대학공부때문이 아니라 시위투쟁을 하기 위해 온것 같은 그를 볼때면 어처구니가 없었다.

《제발 몸 좀 아끼세요. 그런다고 당장 민주화가 되는것도 아닌데… 저도 싸운다는것자체를 부정하는건 아니예요.》

《뭐라?》

마치 필생의 원쑤라도 만난것처럼 꼿꼿한 눈길로 쏘아보는바람에 수정은 아연해지고 말았다.

《그래 니도 이젠 고등학생아이가. 그란데도 아직 이노무 사회에 대한 징오(증오)도 없단 말이가? 얼매나 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있는지 모른다 말이가?》

《그걸 누가 모른대요?》

《그라문 우째 싸우지 않노? 우째 가만 있노말

이다.》

그야말로 리해할수 없다는 식이였다.

리해할수 없기는 수정이쪽이 더했다. 어쩌면 세상을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두면으로만 보는걸가? 어쩌면 세상을 단쇠 다루듯 무작정 두드려대기만 하면 바로잡을수 있다고 여기는걸가? 답답했다. 더군다나 자기라는 처녀 하나가 싸우지 않아서 민주화가 되지 않는것처럼 들이댈 때면 수정은 터무니없기에 앞서 화가 치밀어오르기도 했다. 특히 수정은 누구보다도 자기 주견만 고집하는 사람 아무 일에서나 사태의 본질을 가리기에 앞서 덮어놓고 감정적으로만 나서는 그런 사람을 제일 질시해마지 않았다.

수정은 그런 불만을 기태에게 털어놓았었다. 순호와 학년은 달라도 한학과에 있는것으로 하여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대학에선 론의가 많아. 주류다 비주류다 하고 말이야. 그렇지만 사회라는것이 어떻고 또 그 구조적모순이 어디에 기인되는가 하는것을 알게 되면 첨엔 누구나 그에 대한 반발이 극렬로 표현되기 쉬운법이 아닐가?》

《그러니까 그가 옳다는거예요?》

《옳은지 어떤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리해는 해야 한다는거야.》

《전 리해할수 없어요. 그런 사람!》

그때부터 수정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호를 대하려고 했다. 이전처럼 텔레비존을 같이 보자고 청하거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일이 없는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쳐놓고 그이상 그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좀처럼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였다. 다른 사람들인 경우에는 자기가 맘먹은대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수 있었으나 순호의 경우에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그가 자기가 쳐놓은 경계선을 꺼리낌없이 마구 침범하는가 하면 침범해서는 제맘대로 휘저어놓군하기때문이였다.

거의 매일처럼 친구들을 한방 가득 불러들여 밤새껏 잠도 못자게 떠들어대는가 하면 자정이 되여 돌아와서도 문을 인차 열지 않으면 《원 가스나가 그리 깊이 자노, 퍼뜩 깨나거라》하고 어깨를 철썩 때리기까지 했다. 그정도면 또 몰라라 《수정아, 내 배고프다. 밥 좀 도고.》하기까지 하는데는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였다.

(제가 뭐야!)

아무리 싸늘한 랭기를 드러내놓고 풍기여도 남의 눈치를 알아채는데는 영 발바닥같은 사람이여서 도무지 먹어들질 않았다. 그점이 더욱 수정을 화나게 만드는것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수정을 참을수 없게 만든 일이 벌어지고말았다.

그날은 일요일 기태와 함께 만춘의 벚꽃구경을 가자고 약속한 날이였다. 단 둘이서는 처음인 산책, 달콤한 향기가 풍기는 벚나무밑을 거닐며 자기가 그에게 할 말들과 또 그가 자기에게 합직한 말마디들을 생각해보노라니 수정은 저절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전 오빠같은 사람이 좋아요. 어쩔래요?》

그러면 그가 뭐라고 할가? 수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만은 꼭 하리라 별렀었다.

옷맵시며 화장에 세심한 신경을 써가면서 그가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집에 들어서는 길로 순호를 만난 그가 먼저 그의 방으로 들어갔던것이다.

한데 곧 나오려니 했던 기태가 한시간이 지나도 그만

이였다. 겸질긴 순호한테 붙잡혀있으리라 짐작하며 문앞으로 다가서던 수정은 그만 주춤하고말았다. 방안에서 울려나오는 순호의 목소리가 심상찮았기때문이였다.

《털어놓고 말합시다. 김형은 우째 이번 남북학생회담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는 동참 안합니꺼. 리유가 뭡니꺼. 우째 밤낮 정의나 량심같은 케케묵은 소리만 합니꺼?》

(케케묵은 소리?)

대뜸 이런 반발이 솟구쳤으나 수정은 곧 기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투쟁이란 어떤것이던 나름대로의 요구와 수준이 있는게 아니니. 그런데 난 남북학생회담은 그자체가 벌써 학생운동과는 수준을 달리하는거라고 생각해. 어디까지나 그건 남북학생들간의 문제이기전에 먼저 남북당국호상간의 문제가 아닐수 없다는거지. 말하자면 옆에 사는 이웃사이에도 아이들끼리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있고 부모들이 나서서 해결할 그런 문제가 있듯이 말이야. 그런데 부모들이 서로 앙숙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나선다고 문제가 풀리겠나이거야.

물론 나도 투쟁자체가 민중들을 각성시킨다는걸 모르진 않아. 그러나 이번 투쟁은 그런 각성보다 오히려 원천봉쇄를 다짐한 당국의 탄압을 증가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게 뭐겠니? 그래 이게 우리 투쟁에 무슨 리득이지?》

수정은 매사를 분별있게 판단하는 기태라는것을 새삼스레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순호의 대꾸는 여전히 볼멘 소리였다.

《그라믄 김형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깁니꺼?》

《난 학생들이 회담이나 하고 체육경기나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거나 그 전망이 열린다고 보지 않아. 우리의

통일은 그보다도 아직까진 국제적인 력학관계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봐.》

《국제적인 력학관계? 그게 뭡니꺼? 알겠십더. 김형이 어떤 사람인가 인제야 알겠십더.》

한숨처럼 토해내는 순호의 목소리였다.

《바로 그래 생각하이께 우리 투쟁에 동참 못할깁니더. 할수 없다 이 말입니더. 김형은 국제적인 력학관계, 다시 말하믄 외세가 우릴 통일시키는 변수라카는데 바로 그 외세때문에 통일이 안된다고는 우째 생각 못합니꺼. 그 외세라카는기 찍어말하믄 미제국주의입니더. 양키들이란 말입니더.

우리가 이번에 이북학생들과 만나겠다고 판문점 사용허가서를 냈는데 그걸 누구한테 냈는지 압니꺼? 미군사령관입니더. 우린 그걸 내면서 울었십더. 우리 땅에서 우리끼리 만나는데 미국놈 승인을 받아야 하는기 억울해서 울었단말입니더. 그란데도 김형은 우짜문…》

《…》

《하기사 남북을 이웃이라카는 김형인끼네 그래밖에 생각 못할깁니더. 그래 이북이 이웃입니꺼? 이북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피를 가진 외국사람입니꺼? 말해보이소. 그래 김형한테는 한사람 몸이 두동강 난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꺼? 동강난 몸띠이에서 피를 토하며 신음하고 있는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말입니더.

제발 이젠 김형은 지가 조선사람이라카지 마이소.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카지 말란 말입니더. 량심, 량심카는데 량심이라카는 말은 입밖에 내지도 마이소. 눈물이 나옵니더. 그란 김형을 보이끼네 눈물이 나온단 말입니더.》

《…》

울부짖는듯한 순호의 목소리에 뭔가 뭉클한것을 느끼

지 않을수 없는 수정이였으나 당장은 그에 대한 반감에 더 사로잡혔다. 무작정 기태를 옹호해주고싶은 충동이, 아니 옹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모든것을 무시해버리는것이였다. 더우기 다른것이면 몰라라 그의 량심에 대해 운운하는데는 참을수가 없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기나 해?)

《그러니까 순호씬 자기만이 옳다는건가요?》

불시에 방안에 뛰여들어 야무진 눈길로 쏘아보는 수정이로 하여 순호는 물론 기태까지도 눈이 둥그래졌다.

《어째서 자기만이 통일을 위한다고 생각하세요? 통일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생각하는거예요. 조선사람이면 말이예요. 그리고 어째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이의 량심을 함부로 모독하는거예요?》

마치 영문모를 뺨을 얻어맞기라도 한듯 순호는 어안이 벙벙해있기만 했다.

《그라믄 량심이 있다 말이가?》

《있지 않구요.》

《이 봐라!》

미간을 찌프린 그는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가며 말했다.

《누구나 말로는 다 통일을 바란다고, 량심은 있다카지만 그렇게 맘속에 품고있는기 량심이 아인기라. 지식도 실천을 위해 있는것처럼 량심이란것도 행동으로 나타내야 진짜 량심인기라.》

《글쎄 그런 걱정은 자기에게나 하란 말예요.》

그날 벗꽃이 만발한 창경원을 거닐면서도 기태는 아무말이 없었다. 그처럼 침울한 기색을 보기는 처음이였다. 이말저말 꺼내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그런 기태의 모습을 볼수록 수정은 재삼 순호에 대한 불만이 솟구쳐올랐다. 그에게 하려고 미리 골라놓

았던 말들과 그에게서 듣고싶었던 대답들이 모두 수포로 되고 말았다고 생각하니 다시한번 순호를 꼬집어뜯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었다.

《지금은 멋모르고 날뛰지만 한번 불들리기만 하면 투쟁이고 량심이고 다 집어던질거예요. 순호씨 말이예요. 그렇죠?》

묵묵히 걸음만 옮기던 기태가 한참만에야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머리를 젓는것이였다.

《안야, 걔는 말야… 말이나 행동이 다 거칠지만 그속엔 뭔가 피하지 못할 진실이 있어. 괴롭지만 난 그걸 느끼지 않을수 없어.》

《진실은 무슨 진실요!》

순호에 대한 그의 두둔이 수정이로 하여금 더욱 이런 말을 내뱉게 했다.

5월이 지나고 6월에 접어들자 남북학생회담을 위한 대학생들의 투쟁이 온 시내를 휩쓸었다. 그럴수록 《원천봉쇄》를 다짐한 《치안당국》의 기세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어떤 무서운 힘이 점점 팽팽해간다는것을, 미구하여 그것이 굉장한 압으로 폭발하고야 말리라는것을 누구나가 감촉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석간신문을 펼쳐들고 S대의 대자보사건을 취급한 기사를 읽어내려가던 수정은 그만 소스라치고 말았다. 체포된 사람의 명단에 다름아닌 기태의 이름이 있는것이 아닌가! 김기태, 아무리 여겨봐도 틀림없는 그의 이름이였다.

(설마?)

도저히 리해할수 없었다. 아니 믿어지지 않았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의 집에 전화를 건 그는 더한 절망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도 의심할 때까지는 혹

시나 하는 희망이라도 있었으나 그의 구속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마치 자기가 매달리고있던 한가닥의 바줄마저 끊어진듯한, 그래서 천길 아득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듯한 전률에 몸서리쳤다.

세상 착하기만한 그, 그 여리고 하얀 피부가 악착한 고문에 찢기고 터지는걸 상상하느라면 저절로 비명이 터져나오군했다.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단 말인가! 어째서 자기로서도 무모하다고 했던 그 투쟁에 나섰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수록 그 의문의 화살은 곧 하나의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것이였다. 그 과녁은 바로 순호였다.

《김형은 우째 남북학생회담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는 동참 안합니꺼. … 제발 이젠 김형은 지가 조선사람이라카지 마이소.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카지 말란 말입니더. 눈물이 나옵니더. 그란 김형을 보이께네 눈물이 나온단 말입니더.》

순호의 이 무분별한 절규가 그에게 어떤 자학의 감정을 자초케 했고 그리하여 무모하다는걸 알면서도 그는 투쟁에 나섰으리라.

이런 짐작이 들자 그것은 곧 어쩔수 없는 사실로 굳어졌다. 또 아무리 따져봐도 그것외 다른 요인이라고는 있을래야 있을수가 없을것 같았다. 그런데 그처럼 투쟁에 대해 열렬하게 부르짖던 순호, 당장 영웅이라도 될것처럼 떠들던 그자신은 도리여 지금 어딘가에 몸을 사리고 있는것이 아닌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기태를 몰아넣고 자기는 교활하게도 어딘가 깊숙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니 그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래도 제 말이 틀려요?》

수정은 엄마한테라도 화풀이하지 않고는 참을수 없

였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나 두고보라고, 급할 땐 투정이고 량심이고 다 집어던질것이라고 했지만 기태오빤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처럼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아직 모르지 않니.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함부로 의심하는게 안야.》

《그러니 엄만 아직도 그를 믿는다는거예요?》

마치 그 말을 확인이라도 해주는것처럼 그날저녁 순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던것이다.

《수정이가? 니만 알고있그라. 내 이제 좋은데 간다. 아무도 쉽사리 못가본데 말이다. 갔다오문 다 말해주께.》

자책은커녕 자못 기쁨에 떠있는듯한 그의 목소리에 수정은 숨이 다 막혔다.

《도대체 량심이 있어요? 있나 말이예요. 그래 순호씨가 말하던 량심이 그런건가요?》

《니 뭔소리 하노?》

《무슨 소리가 뭐예요? 남들은 체포되게 해놓고 자기만 피해다니면서 그것도 좋은데 간다구요? 사람이 어쩜… 됐어요, 긴말하지 않겠어요. 당장 집에 와서 짐을 싸들고 나가주세요. 아시겠지요?》

수화기를 내동댕이치기 바쁘게 수정은 엄마를 쏘아보았다.

《…》

그제야 엄마도 묵묵부답이였다.

조심스럽게 울리는 초인종소리가 들린것은 다음날 저녁이였다.

마음을 다잡은 수정은 분노에 박차를 가하며 문을 열어제꼈다.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외마디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아—니?》

문앞에 서있는 사람, 창백한 얼굴에 깊숙이 패여들어간 눈확, 체격까지도 이전보다 한둘레 더 졸아들어보이는 사람은 바로 기태였기때문이였다.

구치소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는 말조차 할수 없었다. 입을 벌리면 울음이 터질것만 같아서였다. 안으로 들어가자고 이끌었으나 왜서인지 그는 한자리에 서있기만 했다.

《저… 순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한참만에 한 말은 이 한마디였다.

《…? 아니요, 그건 왜 물어요?》

그제야 수정은 고개를 숙인채 서있는 그의 얼굴에 어떤 고민이, 여태까지 본적이 없는 그런 깊은 고뇌가 어려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느라니 어쩐지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엄습하는것이였다.

《수정이…》

목소리조차 딴사람처럼 느껴졌다.

《난 사실 이젠 수정이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의 투쟁이 어때야 한다는걸 지금에야 깨달았으니 길국…》

수정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수 없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어떤 나사에 감기는 악기의 현처럼 각일각 팽팽하니 조여지고있다는것만은 똑똑히 깨달을수 있었다.

《…난 순호들을 배반한거나 다름없어. 순호는 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가지고 판문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들도 그 사실을 알고있더군. 그런데도 난 입으로는 량심을 부르짖으면서도 그들의 투쟁을 외면한거야. 그를 지켜줄 생각조차 못했거든. 만약 순호가

불잡히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그가 판문점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수정은 갑자기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것 같았다.

(그러니 순호가 간다는데가 판문점이였구나!)

《따져보면 난 량심을 저버린거야. 그처럼 깨끗하다고 자부하던 나의 량심이 넝마쪼각에 불과할줄이야… 아, 이제야 비로소 나도 량심이 어때야 한다는걸… 그래서 이제라도 순호를 대신하자고…》

수정은 그가 무슨 말을 더했던지 또 언제 사라졌는지 알지 못했다. 단지 이제껏 자기 마음을 조이던 그 현이 일시에 뚝 하고 끊어져나가는것을 느꼈을따름이였다.

흔히 지나친 충격에 정신을 잃었던 사람이 한참후에야 어떤 사태가 빚어졌는가를 알아차리듯이 그도 얼마후에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그러나 차마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였던것이다.

(안야! 그럴수 없어! 절대로!)

그는 이 부르짖음이 믿어마지 않던 기태에 대한 미련때문인지 아니면 또 너무나도 분별을 가리지 못했던 자기자신에 대한 회오때문인지 저로서도 알지 못했다.

수정은 줄곧 방안에만 들어박혀있었다. 책들을 펴놓기는 했지만 글줄을 읽는것도 아니였고 창밖을 내다보기는 했지만 화단에 핀 꽃들을 보는것도 아니였다.

(기태가 체포된것이 순호때문이라고 여겼었는데 도리여 [illegible] 갇혔던 기태가 순호를 걱정하다니?!)

수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처럼 량심적이라고 믿었던 기태의 돌변한 태도가 리해되지 않았다.

기태가 뼈저리게 타매한것은 사실 순호가 아니라 자기가 그처럼 내세웠던 량심이 아니였던가? 량심! 도대체

량심이 어떤것이기에…

그때였다.

어떤 번개같은 섬광이 뇌리를 치는바람에 수정은 소스라쳤다. 그것은 언젠가 량심에 대해 웨치던 순호의 절규였다.

《누구나 말로는 다 량심있다카지, 그렇지만 맘속에 품고있는기 량심이 아인기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진짜 량심인기라!》

(맘속에 품고있는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것?)

그 말을 되새기던 수정은 가슴을 치는 충격에 또한번 놀랐다.

그러니 그의 말은 량심은 행동에 있다는것이 아닌가! 행동으로 나타내는것만이 진정한 량심이란것이 아닌가! 량심과 행동은 별개의것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 아닌가!

마치 어떤 새로운 진리라도 발견한것처럼 가슴이 울렁거렸다.

따져보면 순호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이였다.

어떤 생각도 생각자체에 머무르거나 어떻게 해야 할가하고 망설이는적이라고는 없었다. 량심이 가리키기만 하면 무엇 하나 서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였다. 그에게 있어서 량심이란 행동이였고 행동으로 증명되는것이 곧 량심이였다. 세상을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두 측면으로만 구별한다고 탓했던 그 단순성이 바로 남들에게는 없는 그의 깨끗한 량심이였다. 정녕 그런 량심이야말로 진정한것이 아닌가!

(그런데 기태는? 또 나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자기들이였다. 현실에 대한 온갖 모순들과 부조리들을 느끼긴 하면서도 말만 하였으니 이거야말로 실제상 수수방관한것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는걸 모르는바도 아니지만 단 한번이라도 행동으로 옮겨본적이 없는 자기였다. 그러면서도 량심만은 언제나 깨끗하다고 자부해오지 않았던가!

부끄러웠다! 그런 자신이 가소로왔다.

(안야! 그건 량심이 아니야. 그건 오히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거야. 왜냐하면 나같은 사람이야말로 자기 량심을 속이면서 살아왔으니까.)

그제야 수정은 모든것이 2중으로만 보이던 자기의 눈에 이젠 점차 하나로, 명백한 초점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것을 느꼈다. 아니 여태껏 답답한 움속에 옴츠리고있던 자기가 이제야 비로소 밖을 내다보는것 같았다.

(그래! 더는 그렇게 살수 없어, 이젠 나에게도 량심이 있다는걸 보여주어야 해!)

이런 생각에 이르자 수정은 아직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흥분에 휩싸였다.

늘 입던 치마를 바지로 갈아입을 때까지도, 판문점으로 향하는 통일선봉대의 발대식이 거행되는 대학광장으로 달려올 때까지도 그는 제정신이 아니였다. 시위군중들속에 섞여 철망을 뒤집어쓰고 마주 서있는 전투경찰들을 보느라니 더더욱 걷잡을수 없는 심정이였다. 마냥 가슴속에는 행동하고싶고 투쟁하고싶은 열망이 용솟음쳤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멀리에 있는 순호를 보자 그 열정은 대번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것이였다.

《순호오빠!》

땀으로 미역을 감으며 대오의 맨앞까지 나간 수정은

다짜고짜 연설을 마치고 내려서는 그의 팔에 매달렸다. 미처 자기가 오빠라고 불렀다는것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용서해주세요. 제가 미처…》

무슨 일이냐는듯 두눈을 슴뻑이던 순호였으나 곧 씩하고 웃었다.

《뭔소리 하노? 그란 말 말그라. 내 니 마음 다 안다. 이렇게 투쟁에 나서리란것도 알고있었고.》

목덜미를 훔치며 싱글거리던 그가 갑자기 무슨 비밀이라도 털어놓듯이 속삭이는것이였다.

《니 보기 좋테이.》

《무슨 말이죠?》

《바지 입은게 더 이쁘다 그말이다.》

수정은 그 말이 자기 마음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는걸 모르지 않았다. 그럴수록 가슴은 더 미여지기만 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도 괜찮아요? 수배당하고있으면서…》

《그라믄 숨어있으라 말이가?》

언제나처럼 대뜸 미간을 찌프리는것이였다.

《낸 그래 못한다. 이노마들이 아무리 막아서도 내 판문점에 갈기다. 봐라, 이기 이북대학생들한테 줄 편지아이가, 참! 니 김형 만나봤노?》

《…》

너무도 갑작스런 물음에 당황한 수정은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혹시 그에 대한 오해로 하여 벼락같은 소리라도 치지 않을가싶은 위구가 갈마들었던것이다.

《욕하지 말그라, 김형말이다. 김형이 나쁜기 아니라 이노마 세상이 나쁜기라. 그리고 김형도 이제사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걸 똑바로 알았다 말이다, 저기 봐라!》

수정은 그가 가리키는쪽을 돌아보았다. 선두대렬에서 열심히 손을 흔들며 구호를 웨치고있는 기태의 모습이 사람들사이로 얼핏 보였다.

그런 그의 모습도 모습이였지만 보다는 기태를 위해주는 순호의 마음에 더 가슴이 뭉클해진 수정이였다. 어쩐지 자꾸만 눈시울이 달아오르는것이였다.

《얼마나 멋있노. 어느기 옳은가 하는걸 안 다음에는 저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 바로 저런 사람이 대장부 아이가, 스나 (사내)대장부 말이다 가거라, 니 내옆에 있기보다 김형옆에 있어야 더 힘이 나서 잘 싸울기다.》

수정은 저도 모르게 두손에 얼굴을 묻고 말았다. 쏟아져나오는 눈물을 막을길이 없었던것이다.

고개를 들었을 때에는 이미 순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새 손마이크를 움켜쥔 그가 대오의 맨 앞장에 나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주먹을 부르쥔채 하늘을 쳐다보며 울부짖는 그를 바라보느라니 수정은 여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온몸에 솟음쳐올랐다. 그러면서 방금 한 그의 말이 다시 상기되는것이였다.

《바로 저런 사람이 대장부아이가 스나대장부!》

어떤 힘에 이끌리듯 수정이도 옆사람의 어깨를 겯고 노래를 따라부르기 시작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힘찬 노래소리는 맑게 개인 6월의 창공을 오래도록 진감시키고있었다.

고향손님

소 영 호 (재일동포)

1

한여름에도 며칠동안만 장마비가 계속되면 섬나라에서는 습기가 많아서 여기저기에 곰팽이내가 풍긴다. 그렇게도 후줄근하던 날씨가 점심때가 돼서야 겨우 맑아지기 시작하였다.

7월의 태양은 사정없이 뙤약볕을 내리부어놓고는 땅에서 물씬물씬 김을 빨아올린다. 싱싱한 나무잎사귀들은 물방울을 털고 기지개를 하듯 가지를 쭈욱쭈욱 펴는것이였다.

점심을 먹고난 강로인은 개운한 기분으로 현관마루에 걸터앉아 담배를 붙여물었다.

한모금 깊숙이 들이마셨다가 한숨처럼 후—하고 내뿜는 회색연기에는 뜨거운 입김이 섞여있었다. 어데라없이 가느스름하게 눈을 쪼프리고 바라보는 강로인의 가슴속엔 깊이 도사린 시름이 있었다.

그는 한나절동안 그 누구하고 말 한마디 나눌수가 없어 그저 답답한 마음을 꾹 누르고있을수밖에 없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겆이를 하느라고 이따금 딸가닥소리를 냈다. 조선말을 모르는 며느리는 오늘도 점심을 차려놓고 권하는 시늉만 할뿐이였으니 그들사이에 도무지 의사가 통할리가 없었다.

마침내 손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큰손자 일수는 올해 6학년이고 둘째손자 길수는 4학년이다. 비둘기처럼 나란히 돌아온 그들은 현관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머리를 꾸벅하더니 난데없는 왜가리소리를 지르면서 책가방을 마루우에 팽개치고 부엌으로 뛰여갔다.

(아마도 학교에 다녀왔다고 제 에미에게 하는 말이겠지.)

강로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 멍하니 서있다가

《오늘은 토요일이니 여느날보다 빨리 온게로구만. 허그놈들 발이 제법 크다.》하고 중얼거리며 손자들이 벗어 팽개친 운동화를 가지런히 바로잡아놓았다. 그리고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거 참, 너희들은 네 말을 하고 나는 내 말을 하다보니 당초에 알아먹을수가 있어야지! 참으로 혈육지간에 이렇게 답답할수가 있단 말이냐… 이게 다 뉘탓일고?!…》

강로인이 한달기한의 려권을 가지고 일본에 있는 아들네 집에 온지는 벌써 보름이 되였다.

아들 경철이는 더듬거리기는 하지만 대강 말은 알아듣고 제법 셈길수 있었다. 경철이는 버릇되여 입에서 튀여나오는 일본말을 억지로 몰아넣고 아버지에게 좋다 하는 경치도 구경시키고 온천에도 안내하였다.

강로인은 일본에 건너온후 경철이가 내내 붙어다녔기에 그는 오늘처럼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요 며칠전부터는 경영하고있는 주물공장을 너무 오래 비울수 없어 아들이 낮에는 공장에 나가 살았다. 그러다보니 부자간에 얘기를 주고받는것은 자연히 밤으로 밀릴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다가 오늘은 공장의 거래관계로 손님들과 교제할 일이 있어서 늦게 돌아올지 모른다는것이였다.

강로인은 마른 입을 쩝쩝 다시면서 일어서더니 뒤짐을 지고 가만가만 앞뜰로 걸음을 옮기였다.

《헛췌!》하고 재채기를 한 그는 중얼거리였다.《그놈의 랭방이란게 좋고도 나쁜것이여…》

시원한 방에 앉아있기보다 해볕은 따갑지만 밖에서 무언가 꾸무럭거리는것이 성미에도 맞고 건강에도 좋을것 같았다.

그는 소매를 걷어올리더니 뻗어내린 장미넌출을 작대기로 묶은 가지에 둘둘 감아서 제쳐놓았다. 그리고는 꽃밭의 잡초를 솜씨있게 뽑기 시작했다. 그 무슨 화풀이라도 하듯이 세차게 풀포기를 흔들어 흙을 털었다.

강로인의 기골은 정정해보이지만 주름잡힌 얼굴은 해볕에 검게 그슬리였고 거의 센 머리는 칠십평생 살아오면서 겪은 고생을 한눈에 엿볼수 있게 한다.

그는 바랭이와 쇠비름을 몇줌 뜯어내더니 명석 서너장 너비의 꽃밭을 잠간사이에 훤칠하게 가꾸어놓았다. 그리고나서 더 할 일이 없을가 주위를 휘둘러보다가 두손을 썩썩 비비고는 출입문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일수야! 길수야!》

강로인은 손자들을 찾았다. 그는 한번도 문밖에 혼자 나가본 일이 없었다. 설사 나간다 하더라도 일본말을 전혀 할수 없기때문에 전차를 타거나 물건을 사러 다닐수 없었다.

《조선말을 하는 사람들과 치마저고리를 입은 사람들하고는 입을 떼지 말라.》

《당국》에서는 려행을 떠날 때 강로인에게 이렇게 여러번 다짐을 하였고 이곳에 오자마자 아들 경철이도 똑같은 당부를 하는것이였다. 그런 일이 생각나서 차마 혼자 문밖에 나갈수 없어 손자들을 동무삼아 부른것이였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달려나온 손자들을 보니 그래도

반가와서 강로인은

《얘들아, 집앞의 행길에서 바람이나 좀 쐴가?》하고 물었다.

《?…》

알아듣지 못하는 손자들이 대답을 못하리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도 답답해서 한 말이였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집에 붙박혀있는것을 답답해한다고 눈치챘음인지 말없이 졸래졸래 뒤따라나섰다.

몇걸음 못가서 강로인은 철철 휘늘어진 가로수 수양버들그늘에 엉거주춤하니 앉아서 담배를 붙여물었다.

옆골목에서는 여라문명의 일본애들이 두패로 되여 히룽거리며 와작 떠들었다.

일수와 길수는 할아버지를 따라나서기는 하였지만 수양버들밑에 우두커니 서있자니 재미가 없었다. 손자들은 멋적은듯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서로 바라보다가 키득키득 웃었다. 이윽고 작은 손자 길수는 집에 들어가버리고 일수도 애들의 놀음판에 끌리여 옆골목으로 뛰여갔다.

강로인은 담배만 뻐금뻐금 피우고있었다. 하염없이 먼곳을 바라보고있던 강로인의 눈앞에 뜻밖의 일이 생겼다.

《아니? 저 애가! ─》

열살 남짓해보이는 소녀애가 순 조선식옷차림인 색동저고리에 물색치마를 산뜻이 받쳐입고 머리에는 나비모양의 분홍색댕기를 달고 걸어오는것이 아닌가! 그런데다가 자기 키보다 훨씬 큰 물건을 옆에 끼고 방글방글 웃는 얼굴에 조선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강로인은 놀라운듯 두눈을 썩썩 비볐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말인가! 여긴 분명 만리타국 일본땅인데…)

그는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애야, 날 좀 보렴. 네가 틀림없이 조선아이지?》

소녀는 뜻밖의 질문이란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로인을 쳐다보며 방긋 웃었다.

《그래요, 할아버지. 왜 물으십니까?》

《아이구! 너무두 반가와서 그런다! 반가와서…》

강로인의 눈시울에는 금시 이슬이 서리였다. 잃었던 손녀애를 만났을 때의 심정그대로였다.

(어쩌면 이렇게도 맑은 목소리에 복스러운 얼굴일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이 애를 키우는 모양이지.)

《말 좀 물어봐도 좋지? 넌 그래 이 근처에 사느냐?》

《예. 저쪽 신호등을 지나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집이 있어요. 바로 분회사무소옆이예요.》

《분회사무소? 흠, 그래, 이건 뭔데 그렇게 무거운걸 들고가니?》

《할아버지, 가야금을 모르세요? 다 이렇게 보에 싸서 들고다녀요. 학교에 가서 가야금연습을 하려구요. 그리 무겁지 않아요.》

《가야금!》

그는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원래 조선악기로 이름있는 가야금을 근간에는 남조선에서도 보지 못했던것이다. 강로인이 일생에 가야금 타는 소리를 들은적은 몇번밖에 안된다. 그런데 일본땅에 와서 그런것을 보게 되리라고야 어떻게 생각인들 했겠는가.

《참 기특한 일이로군. 내가 좀 들어다줄가.》

《괜찮아요.》

《그래 학교는 어디쯤 있니?》

《저기 은행나무 두그루가 보이지요. 바로 거기예요.》

《내가 저만치 들어다줄게.》

로인은 가야금을 쥐여보는것이 몹시 흐뭇했다. 소녀와

함께 걸으며 강로인은 자기의 손자들도 이처럼 떳떳하게 길렀으면 오죽 좋겠는가고 생각하였다.

《본국》에서는 일본땅에 이남학교가 곳곳에 수많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없다고 하지 않는가. 이 소녀가 연습하러 가는 학교란 대관절 어떤 학꾤가? 돈 많은 집 자식들이 노래도 배우며 공부하는 학교가 아닐가. 알아보고싶은 생각이 부쩍 동하였다.

《그래, 가야금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니?》

그 말에 소녀는 걸음을 멈추고 의아쩍은 눈빛으로 강로인을 쳐다보며 되묻는것이였다.

《할아버진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 조선초중급학교를 모르시나요?》

《아니! 조선학교?》

조선학교란바람에 강로인은 그만 어안이 벙벙해지고 어쩐지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여 입은 벌리였으나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러나 귀여운 소녀에게 곧바른 대답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특별한 예술학교에 연습하러 가는 아이인줄 알았더니 총련에서 경영하는 조선학교 학생이란말이지…)

《난 이남에서 다니러 왔다. 우리 집이 저 버드나무 옆집이다.》

《할아버지, 남조선에서 오셨구만요. 참 잘 오셨어요. 할아버지네 집에 일본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둘이 있지요. 우리 학교에서 함께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우리 학교를 한번 꼭 구경하세요. 저희들의 가야금연습도 보시고요… 부탁입니다.》

강로인은 소녀의 천진스럽고도 다정한 눈동자를 바로 볼수 없었다. 마음같아서는 얼른 《그러자!》 하고싶었지만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소녀앞에서 량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어떻게 분별없이 행동할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아들한테 속은것만 같아 고까운 생각을 쉬이 묵새길수가 없었다.

《제 자식까지 애비를 속이다니, 후—》

그는 속이 울울거리는것을 겨우 참았다.

《그래 학생의 이름은 뭐라고 하는고?》

《권옥순이라고 해요.》

《권씨라…》

《할아버지 고향은 어데입니까?》

《전라북도 부안이다.》

《그럼 우리 집 고향하구 같구만요.》

《아니 그럼 그, 그 권씨가?…》

강로인의 입술은 바르르 떨렸다. 솟구치는 충동을 억누르려고 애를 써도 감출수가 없었다. 상상할수 없었던 새로운 현실에 부닥쳤을 때의 놀라움이였다.

한편으로는 일본땅에까지 와서도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지내왔다는 괘씸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팠다.

《알만하다! 옥순이는 먼저 가렴…》

그는 부러 웃음을 지어보였으나 목소리는 떨렸고 종시 말을 끝맺지 못하였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도 고향손님이 오셨다는걸 알면 기뻐서 달려올텐데요뭐. 어서 학교에 가보자요.》

옥순이는 발을 동동거리면서 졸랐다.

로인은 속에서 뜨거운것이 뭉클 솟구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알겠다. 난 나중에 천천히 갈테니 먼저 가려무나.》

옥순은 선뜻 따라서지 않는 강로인에게 서운한 기색을

지어보이며 《꼭 오세요. 기다리겠어요, 예?》 하고 다짐을 두었다. 옥순은 강로인이 그러마하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거려서야 걷기 시작했다. 저만치 가다가 옥순이는 돌아서서 다시 손을 저어보이였다.

《할아버지ㅡ 꼭 오셔야 해요. 예ㅡ》

옥순이는 학교쪽으로 종종걸음을 놓았다. 강로인은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옥순이의 모습은 오가는 사람들속에 쉬이여 사라져버리고말았다.

그러나 《할아버지ㅡ꼭 오셔야 해요.》 하는 소리가 계속 사라지지 않고 귀전에서 메아리쳤다. 강로인은 자기도 모르게 두그루의 은행나무를 가늠하며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2

《딸기!》

부엌에서 설겆이를 하고있던 며느리는 느닷없이 길수가 뛰여들어오는바람에 흠칫 머리를 들었다.

《아이! 깜짝이야!》

그는 요즈음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시아버지에게 무슨 큰 죄라도 진것 같고 제딴에는 성의를 다하느라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였다. 그래도 남편이 집에 있을 때엔 의지가 되였다. 그런데 한낮에는 아이들조차 학교에 가버리고나니 더욱 애가 타는것이였다. 시아버지만 집에 남겨둔채 어디 나가기도 어려운 일이였다.

일본에서는 남들도 그렇게들 사는데 할수 없지 않는가. 갑자기 하루이틀새 우리 말을 배울수도 없는것이고 그럭저럭 시아버지는 한 보름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갈테지…

이러면서 남은 며칠동안이 어서 지나갔으면 하였다.

그는 경제적으로 그리 곤난을 받아본 일이 없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는 집에서 살고있는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왔었다.

그렇게 고생을 덜해서 그런지 나이보다 대여섯살쯤 젊게 보이여 삼십이 갓 넘은 녀성같았다.

그런 그에게도 가슴태우는 일이 한가지 있었다. 그것은 해마다 아이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이였다. 처음에는 남편한테 밀어버리기도 하고 무어라 반대할 말이 없어 그 학교가 맘에 안든다고도 해보았다. 나중에는 조선교육은 천천히 받도록 하겠노라고 찾아온 사람을 문밖에서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 5~6년 뻗대여오다나니 이제는 이골이 나서 《우리는 이남사람이니 다시 오지 말아요.》하는 말을 쉽사리 해버리군하였다. 그뒤로는 숫제 입을 딱 다물어버리고 총련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집안에 안들여놓기로 하였다. 때로는 왜 이렇게 싫은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하는가고 남편에게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남편 경철이는 이렇게 하여 총련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려 하였던것이다.

절반씩 베여먹고는 꼭지에 아직 살이 붙은 딸기를 내버리는 길수를 경철의 안해는 나무람하였다.

《좀 기다려라. 어머니가 다듬어줄게. 손이나 좀 씻고 먹으렴.》

그는 두세번 헹군 쌀에 물을 부어 손등으로 가늠하더니 솥뚜껑을 덮고 행주로 물기를 훔쳤다.

《딸기가 물크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꼭지를 잘 따야해. 그런데 일수는 어데 갔니?》

《할아버지하구 밖에서 놀아.》

《뭐? 뭘하면서 놀고있어?》

《형은 몰라. 할아버지는 수양버들밑에서 담배를 피우

고있었지뭐.》

경철의 안해는 얼굴에 미소를 띠우며 재게 손을 놀려 딸기꼭지를 땄다. 그는 시아버지와 일수에게도 주려고 유리쟁반에 소복히 딸기를 쌓아올렸다. 그리고 그우에 하얀 사탕가루를 듬뿍듬뿍 뿌려놓았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종이 울리자 그는 곧 용수철같이 뛰여나와 수화기를 들었다.

《예? 당신이애요! 민단의 오까다상이 저녁에 찾아온다구요. 다섯시나 여섯시? 그럼 그 시간에 당신도 꼭 와주세요. 준비는 걱정 말구요.》

전화를 받고난 그는 랭장고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이것저것 세여보더니 부산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바삐 서둘 일도 아니였다. 그저 마음이 달아서 왔다갔다 할뿐이였다.

생선과 고기는 오전중에 사다놓은것이 있고 맥주병은 랭장고의 남새를 끄집어낸 자리에 쟁여놓으면 된다.

그는 파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말하였다.

《얘 길수야, 어서 가서 형을 불러오너라. 그리고 할아버지도 오시라고 해. 딸기 잡수시게.》

길수가 나가더니 한참후에 일수와 함께 숨을 헐떡이며 뛰여들어왔다. 둘이 딸기그릇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무슨 경쟁이나 하듯이 두손으로 마구 집어먹기 시작했다.

《할아버진 안오시니?》

길수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가 안보이는데뭐.》

일수가 하는 말이였다.

《아니, 넌 문밖의 수양버들밑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니?》

《버들밑엔 아무도 없어!》

그제야 경철의 안해는 눈이 휘둥그래지고 단꺼번에 얼굴색이 새파래졌다.

《아니 내 정신 좀 봐. 벌써 한시간이 됐을텐데. 그럼 어데 계실가? 아이구 참 얄궂다. 길가에 무슨 구경할것이 있다고…》

그는 부리나케 방마다 고개를 길게 빼고 들여다보았다. 2층에도 올라가보았다. 참 걱정스러운 일이였다. 현관에도 꽃밭에도 있을리가 만무하였다. 강로인은 옥순이가 사라진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있었던것이다.

두그루의 은행나무를 눈겨냥으로 찾아온 강로인은 학교의 울타리밖에서 멈춰섰다. 교문안으로 들어가볼 엄두는 나지 않았다. 소녀와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조선학교가 있다는것을 알게 된이상 겉으로라도 한번 보고싶었던것이다.

행길가에서 봤다고 하는것이 조금도 《법》에 어긋나지 않을것이고 오히려 봐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것이다.

운동장에서 여라문명의 어린애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뽈을 차고있는것을 보니 틀림없이 학교가 분명하였다. 그런데 4층건물이 하늘높이 솟아 웅장하게 차리고있는 모습은 필경 무슨 고급호텔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설마 조선학교를 이렇게 잘 지어놓은줄은 몰랐구만! 그러니 저 궁궐같은 집에서 글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가야금을 탄단말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걸!》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이고있을 때 교문쪽에서 《할아버지—》하면서 옥순이가 공처럼 뛰여오는것이였다.

《마침 잘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기 오셔요!》

《그래, 저기 오시는분이 옥순이 아버지란말이지.》

강로인은 옥순이가 반갑게 맞아주는것이 하도 고마와

서 입을 열었다. 그러나 한편 수상한 사람이 어느 모퉁이에서 지켜보고있지나 않을가 하여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옥순이한테서 전화련락을 받은 권상도는 주물공장에 납품해야 할 고철재료를 화물차에 싣다 말고 부랴부랴 달려오는 길이였다.

《저, 강경철의 부친이십니까?》

《예, 그렇소.》

《해방전에 고향에서 한번 뵈온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래마을에서 살던 권상도입니다.》

권상도는 로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삼십년전에 한번 만나본 일이 있었다 해도 그들은 서로 알아보기 어려웠다. 어쩌면 옛날모습의 륜곽이 남은것 같기도 하였으나 생전 초면이나 다름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가슴은 친혈육을 만난것처럼 뜨거웠고 끓어오르는 반가움으로 하여 눈물까지 글썽해졌다.

《자, 좀 들어갑시다. 저는 고철장사를 하고있습니다만 이 학교교육회의 일도 좀 거들고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 돼서 학생들이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 몇이 남아있지 않을겝니다. 저의 집이나 다름없으니 우선 좀 들어갑시다.》

권상도가 자꾸 권하는데 강로인은 조심하는 기색으로 말했다.

《밖에서 좀 구경하기는 했지요. 이게 다 조선학교가 틀림없는가요?》

《안으로 들어가보시면 다 알게 돼요.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술경연연습도 좀 구경하세요.》

《뭐 예술연습?》

강로인은 옥순이의 말뜻을 선뜻 알아들을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중앙예

술축전에 나가기 위하여 가야금연습을 하고있어요.》

《가야금! 참 좋은 일이지… 그런데 권상도씨, 차후에 또 만나기로 하고 이만 실례하겠소. 집애들에게 온다간다 말도 않고 와버렸으니까 걱정도 할게고…》

강로인의 얼굴에는 어쩐지 초조한 빛이 어리였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사실인즉 경철이 부친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몇번 찾아갔지요. 어제도 안계신다고 해서 돌아왔지만… 제가 모셔다드릴테니 어서 들어갑시다. 잠간 들렸다가 담배나 한대 피우고 가십시오.》

《집이야 없어지면 코닿을데가 아니요. 참, 학교를 짓기도 잘 지었소!》

강로인은 결심을 내린듯 권상도의 뒤를 따라 교문안으로 들어갔다.

권상도는 강로인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학교들을 짓도록 배려해주시고 거액의 교육비와 장학금까지 보내주신다는것을 설명해주었다.

강경철의 부친이 한달기한으로 와있다는 소문을 권상도가 들은것은 벌써 여러날전이였다. 권상도는 강로인을 만날수 있는 기회를 벼르다가 어제밤에도 경철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턱을 넘어설수가 없었다.

두 집사이는 같은 고향이라고 해서 이전에는 서로 친하게 지내왔었다. 경철은 권상도의 주물원료를 자기 공장에서 사다 쓰기도 하고 한때는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그후에 경철은 판을 좀 크게 펴게 되였다. 일본이 남조선과 조약을 맺은 전후부터는 권상도와 거래를 딱 끊게 되였다.

그러나 총련분회일을 보다가 교육회 부회장으로 사업하게 된 권상도는 해마다, 철따라 경철이에게 아이를 《조선유치원에 넣어라, 조선초중급학교에 넣으라》고 찾아가

군했었다. 그럴 때마다 강경철의 안해는《우리 집에는 우리 집 사정이 있고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요.》할뿐 막무가내였다.

경철이도 처음에는 집안에서 의논해보겠다고 하더니 몇해전에 고향엘 한번 갔다온 뒤로는 만나는것조차 두려워하는것이였다. 그리고 경철의 안해가 아예 입을 딱 봉한채 매번 문을 걸어잠그고 이야기곁을 주지 않으려 했다.

그렇지만 권상도는 같은 조선사람으로서 그를 건져내는 일에 순순히 물러날수가 없었다. 그래서 올해 여름방학에 운영되는 하기학교에 아이들을 꼭 보내도록 다시한번 권해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있던참이였다.

강로인은 권상도의 안내를 받으며 층계로 올라가면서 학교의 내부시설을 둘러보았고 하나하나 감동깊은 설명을 들었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찾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려온 총련사람들의 애국애족의 마음이 못내 가슴뜨겁게 맺혀와 강로인에게는 하얀 벽이며 책상, 의자들이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과연 그렇구만! 암 그렇고말고!》

강로인은 권상도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담아들었다. 아까 교문밖에서 우물쭈물하던 때와는 다르게 태연하고 름름한 자세였다.

《참 훌륭하군, 훌륭해!》

그는 무슨 말을 고를지 몰라 연해연방 고개를 끄덕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갑자기 날씨가 어둑컴컴해지면서 난데없는 비구름이 몰려들고 비방울이 쭈룩쭈룩 쏟아지기 시작했다. 창대같이 퍼붓는 소낙비로 하여 운동장에는 금시에 물이 흥건히 고이고 행길에까지 물이 차서 달리던 자동차마저 뜸해졌다.

소나비로 미역을 감은 길가의 수양버들도 가지가지 휘늘어져 삼단같이 풀어헤친 머리채를 곱게 감아 빗었다. 홈통을 타고 흘러내리는 락수물소리가 좔좔거린다.

모든 오물을 한꺼번에 씻어가듯이 수채구멍에서는 꿀꿀거리면서 도랑물을 빨아들인다.

옥순이와 같은또래 애들이 가야금을 튕기며 부르는 노래소리가 귀에 쟁쟁한데 강로인은 권상도가 권하는 담배를 한모금 깊숙이 들여마시였다. 그러더니 초조하기는 커녕 오히려 침착한 얼굴빛으로 차근차근 말하였다.

《옳습니다. 어찌 나라와 민족이 두개로 쪼개질수 있겠소. 본래 하나인 우리 조선이말이요. 당신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들을 하시오. 이 늙은게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소. 내 힘은 비록 작지만 겨레의 비극을 가시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것도 두려움없이 조국통일을 위해 보태나서겠소!》

크고작은 주름살속에 자리잡은 그의 눈망울은 평생에 처음으로 진실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체험한 기쁨으로 빛나고있었다.

그들은 비가 한줄금 걷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여느날 같으면 해가 한발이나 남아서 한창 밝은 대낮일텐데 벌써 어둑어둑한 황혼이 깃을 펴기 시작하였다.

비구름이 걷히지 않으면 이대로 어두워져서 밤이 되고 말것이다.

《뭘요. 비가 멎으면 슬슬 걸어가지요. 그리 먼길도 아닌데.》

자동차에 태워서 집에까지 모셔다드리겠다는 권상도의 말에 강로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슥고 비가 멎었다. 강로인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권상도는 교문밖 멀리까지 강로인을 배웅하였다.

3

강경철의 안해는 안절부절 못하고 현관을 들랑거리다가 행길에까지 나가보았다. 어디에다 대고 물어보기도 어려운 일이였다. 갑자기 비방울이 떨어지기에 우산을 받고 수양버들밑에 한참 서있어보기도 하였다. 그는 속이 달을대로 달았지만 할수없이 부엌일을 시작하려고 집으로 되돌아왔다.

일수와 길수는 현관문을 열어놓은채 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서 할아버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마치도 자기들 잘못으로 하여 할아버지를 잃어버리기라도 한것처럼 또랑또랑 두눈만 깜박이고있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종이 울리자 경철의 안해는 찌뿌둥한 낯빛으로 느릿느릿 걸어와서 수화기를 들었다.

《예? 당신이예요. 민단에서는 아직 안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안계신단말이예요. 꽃밭김을 매고 아이들하구 마당에서 놀고계셨는데요. 예?이렇게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하란말예요. 담배사러 갔다가 우비가 없어 못오시는게라구요? 비 멎으면 가보겠어요.》

수화기를 놓고 생각해보니 담배를 사러 갔을게라는 남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담배는 집에 수북이 사다놓지 않았는가? 할아버지는 일본말도 모르는데…

경철의 안해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쩔바를 몰랐다.

남편은 자기대로 또 속이 달아서 거듭 전화를 걸어왔다.

《예? 이제 나가보겠어요. 비가 머즉해지누만요. 뭐예요? 나한테 언제 조선말을 배우라고 했어요? 말을 모

르는 내탓이라구요? 아, 저기 와요. 아버님이 정말 오셔요.》

경철의 안해는 수화기를 놓고 후―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말이 통하지 않아 시아버지에게 어디 가셨던가고 물어볼수 없는것이 딱한 일이였다. 할수없이 일본말로 어서 올라오시라고 했으나 통하지를 않았다.

손자애들까지 무어라고 반가운 웃음을 띠우고 말하였으나 강로인은 통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아따 그녀석들, 제비새끼들같이 잘도 주어섬긴다.》

강로인은 그래도 손자애들이 귀여워서 혼자말처럼 한마디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가 딸기를 소복히 담은 유리쟁반과 시원한 보리차를 내놓으며 손짓으로 권하고 나갔다.

강로인은 보리차를 한고뿌 들이키고 권상도가 사준 담배를 맛있게 피워물었다. 그는 어서 아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얼마후 경철이가 들어왔다.

강경철은 현관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안해에게

《오까다상이 아직 안왔소? 오늘따라 웬 급한 일이 있으니 꼭 만나자고 하더구만. 제길.》하고 투덜거렸다.

경철은 팔목시계를 한번 쳐다보고는 응접실에 들어가서 의자우에 너저분히 펼쳐진 신문들을 주섬주섬 거두었다. 40고개를 넘은 그는 몇해전부터 귀밑에 서리가 희뜩거리고 최근엔 배까지 불룩하니 나오기 시작했다. 이마도 퍼그나 벗어진편이다.

경철은 아버지가 거처하고있는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 벽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누웠던 강로인은 문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경철은 그냥 문을 닫고

《주무시누만.》하면서 다시 응접실로 들아왔다.

《허 참, 바쁜일을 밀어놓고왔는데 그 사람이 왜 아직 안오나.》하면서 경철은 안해가 가져다놓은 보리차를 마셨다.

호랑이 제말하면 온다더니 상고머리에 코밑수염을 기른 오까다가 돌배갈이 때글때글한 이마빡을 찡그리며 들어왔다. 그는 두어깨를 추켜세워 자라목같이 움츠리고는 들창코를 연신 벌름벌름하였다. 아마도 제딴에 무슨 일로 해선지 화가 나는 모양이였다.

그는 응접실에 들어서자마자

《강경철씨가 설마 그리할줄은 몰랐소. 신분보증을 선 내 립장이 어떻게 되겠냐말이요 응?》하면서 밑도끝도 없는 말을 꺼냈다.

《좀 앉으시오. 대관절 무슨 일이 생겼소?》

경철은 무슨 곡절이 생겼는지 영문을 몰랐다.

오까다는 단단히 따지려는듯이 부러 위엄을 지어보이며 헛기침을 하였다. 그리고는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서 올방자를 틀고 말을 이었다.

《생각해보시오. 그래도 이 문동하가 민단 감찰위원장인데 어떻게 나를 속일수가 있느냐말이요. 수십년만에 고향에 갔다오고싶다고 해서 내가 힘써주었지. 이번에도 부친을 초대하고싶다고 해서 신분보증을 서주었지. 그게 다 이 오까다, 문동하의 덕분이란걸 잊었냐말이요?…》

경철이가 하도 답답하여 들을수 없었던지 말을 가로챘다.

《그게 어쨌단말이요? 오까다상이 힘써준것은 사실이지만 나도 할것은 다하지 않았소! 약속도 다 지켰단말이요. 고향에 한번 갔다오는 려권을 받기 위해서말이요. 권상도씨하고는 오래전부터 거래를 끊었고 조선학교에 보내라고 우리 집에 그렇게 찾아왔지만 딱 거절했

단말이요.》
《그런데말야…》
《내 말 마저 들어보시오. 권상도씨를 고향에 한번 갔다오도록 권하라는건 못했지만 사실 그 사람이 내 말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지 않소. 그후로 조선신용조합하고도 거래를 딱 끊었소. 〈영주권〉신청도 하지 않았소.》
경철이가 하는 말을 맞갖잖게 여겼던지 오까다는 아까부터 들창코를 킁킁거리면서 코방귀를 뀌고있었다.
《아니 이 바쁜 세상에 누가 지나간 얘기를 하자는건가?》
《예?》
《당장 오늘 벌어진 일인데, 발등에 불 떨어진줄 모르고 이래!》
《?!》
경철은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긴게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수그러졌다.
오까다는 그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도 발표하듯이 멋적게 점잔을 빼면서 입을 움직이였다.
《흠!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들을 조선학교에 보낸단말이요?》
《조선학교라니?》
《어험! 시치미를 떼지 마오. 두눈으로 딱 봤다는 련락이 들어왔는데도 그래?》
경철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저께 오까다가 왔을 때 손자들을 왜놈으로 길러서는 안되겠다는 말을 했었다. 그렇다고 하여 갑자기 오늘 조선학교에 보냈다는것은 터무니없는 억지가 아닌가.
경철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뭣을 봤단말이요?》

《경철씨, 부친이 손자들을 데리고 조선학교에 가려고 나와있었다는데… 손녀에게 치마저고리를 입혀가지고 수양버들밑에 서있는걸 똑똑히 봤다는데.》

《별 실없는 소리를.》

《내가 당장 쫓아와보려다 소낙비때문에 늦어지긴 했지만… 큰일났소.》

경철은 어이가 없어 큰소리로 웃었다.

《울어도 시원치 않겠는데 웃어? 부친은 래일아침에 당장 쫓겨가고말거요.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달려온줄 모르고.》

《나살이나 들어가지고 허튼소리를 어지간히 하는구려… 우리 집에는 딸애가 없는데 어떻게 치마저고리를 입힌다고 그러오?》

경철의 말에 오까다의 민들민들한 얼굴이 마치 교통사고현장의 신호등마냥 누르락붉으락했다. 그러더니 《아하!》하고 입을 열었다. 마치나 터진 풍선같이 그의 허파에서 《푸—》하고 바람이 빠졌다.

갑자기 풀이 죽은 오까다는 비맞은 장닭같이 희멀건 눈자위를 굴리면서 시들어가는 소리를 했다.

《참, 둘 다 아들이였지.》

경철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우선 밸이 뒤집혀졌다.

《두눈으로 딱 봤다더니 그게 어느놈의 개눈깔이란말이요? 당장에 그만…》

오까다는 펄쩍 고개를 쳐들더니 능글능글하게 웃었다.

《아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잘못 볼수도 있지 않겠소. 나는 곧이 들리지 않아서 강경철씨가 그렇게 배은망덕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요, 허참, 틀림없이 봤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하기에 그만…》

《그럼 우리 집을 믿지 못해서 어느놈이 감시를 하고있었단말이요? 그 썩어빠진 개눈깔로!》

경철이가 쏘아붙이자 오까다는 익살을 부리면서 헤식은 웃음을 지었다.

《어찌다가 봤단말이지 감시는 무슨 감시, 그리고 너무 개눈깔 개눈깔 하지 않는게 좋겠소. 그 사람들도 다 비싼 밥을 먹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참, 령사관에 련락을…》

그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심드렁해져서 입을 쩝쩝 다시는 경철에게 그는 계속 조알대는것이였다.

《우리 둘 사이가 그럴 사이가 아니지 않소. 내가 단단히 보증하고있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해놓겠소. 나도 창피해서 제길할것… 어떻소? 입안이 깡깡 말라붙었는데?》

그는 비위좋게도 한잔 달라는것이였다.

단단히 벼르고 쫓아와서 큰소리를 질렀다가 본전을 찾기는 고사하고 말문이 막히여 얼굴이 수수떡빛이 된 오까다의 몰골은 말이 아니였다.

경철은 아버지가 《손자를 찾아놓고 가겠다. 왜놈으로 키웠다간 대가 끊어진다》고 하던 말을 엊저녁에도 들은적이 있어서 마음 한구석에는 그게 구실로 잡히지 않았는가 하는 두려움도 없잖아 있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얼토당토않는 일이였다. 더구나 오까다와 한바탕 쓸데없는 일로 다투고나니 어쩐지 손맥이 탁 풀리는것만 같았다.

《여보! 맥주 가져오우!》

경철은 이렇게 소리치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안해가 상을 들여놓자 그들은 병마개를 빼기가 바쁘게 연거퍼 몇잔씩 들었다.

오까다는 능청스럽게 한바탕 웃더니 또 무슨 잔꾀를 부리려고 경철이옆에 다가붙는것이였다.

《경철씨, 이자리에서 우리끼리 있으니말이지 아, 그

사람들이라고 흙파먹고 살겠소? 필경 배속이 출출한게지요. 멋대로 붙여대면 〈법〉이거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나 여기가 어디라구 멋도 모르고 야단이라니까.》

《아니 또 한뭉치 쥐여주란말이요?》

《그, 그런게 아니고, 참 괘씸하단말이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말야, 허… 오늘은 피차간에 이렇게 됐지만 량해하시오. 정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단단히 면박을 주겠소.》

《지금 아이들을 데려오겠소.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만나봐야지요.》

《왜?》

《그래야 두눈으로 확인할수 있지 않소!》

《허허, 친한 사이에 무슨 소리를… 오늘은 부친을 못뵙고 실례했다고 말씀드려주오.》

경철은 기왕 이야기가 나온김에 한마디 묻고싶었다.

《그래 아이들에게 일본교육을 그대로 시켜두면 장차 어떻게 되겠소?》

오까다는 별안간 불에 덴것처럼 당황해하였다.

《허 참, 그게 제일 난처하다니까. 그게 민단에서 제일 골치아픈 문제요. 총련에서는 그걸 자랑한다니까. 교육문제… 아, 난 이만하겠소. 얼근한데…》

그는 잔을 홀쩍 비웠다.

경철이는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권했지만 오까다는 슬슬 꼬리를 사리다가 돌아가버리고말았다.

4

경철은 어쩐지 외롭고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자기 가슴을 조이는것 같았다. 고향에 한번 다녀온 이후로 특히 요즈음에 더욱 그러했

다. 두다리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심정이였다. 그는 허전한 마음으로 담배연기가 자욱한 응접실에 홀로 앉아있었다.

《민단간부들중에서도 오까다가 령사관에 친분이 깊다는것은 짐작했지만 이건 직통끄나불이란말인가? 이번에 힘을 써줬기에 아버지를 남조선에서 초대해올수 있은것은 사실이지. 그렇다고 감시를 해? 설사 내 딸이 있어서 치마저고리를 입혔단들 어떻단말인가. 민단사람들중에서도 아이들을 조선학교에 보내고있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경철이가 이렇게 혼자말을 하고있을 때 마침 초인종이 《삐—》하고 울리였다.

경철은 어쩐지 가슴이 뜨끔하였다.

(누가 또 왔을가?… 그 누가 오건 무슨 말을 하건 무서울게 뭐란말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안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찾아온 손님과 몇마디 주고받는것 같더니 혼자 들어오는것이였다.

경철은 누가 왔는지 알아보려고 두귀를 강구었으나 분간할수 없었다.

이때 아버지가 인기척을 내면서 방에서 나왔다.

《어험!… 애야,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니?》

《좀전에 오까다상이 왔다갔습니다.》

아버지의 물음에 경철이가 대답하였다.

《그게 일본사람인가?》

《그저께 왔던 조선사람인데 민단에 있는 문동하씨입니다. 오늘은 좀 바쁜 일이 생겨서 못뵙고 간다면서…》

《그래…》

조선말을 알아들을수 없는 경철의 안해는 묻는 시아버님과 대답하는 남편의 얼굴을 말똥말똥 번갈아볼뿐이

였다.

《아버지, 저녁드십시오.》

경철은 강로인을 부엌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날따라 강로인은 가슴가득히 하고싶은 말이 쌓여있고 또 권상도를 만나고싶어 밥술을 드는둥마는둥 하였다.

《손님이 안왔다? 허참, 같이 저녁이나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손자들이 맛있게 밥먹는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강로인은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다.

《왔다갔다니까요. 좀더 드시지요.》

경철이가 권하였으나 강로인은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경철의 안해는 시아버님이 밥을 들다만것이 자기의 책임인것처럼 민망해하였다.

《아버님이 점심은 잘 자셨어요. 아까 그 담배를 사온뒤부터 좀 기색이 달라요. 글쎄 딸기를 한알도 안자시고 그대로 덮어놨다니까요. 즐기지 않으시는가 해서 가져오려고 했더니 그냥 놔두라고 하시잖겠어요… 참, 집에 잘 익은 수박이 하나 있어요.》

경철은 칼로 수박을 썩썩 썰기 시작하였다.

《삐—삐—》하고 초인종소리가 또 났다.

경철은 초인종이 울려도 일어서지 않았다. 그에게 일이 있는 사람은 전화로 련락하거나 장사관계는 의례히 공장에서 제기하기때문이다.

경철의 안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경철은 수박쟁반을 들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수박은 거기 놓고 누가 찾아왔는지 나가봐라.》

《예?》

《어떤 손님이 오셨는가 보고오란말이다.》

경철은 《손님?》하고 혼자소리로 뇌이며 현관으로 나오다가 안해와 마주쳤다.

《나가지 마세요. 아까 왔던 사람이 또 왔어요. 고향에서 오신 손님을 꼭 만나보고싶다지 않겠어요. 아버님이 오신줄 어떻게 알았을가요?》

안해는 입을 삐쭉거렸다.

《누군데?》

《총련사람이라니까요.》

《총련? 그럼 권상도씨가 아니요?》

《우리 아이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라고 몇번이나 끈덕지게 찾아오던 그 사람이예요.》

경철은 아버지가 기다리는 손님이란 권상도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그를 알게 되였을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그래 권씨가 아직 있소?》

《아마 돌아갔겠지요뭐. 당신이 시킨대로 아무도 안계신다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로 권씨를 기다릴가?》

경철의 안해는 휘둥그래진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는것이였다.

경철은 아버지에게 권상도씨가 두번이나 찾아온것을 돌려보내서 안되였다고 사과했다. 경철의 안해는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앉았다.

《눈을 띄워주는 사람과는 담을 쌓고 자식도 며느리도 애비를 속인단말이냐?》

《속이다니요?》

《나한테 진실을 보여주고 가르쳐준분이 바로 권상도씨와 그 집 딸 옥순이다. 가서 사과를 하고 와달라고 기별을 해야지.》

경철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았어요. 민단에서 알면

큰일납니다. 령사관에서 호출을 할텐데요.》

강로인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사람이 어찌 그렇게 옹졸하냐. 자기 집에 가자는걸 내가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30년만에 고향사람을 만나서 저 딸기를 나누어먹었다기로 그게 죄가 된단말이냐?》

부엌에서 수박을 먹던 일수와 길수도 어느새 들어와 둘러앉았다.

《네 사정도 짐작할만하다. 고향에서는 귀도 눈도 입도 다 막고 살아야 하는 천하 못된 세상이라 하지만 만리타국 일본땅에서까지 애비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일본에 이남학교가 수많이 있다더니 왜 이곳에는 없냐말이다?》

《실은 도꾜에 있고, 그리고 오사까에…》

《알았다… 총련에선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일본땅 여기저기 백오십여개의 학교를 운영하고있다더라.》

《아이쿠, 큰일날 소리를… 어데서 들었습니까.》

강로인은 오늘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였다. 문밖에서 옥순이를 만나던 일로부터 권상도의 안내를 받으며 조선학교를 돌아보고 들은바그대로 다 이야기하였다.

《경철아, 농사는 일년이고 교육은 백년이랬다. 옛사람도 자식을 위해서 몇번이나 이사를 했단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법이다.

우리 조선민족은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주석의 해빛아래 통일되고 번영할게다!》

경철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눈알을 두리번두리번 굴리였다.

《경철아, 필경 내가 손자를 찾아놓고 고향에 돌아가야 할가부다.》

《예?》

《손자들을 왜놈으로 만들어놓고서야 내가 어찌 눈을 감을수 있겠느냐. 내 대에 우리 집 손이 끊어지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럼 이 애비더러 왜말을 배우란말이냐!》

《그런게 아니라, 고향에 가면 조선말도 곧 배울게고…》

강로인은 아들이 대꾸하는 말이 은근히 아니꼬왔다. 강로인이 성이 나서 손자들과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가서 놀아라.》 하고 큰소리로 말했으나 그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힐끔힐끔 바라보고만 있을뿐이였다.

《그래, 살아생전에 이렇게 무릎을 마주하고도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데 내가 죽은뒤에 울어준들 들리겠느냐. 제사를 지내준들 내 마음이 풀리겠느냐. 나에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상면으로 되겠는데말이다.》

《그렇지만 여기 형편이…》

말을 잇지 못하는 경철의 눈시울이 젖어올랐다. 그의 안해와 아이들도 심각한 분위기를 감촉한듯 고개를 떨구었다.

강로인은 지그시 감았던 눈을 뜨고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경철아, 지금도 3.1운동때 네 할아버지가 세상떠난 일을 생각하면 이 목구멍에서 불덩이가 넘어온다. 장터에 모인 숱한 사람들이 〈조선독립 만세!〉를 불렀는데 네 할아버지도 왜놈기마병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 그만 목숨을 빼앗기고… 그후로 우리 집 살림도 망하지 않았느냐. 왜놈이라고 하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데 일제때 너희들을 끌려가게 하고 지금은 또 이 애들에게 그런 교육을…》

어금이를 꾹 깨물고있던 경철이가 뜨거운 침을 삼키였다.

《아버지, 사실은 고향에 한번 다녀올려고 친하게 지내

던 권상도씨하고 거래를 끊었고 아이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라는것도 거절해왔지요.》

《…》

《말씀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아버지 살아계실동안 고향에 갈려면 이대로…》

경철은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알만하다. 그러니 내 살아있을동안은 이 애들을 그대로 둔단말이지… 내가 산들 얼마나 살랴마는 손자들을 일본애로 만들어놓고 죽을 때에 어찌 눈을 감을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말하다가 강로인은 손자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창수가 살아있었으면…》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창수란 강로인의 큰손자인데 경철의 형인 경호의 아들이였다.

일제때 살길을 찾아 현해탄을 건너간 두 형제는 군수공장에서 겨우 일자리를 얻어 고역을 치뤄왔었다. 해방이 되여 경호는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경철은 일본땅에 남아있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 해의 여름이였다.

경호의 안해가 돌이 된 창수를 집에 떼여놓고 친정에 간 그날밤에 미국놈들의 폭격으로 그 마을이 불바다로 되여버렸다.

며느리 잃고 사돈네 가족들까지 잃은 슬픔으로 강로인 부부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런속에서도 돌잡이 창수를 기르는것이 늘그막 삶의 보람이였다. 귀여운 손자애를 여름에는 더울세라, 겨울에는 추울세라, 불면 날아갈가, 놓으면 깨여질가 고이고이 길렀더니 오동오동 잘 자라났다.

《경철아, 네 어미가 창수 그놈 크는 재미로 세상을 살았었다. 그놈이 어찌나 똑똑하고 령리한지 집안에 웃음

이 그칠날이 없었구나.

그래 일곱살이 되던 해 봄에 입학을 시켰지. 새 양복에다 운동화, 가방에다 모자도 사고…》

강로인은 억이 막혀오는지 말을 좀 끊었다가 다시 이였다.

《글쎄, 4월 초하루날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창수하고 우리 마을 아이들 다섯이 미국놈 자동차에 깔리여 죽지 않았느냐… 네 어미가 그뒤로 실성하더니 그 이듬해 봄에 〈미국놈아! 우리 창수를 내놔라!〉 이러면서 숨을 거두었다.》

경철이가 손등으로 코끝을 문대였다.

그러자 그의 안해도 덩달아서 눈굽을 찍는것이였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꼭 명심하겠습니다.》

강로인의 속눈섭에도 이슬이 맺혔다.

(경철이 너는 후날에 오늘 이야기를 안해와 자식들에게 말해주겠지… 그리고 나라가 통일됐을 때 고향사람들과 떳떳하게 만날수 있는 애들로 기르겠지…)

강로인은 이렇게 믿는것이였다.

《경철아, 내가 가서 사과도 하고 앞일을 부탁해야 도리인데 이곳 사정도 있다보니 권상도씨에게 좀 와달라고 련락해라. 그리고 난 래일 떠나겠다.》

《권씨집에는 지금 가겠습니다만 아직 려권기한이 남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허허, 나는 갈길이 바쁘다. 한시가 천금같다…》

《그래도 래일은 가실수 없다니까요.》

강로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얼굴 가득히 웃음을 피웠다.

《내 갈길이 바쁘다는건 여생이 얼마 안남았단말이다. 네 립장도 알겠다만 자, 마지막 부탁이다. 고향손님을

청해놓고 축배를 들자.》

경철이는 권상도를 데려오겠다고 자리를 일어서고 그의 안해는 상을 차리려 부엌으로 나갔다.

강로인은 일수와 길수의 손바닥을 나란히 펴놓고 조선말로 《하나, 둘, 셋》하면서 손가락을 오무렸다 폈다 하고있었다.

이튿날이였다. 강로인은 현관을 나오면서 권상도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마음을 놓고 가오다. 살면 얼마나 살겠소만 나의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싶소. 고향에 돌아가면 고향사람들에게 내가 일본에 와서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겠소. 민심이 천심이라고 고향사람들도 다시 4.19를 일으키고말거요… 두메산촌 오막살이집에도 따사로운 해살을 받고 조국통일을 맞이하도록 적으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값있는 여생이겠소.》

강로인의 말소리는 경철의 머리속에서 그칠줄 모르고 메아리치는것이였다.

옥순이는 아까부터 수양버들밑에서 기다리고있었다. 일수와 길수도 그의 곁에 서서 방글방글 웃고있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일수랑 길수하고 사이좋게 잘 공부하겠어요.》

옥순이는 강로인의 손에 매달리여 울먹울먹하였다.

《할아버지, 조국이 통일되는 날 고향에 가서 가야금을 타겠으니 꼭 들어주세요.》

《꼭 그렇게 하마.》

고개를 끄덕이는 강로인의 눈시울에는 물기가 어렸다.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환한 웃음이 가득가득 피여나는것이였다.

1979

구멍속의 해별

윤 진 상(남조선)

나는 문을 열었다.

문밖 거기에 잇대여서 골목은 누워있었다. 나는 몸을 한번 부르르 떨었다. 골목을 보는 순간이였다.

내게 그 골목은 저주의 그것이였다.

이제 나는 그 골목에서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렸다. 그러나 그건 허사였다.

안깐힘을 다해 시도를 했으나 어쩔수가 없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빠져든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건 마치 수렁속에 발목을 잡힌것과 같은 꼴이였다. 그래서 도저히 벗어날수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내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했다.

처음 그 골목에서 나를 망실하던 날이였다. 인간적인 의식과 내 모든 사고를 때묻은 옷가지처럼 그 골목안에다 벗어놓고나와야 했다. 그러나 홀가분한건 아니였다. 했으나 그때도 나는 그러한 리유에 대해 명료하게 알고 있지도 못했다.

나는 문을 나와 몸을 돌려세웠다. 원한에 찬 눈을 그 골목에다 꽂았다.

그러나 정작 그 골목은 꼼짝을 않고 거기에 있었다. 건물과 건물 틈사이에 끼여 어떻게 할수가 없는것이 또 그 골목이였다. 아니, 그건 처음부터 골목이 아니라 건물과 건물사이에서 어쩌다 생겨난 틈사이였던것이다.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그게 통로쯤이였다가 나중에야 골목

으로 둔갑을 하게 되였는데 말하자면 강아지새끼 한마리 정도가 쫄랑거리며 겨우 지나갈만한것을 사람이 거쳐다니다보니 그냥 골목이 되여버린셈이여서 두사람이 마주치는 때면 한사람은 건물의 벽을 붙들고 섰어야 했고 한사람은 어깨를 부딪치며 스쳐지나가야 하는 정도였던것이다. 그게 그 골목이였다. 인제 그 골목에는 늘 악성전염병만 같은 련탄가스가 가득하니 피여있었다. 내가 저주에 찬 눈을 흘기는것은 그런 련탄가스때문이였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그 골목을 한번 지나가면 만물상과 같은 별의별 인간들의 사는 꼴들이 속살을 허옇게 드러내놓고있어서 한눈에 일별할수가 있었다. 어느때없이 지독한 련탄냄새가 가득한 그 골목에 대해 드디여 나는 원한을 갖기 시작했다.

어느 비가 오는 날, 우리 가족은 그 골목으로 이사를 왔다. 내가 지독한 련탄냄새를 맡게 된것도 그렇게 이사를 오면서부터였다.

구질구질하게 내리는 비에 이사짐은 온통 젖어서 기진한 우리들을 압도하고들었다. 나중에는 돌아보기조차 귀찮을 지경이였다. 이사짐이래야 이불보퉁이, 련탄화독, 찌그러진 남비 그리고 몇개의 숟가락과 밥그릇이 전부였다. 그걸 리야까에 담아실은 우리 가족은 미는건지 따라잡는건지 허둥대며 그렇게 해서 이사라는걸 오게 되였는데 염병할, 궁짜낀 집구석에 날씨가 어떠냐고 할지는 몰라도 그 단박에 나는 그만 뭐가 되고 말았다. 나는 그런것을 전부 비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 골목에도 비는 내리고있었다. 그래선지 그 골목은 나를 곧바로 삼켜버리고 말았다.

어쩌면 골목이 아니였는지 몰랐다. 골목을 틈사이에다 끼운 야트막한 두채의 집은 창고마냥 길쭉하기만 했다. 사실이지 그건 인간창고라고 하는게 맞을것이였다. 스레

트로 지붕을 덮고 그냥 블로크만 쌓아 적당한곳에다 구멍을 내서 거기에다 맞춰 문짝들을 해달았으니 집은 집이였다. 그리하여 문짝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한집이였다. 부엌이고 방이고, 부엌이고 방이고, 부엌이고 방이고, 부엌이고 방이고, 부엌이고 부엌이고, 방이고, 부엌이… 그렇게 해서 스물여덟세대가 그 지붕밑에서 살았다. 사람들 말로 그 집을 하모니카집이라고 했다.

우리가 이사를 한데는 입구쪽에서 다섯번째였으니 음계로 치자면 《쏠》이였다. 다섯식구가 방 하나로 이사를 오고보니 짐이 방을 차지하고 말았다. 가족들은 비를 맞으며 골목에서 서성거려야 했다. 전세 한푼 없이 5만원 월세만으로 방을 얻을수 있는곳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감지덕지해서 우리 다섯식구는 이사짐을 풀었으나 그꼴이였다.

방에는 처음부터 창문이라곤 없었다. 퀴퀴한 냄새가 창문없는 탓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였다. 우글거리는 바퀴벌레와 쥐들의 소행이였다. 가난한데도 바퀴벌레와 쥐들은 먹고 살만한가보아서 나는 거기에다 람루한 희망을 걸었다.

대낮에도 방안은 굴안같았다. 새는 날도 지는 날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다.

부산 영도 남항동 매축지, 날이 개여도 한없이 썩는 냄새가 앞뒤없이 진동해서 흐물흐물 떠다니는곳, 안해가 누렇게 뜬 얼굴로 허우적거리며 그 골목으로 들어오던 날,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진저리나는 이놈의 생존때문에 일당 2천 8백원으로 안해가 남양어망조립부에서 북양명태잡이뜨랄선의 억센 그물에 걸려 파김치가 되여오던 날이였다.

안해는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마치 넋이 나간 사람꼴이였다. 아무 말이 없었다. 안해는 곧 울어버릴것만 같았

다. 그래서 안해는 입에다 식은 밥덩이만 그냥 떠다넣고 있었다. 그것이 울음을 참는것이란걸 알았던것은 나중이였다. 생활이 있어 녀자는 언제나 사실적이였다. 나는 그만 분통이 터졌다. 무엇이 안해를 저렇게 만든것일가. 내 무능탓이였는가, 소유하지 못한 어떤것때문이였는가.

하지만 나는 늘 하나만은 소유하고있다고 자부하지 않았는가. 죄짓지 않고 살겠다는 그 신조말이였다. 사람으로서 사는것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였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려 했다. 소유하지 못한자의 량심이나 선량함이란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아니였는가. 그건 위선이거나 자기 무능에 대한 가식이라는걸 먼저 눈치챘기때문이였을가. 하지만 죽으라고 일만 해가지고 잘산다는것은 말끔 거짓말이란것은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였는가.

바다에서 그물에 고기가 걸리지 않으면 륙지의 공장이 쉬게 되여 별 할일이 없는 그런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사흘째 쉬게 되였을 때였다. 바다에서 잡아 배로 실어온 쥐치를 포로 떠서 말리는 가공공장이였다. 일당 4천 8백원이 아까왔지만 그날 역시 일거리가 없어 쉬게 되였다.

그런줄 알면서도 나는 에멜무지로 공장엘 나갔다. 그러나 남의 속도 모르고 공장은 썰렁하니 어울리지 않게 한낮의 정적에만 잠겨있었다. 나는 전신에서 힘이 빠지고 말았다.

그때 내 눈이 붙든건 저쪽 사무실모퉁이 양지바른곳에 혼자 쭈그리고앉아 신문을 펼치고있는 사람이였다. 나는 반가왔다. 우선 사람을 만났다는것도 그렇지만 그가 들고있는 신문을 얻어보고싶은 마음에서였다.

나는 그리로 다가갔다. 김씨였다. 그는 오십중반의 나이로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였다. 그는 신문에다

그냥 눈을 박고있을뿐이였다. 가까이 가서야 나는 그가 얼굴이 굳어있다는것을 알았다.

내가 말했다.

《신문에 어디 살판난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 말에 대꾸를 않았다. 그냥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펼쳐들었던 신문을 쾅 내지르는것이였다. 소리까지 질렀다.

《범죄인, 살인자야!》

나는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사람을 받아죽이고 뺑소니를 치다니, 5백억원은 가진 자가 말야.》

《누굴 보고 하는 말입니까?》

《목격자와 경찰이 추적을 해서 잡았어. 량심도 없는 놈!》

《교통사고같은거야 매양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가용을 타고 거들먹거리는 이따위놈들, 그것도 손수 말야. 이런놈들은 언젠가는 사람을 받을수 있는 범죄가능자거든.》

《서툴러서 그렇단 말입니까?》

《아니지, 뺑소니를 쳤다 잡힌 이자가 내 사촌이야.》

《네?》

《기회만 주어지면 무슨짓인들 못할게 없을자들이야.》

나는 떨어진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무한한것이 담긴것 같은 지면에다 눈을 박았다.

김씨가 몸을 돌려서 나를 향해 말했다.

《건데, 거 지엔피라는게 뭐야?》

지면에다 눈을 박은채 대꾸했다.

《지엔피는 왜요?》

《그게 뭐 2천이 넘었다나? 난 뭔지 모르겠어.》

《모르거나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죠.》

《제길할. 뭐 그런 떡도 있었나. 그렇담 2천이란건 떡값이겠군.》

《그럴테죠.》

《무슨 소린가. 물가가 천둥같이 오른다는 소리야?》

《물가오르는게 무슨 걱정이요?》

《안야. 우리 집에 방세 또 올려달랄가봐 그래.》

두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지고 말았다. 담배연기를 어깨너머로 풀풀 날리면서 젊은 기사가 나타났기때문이였다. 기사는 문을 들어오면서 벌써 시큰둥한 소리로 아무나 들으란듯이 떠들어댔다.

《제미. 별놈의 꼴이야. 하다하다 인제 웬놈의 고기까지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아는 모양이야.》

김씨가 그 말을 받았다.

《왜 그래? 고기하고 사돈 맺으려나?》

《아니, 고기가 사람밥줄 끊으려는 세상이니 말 안하게 됐소.》

《어쩌다 사람신세가 그렇게 되였나. 아마 사람나름일테지. 이 세상에는 잘난놈들 세상두 있다구.》

《모르겠수다. 요새는 어쨌든 숨 안쉬니까 죽습디다.》

《잘난놈들이야 안그럴테지.》

《잘난놈들이라구 별수 있을라구요. 하나 목숨 죽으면 끝장일텐데.》

《아닌 모양이더라구. 잘난놈은 제 손으로 세상을 만들어서 살고 못난놈은 제몫도 빼앗기고 사는 세상이거든.》

《하긴 그럴것도 없지요. 원쑤야 처음부터 그놈의 고향밑일테니까요.》

나는 그들의 말을 그냥 듣고있었다. 들고있는 신문에서 글자들이 와르르 쏟아져서 땅바닥으로 흘러내리고 말았다.

하모니카집에서 조금씩 익숙해져갈 즈음이였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차츰 눈에 들어왔다.

문 하나를 열면 맞보이는 건너집은 오징어잡이 어부였고 옆집은 채소도가의 리야까군, 모퉁이집은 마른오징어 한마리에 소주 두병 보따리에 사들고 자갈치배머리로 나가는 애 넷을 데리고사는 과수댁, 공동변소옆에는 내외모두 폐결핵환자로 남자는 실업자이고 녀자만 쥐치가공공장에 다녀서 애 셋을 학교 보내고사는 형편이고 뒤집은 뱅뱅이선생으로 비밀땐스 교습소이고…

참으로 별의별 사람들이였다. 내가 발견한것은 그래도 거기가 참 좋은곳이라는것이였다. 비록 그렇게들 살더라도 가난할수 있는 자유만은 아무도 억압하거나 박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였다. 그건 고스란히 그들만의 옹골진 몫이였다. 가난하지만 살아갈수 있는곳이였고 불평등하지만 숨쉴수 있는곳이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은 굴안같았다. 그래서 대낮인데도 불을 켰다. 전력공사에서 안다면 감사해할지 모를 일이였다. 애들은 가방만 챙겨서 학교에 갔고 안해는 공장엘 가고 없었다.

불이 들어온 방안에 노트가 하나 뒹굴고있었다. 노트를 집어서 펼쳤다. 깨알같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는 가능하면 공장에서 밤일을 하고저하는 눈치였다. 우리들 방이 너무 비좁기때문이다. 엄마가 밤일을 나가면 우리들은 마음놓고 숨을 내뿜을수가 있었고 서로 돌아눕거나 몸을 뒤척일수가 있다. 꽉 끼인 몸으로 꼼짝을 못한채 자고난 아침이면 옆구리가 결린다. 우리가 옆으로 눕지 못하는것은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해서

이다. 자는 사람의 얼굴에다 뜨거운 숨을 내뿜는것은 참아도 짜증나는 일이란것을 모르지 않으니 말이다.

—나는 오늘 하느님한테 물어보았다.

세상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 나이로 나같은 녀자애가 할수 있는 일은 없을가요.

—이 가난은 누가 우리에게 보낸 전령일가. 우린 너무 가난하다. 가난은 가식도 하지 않거니와 허세도 부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가난하기때문에 점심도시락을 가져갈수가 없어 혼자 물만 먹었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 그래서 눈물이 났다.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애의 일기장이였다.

나는 그만 덮어버리고 말았다. 책상이 없어 방바닥에 뒹굴다 눈에 띄여보게 되였던것이다. 나는 화가 솟구쳤다. 속에서 뜨거운것이 부글거렸고 머리에서 피가 역류를 하는것 같았다. 왜 그런지 몰랐다. 내가 잘한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다.

혼자서 치미는 화를 삭이려고 애를 쓰고있는데 공장에서 전갈이 왔다.

고기가 실려왔다는것이였다.

몸을 털고 일어나 공장으로 갔다.

고기를 실은 화물자동차는 한두대가 아니였다. 미처 공장마당으로 들어가지 못한 화물자동차들이 한길에서부터 꼬리를 물고 세워져있었다. 며칠이나 일거리가 없어 사람을 굶길 작정인가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들다니, 정신을 못차릴것 같았다. 고기가 사람 엿먹이는 짓이였다.

마당을 들어서니 신발이 달린 커다란 고무바지에 몸통까지 집어넣은 김씨가 화물자동차우에 올라가 벌써 땀을 뻘뻘 흘리며 삽으로 고기를 퍼내리고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뒤따라서 들어오던 사람이 김씨를 보고 하는 말이

였다.

《모습이 좀 괜찮수다.》

《괜찮은게 뭐야. 본래 죽은 고기가 산놈한테 악물한다고 이게 다 그꼴이란 말야.》

다들 바쁘게 옷을 갈아입느라고 부산스러웠다.

나는 그런 고기더미에 고개를 처박은것 같은 기분이였다. 비린내가 퀴퀴한 악취를 동반하고 달려들었다. 그래서 반쯤 제정신이 아니였다.

공장에는 그만한 고기를 저장할 시설이 없었다. 실어다놓은 물량만으로도 밤낮으로 며칠은 눈코뜰새가 없을거라고 생각되였다. 인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일에 뛰여들수밖에 없었다. 마당에서 퍼내려놓은 고기들을 다시 상자에 담아 다시 공장안으로 옮겨야 했다. 공장안은 이미 왁자지껄했다. 녀자들이 일손을 서두르고있었다. 녀자들은 안으로 운반되여온 고기상자를 말아 배를 가르고 내장을 분리한 다음 껍질을 벗겨서 어두를 떼여내는 작업을 했다. 도급액은 한상자에 3백원이였다. 손이 퉁퉁 부르트도록 해야 하루 다섯상자가 아니면 여섯상자였다.

눈을 떴다. 시간을 보니 겨우 두시간을 자고난 셈이였다.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느릿느릿 움직이고있었다.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은 마치 형체없는 유령만 같았다.

몸을 일으키니 전신이 눅진했다. 물이 질퍽거리는 바닥에 그냥 뒹굴어져 잤기때문이였다. 머리속에서는 안개같은것이 흐물거렸다. 몸의 움직임이 의식을 따라주지 않았다. 안깐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세웠다. 아직 새벽은 되지 않았다.

알몸의 전구가 천정에서 안개속의 등불처럼 희붐한 빛을 발하고있었다. 윙윙거리고 돌아가는 기계소리조차 무딘 의식에서는 둔탁하고 가득하기만 했다. 며칠 낮, 그

리고 밤을 계속 뜬눈으로 일에만 시달리다보니 내자신이 해체돼버린 기분이였다. 모든것이 그냥 둔감할뿐이였다.

나는 피로에 의식을 끌어올리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 내 경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저쪽 끄트머리에는 언제나 이같이 이겨낼수 없는 피로가 늪처럼 도사리고있었다. 그 늪을 건너서 거기에 생활이 있었다. 아니 그건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였을뿐이였다. 나는 그 늪을 건느기 위해 가끔씩 모험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건 번번히 허사였다. 그런 다음에 남는건 의식의 황폐화와 넉넉한 좌절뿐이였다.

나는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던 거기서 그냥 걸어나가버리고싶었다.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질 못했다. 그렇게 하도록 나를 내버려두거나 방관으로 일관하지 못하게 한것은 내자신이 아니였다. 내자신이 아닌 그 무엇이였다. 그건 현실이였는지 몰랐다.

그제서야 나는 목매인 짐승보다 단단하게 이 땅의 내 생존이란것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더 감지하게 되였다.

윙윙거리는 기계소리에 녀자들의 와자지껄이는 소리가 어우러져서 돌아가고있었다. 나는 그런것들이 차라리 이 새벽 깊이 빠져든 잠속의 꿈이였으면 했다. 꿈이기만 하다면 생활은 누리지 못한채 생존에만 매달려서 아득바득하는 나를 벗어팽개치고싶었으니 말이였다. 오한이 전신을 엄습하고들었다.

《왜들 이래요. 일들을 얼른얼른 쳐내지를 못하다니. 능률이 안올라!》

《자, 모두 꾸물대지만 말고 빨리빨리 해요!》

공장안을 향해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은 공장장이였다.

그 말이 신호가 되였다.

《오늘은 그만 하루 쉽시다.》
저 안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공장장이 발끈해서 고함을 질렀다.
《뭐요? 쉬여요? 언젠 일거리없어 밥굶는다고 아우성이던 그 입으로 하는 소리요, 뭐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소. 며칠째 밤낮없이 한다는건 무리지 않소. 사람을 잡아도 유만부동이지.》
《그렇소. 교대라도 좀 합시다.》
여기저기에서 한꺼번에 불평들이 터져나왔다.
《쉬는것만 생각하고 고기썩는 생각은 않을거요? 사흘만 더하면 하고싶어도 일이 없어요. 그때 가서 푹 쉬시오.》
《그때 쉬다니요? 사람을 다 잡아놓고 말이요.》
《누가 사람을 잡아? 다 밥먹기 위해 하는건데. 당신 지금 공일하는거요?》
《돈이야 주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소.》
공장장이 노려보았다. 방금 그 말을 한 사람을 찾겠다는 뜻이였다. 공장장이 저안으로 들어갔다. 모두 시선이 그리로 몰렸다. 공장장이 다가간 거기에 몇사람이 일을 하고있었다. 그중의 한사람이 서서 다가오는 공장장을 향해 멍청하니 서있었다.
《당신이였지? 그 말 한 사람이.》
공장장은 금방 따귀라도 올릴듯이 숨을 씨근거리며 한사람을 노려보고 소리쳤다. 그 사람은 뒤늦게야 후회하는 기색이였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전까지 터져나왔던 불평들도 조용해졌다. 윙윙거리는 기계소리만 요란할뿐이였다.
《당신, 이리 나와.》
그렇게 소리치는것도 공장장이였다. 한사람이 끌려나왔다.

《당신, 나가! 당신같은 사람은 필요없어!》

공장장은 끌고나왔던 사람의 등을 떠밀어서 밖으로 내보냈다. 그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푹 떨군채 걸어나갔다. 그 일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다 비수같은것을 남기는것이였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서 말을 하지 않았다. 나역시 마찬가지였다. 뭔가를 두려워하고있었다.

두려운것을 향해 나서는 용기가 없었다. 아무도 용기를 갖고있질 않았다. 용기가 있었지만 거치장스러워 집에다 두고나왔는지 모를 일이였다. 아니, 갖고있는 용기를 남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그들은 너무 지쳐있었던것이다.

어느새 새벽이 되였다. 새벽이 되자 뜨거운 국물에 국수가 한그릇씩 참으로 나왔다. 참은 역시 좋았다. 그걸 먹는동안의 시간이 휴식이였기때문이였다. 경영자의 눈도 감독자의 눈도 그 시간에는 눈을 부릅뜨고있질 않았다.

국수그릇을 받아드는 사람들은 금시 눈빛이 살아났다.

나도 국수그릇을 받아들었다. 국수그릇을 받아드는 순간 피로가 잊혀졌다.

사람은 아마 먹어야 존재할수 있는 동물인가보았다. 국수그릇에다 얼굴을 갖다대고 한번 후루룩 들이마셨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아늑한 쾌감이 금시 전신을 뜨겁게 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공장철문밖에서 지르는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

《김추만씨! 김추만씨 없소?》

문을 쾅쾅 두들겼다. 그건 나를 부르는 소리였다. 문가까이에 섰던 사람이 대신 대꾸를 했다.

《왜 그래요?》

《아니, 김추만씨 있어요? 당신집에 지금 련탄가스로 사람이 다 죽었소.》

《뭐요?》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은 대꾸했던 쪽이였고 나는 들고 있던 국수그릇을 땅바닥에 놓아버렸다. 그뿐이 아니였다. 한입 빨아서 물었던 국수가 땅바닥으로 주르륵 흘러내리고 말았다.

그런 다음 나는 정신이 없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어떻게 달려왔는지 몰랐다. 안해까지 공장에서 밤일을 했는데 새벽에야 일을 끝내고 돌아오니 그 모양이였다고 했다.

넋이 나가 흐느적거리는 안해를 밀치고 애 셋을 끌어내 팽개치듯 땅바닥에 뉘였을 때 이웃사람들이 달려나왔다.

나는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중독상태가 급박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것 같았다. 큰애부터 둘쳐업었다. 그러자 안해가 둘쳐업은 내앞을 가로막았다.

《왜 이래? 빨리 병원엘…》

하는데 안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병원에 가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야?》

《돈이 없어요.》

애를 둘쳐업은채 나는 그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돈은 왜?》

나는 제정신이 아니였다. 고함만 버럭 질렀다.

《병원엔 사람이 가는게 아니구요 돈이 가는거예요.》

그때서야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 그렇구나. 우린 돈이 아니고 사람이였구나. 하지만 나는 반나마 미쳐있었다.

《뭐야? 돈이 사람을 어쩌구 어째?》

그와 동시에였다. 나는 앵한 안해의 머리채를 나꿔채서는 뺨을 후려쳤다.

안해는 그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다.

《왜들 이래요. 돈은 없어도 사람은 살수 있어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라구요.》

그건 이웃집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였다. 땅바닥에 뉜 애들의 입에다 사이다를 부어넣는다, 동치미국물을 떠넣는다, 전신을 주무른다, 법석을 떨었다.

나는 휘청거리며 걸었다. 집을 향해서였다.

오늘은 온종일 파김치가 되였다. 새벽에는 련탄가스때문에 정신없이 허둥대였는데 오후에는 공장에서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사고는 끔찍한것이였다.

가공중이던 생선은 더미로 쌓여 그냥 방치되였고 공장은 그것으로 당분간 문을 닫고 말았다. 아무도 일할 기분이 아니였던것이다.

사고는 일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빚어졌던것이다. 아니, 무리한 작업진행이 그같은 화를 불러오게 했던것이다.

마무리과정을 마친 생선이 콘베아를 타고 와서 돌아가는 로라속으로 들어가게 되여있었다. 그사이로 생선이 들어가면 칼날이 스치고 돌아가며 생선의 어육을 포로 뜨게 되였다. 그런데 로라사이에 생선이 물려 제대로 들어가질 않으면 사람이 손으로 꼬챙이질을 해야 했다. 지키고 서서 꼬챙이질을 하던 사람이 로라에 팔이 감겨 들어간것이였다. 어찌보면 그같은 작업이란 벌써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야 했는지 모를 일이였다. 어찌면 지금까지 그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게 오히려 이상하다면 이상할 노릇이였다.

그랬는데 사고는 결국 그날 일어나고 말았다. 면장갑을 낀 손으로 꼬챙이를 잡고 생선을 밀어넣다 면장갑의 실

밥이 먼저 걸렸는가 했는데 순식간에 손가락이 딸려들어갔고 손이 끌려들어갔던것이다. 비명은 공장안을 찢었다. 비명을 지르는사이 기계는 그냥 돌아서 어느새 손목을 넘어 팔이 들어가고 말았다. 비명을 지르면서 녀자는 기절을 했고 피투성이가 된것은 오히려 기계였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난것이 아니였다. 기계를 세웠으나 팔을 자를수가 없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공장에 련락, 기술자들이 달려와 기계를 분해해서야 사람을 끌어낼수가 있었다. 그게 두시간이 지난 뒤였다.

공장안은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

꺼내놓고보니 손은 물론 팔까지 뼈가 으깨져서 형체를 알아볼수가 없었다. 반죽음이 된 녀자가 병원에 실려간 다음에야 모두 구토증세를 일으켰던것이다. 아무도 일할 기분이 아니였다.

내가 그림자처럼 구겨져서 돌아오자 오늘만은 공장을 쉬면서 애들을 돌보고있던 안해가 전하는 말이였다.

《여보,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

《우린 또 이사를 가야겠어요.》

《이사라니? 무슨 소리야.》

《모두가 우리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안해는 아까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전했다. 야단이 났었다는것이였다. 안해의 말은 이랬다.

련탄가스사고의 소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옆구리에 무슨 대장을 낀 동사무소의 젊은 직원이 나와 원주필잡은 손을 쳐들어서 주인녀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대판 싸움이 벌어졌더라는것이다. 싸움판을 에워싼 사람들도 대부분 하모니카집 창문없는 방에 사는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두사람 말고는 아무도 한마디 말이라곤 하지 않았다. 모두 끼여들 계제가 아니여서가 아니였다. 끼여들지

않는것이 무슨 례의나 미덕이여서는 더욱 아니였다. 이편이나 저편 어느쪽도 편역을 들어서 말을 할수 없는 자기네들 처지때문이였다. 억울한것이야 자기네들 사정이지만 굳이 무엇을 어떻게 들어서 누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할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는것을 그들은 누구도 모르지 않았던것이다. 그래서 서러운것이야 없지 않지만, 억울한거야 이루 말로 다할수가 없지만 자기네가 그렇게 사는것은 자기네들 팔자소관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입을 그렇게 함봉하게 했던것이다.

《이따위집이 어딨어요? 방에 왜 창문이 없는거요? 사람사는 방에 말이요?》

《뭐 너무 모르시누만. 지금 과부집에 가서 바깥주인 찾자는거요. 무슨 소리요?》

《아니, 사람이 사는 방이면 창문은 있어야 될게 아니오?》

《여보시오. 창문갖추고 오양바르게 살 사람이 따로 있지. 뭘 보고 그런 말을 해요?》

《만약 련탄가스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하는 날이면 어떻게 되는줄 알기나 하느냐 말이요?》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럼 누가 안단 말이요? 이건 처음부터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창고였지 않소. 사람이 이따위로 사는건 불법이란 말이요!》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방이라도 빌려주는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안돼요. 여긴 사람이 살수 없어요. 모두 당장 내보내시오.》

《이사람들을 어디루 말이요?》

《어디로 보내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맨처음 여기로 오기전의 그리로 돌려보내면 될게 아니요.》

《거기가 어디던가요?》

《난 모르오. 우린 법대로 조처하겠어요.》

그런 다음 동사무소직원은 힁하니 가버렸다.

그같은 일의 발단은 어쨌든 우리 집때문이였다. 주인녀자는 우리 문을 들여다보고 소리쳤다.

《아니 없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썽은 안생겨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애들 단속을 어찌했다가 가스중독은 되여이 야단이요?》

《에그, 그러게 말예요. 한 집때문에 다들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요. 우린 이사라곤 갈데가 없어요. 전세금이 없이 누가 방을 주나. 손에 푼전을 쥐기나 했나. 쯧쯧.》

《누가 아니래요. 우린 여기가 지구의 마지막이라니까요.》

에워싼 이웃집 녀자들까지 이제 한마디씩 하고는 혀를 찼다. 아까 아침에는 모두 그렇게들 고맙기만 하던 이웃이였는데 말이였다. 인제 딴판이였다. 안해는 그러면서 울상을 지었다.

나는 끌어온 리야까에다 짐들을 실었다. 무거운 몸을 느리게 움직여서 안해도 함께 짐을 거들었다. 우리 가족은 하모니카집의 창문없는 방에서 더이상 견딜수가 없었다. 가스중독이 무서워서가 아니였다. 주인집 녀자의 성화와 이웃집들의 원망때문이였다. 자기들의 잘못때문에 어른들이 당하는 고충이나 수모를 보지 못해 기를 펴지 못하는 애들을 보아서도 이사는 가야 할 형편이였다.

그제는 경찰에서 다녀가자 구청에서 또 무슨 조사를 한다고 들추다 돌아간뒤였다. 주인녀자는 이제 우리 집에 대해 로골적으로 불평을 쏟아놓았다. 이웃집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린 지금까지 살았어도 아무 일 없었는데 이게 뭐예요. 창문을 내라고 그러지만 어디 창문을 낼 재간이 있나요. 댁에서나 창문있는데루 얼른 옮겨가세요.》

주인녀자가 찾아와서 그러고 가던 날 밤이였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였다.

《여보, 어떡하죠?》

안해가 한숨에 짓눌린 말을 늘어놓았다.

《어떻게 될거야. 래일이라도 어디로 옮기자구.》

《전세금도 없이 우리에게 방을 줄 사람이 있겠어요?》

《돈?》

《네.》

《찾아보지 뭐.》

안해는 더는 말이 없었다.

나는 안해가 혹시 눈물이라도 흘리지 않나 해서 어둠속으로 손을 뻗어서 안해의 얼굴을 더듬어보았다. 나는 그만 가슴이 뭉클했다. 아니 철렁하면서 소리가 나게 뛰였다. 내 예상이 맞았던것이다. 안해는 소리를 죽인채 울고있었다. 안해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있었다. 나는 손으로 안해의 눈물을 쓸어주었다. 그러자 안해는 눈물을 삼키고는 다시 조용하게 말을 했다.

《여보, 당신 제발 우리 형편 이렇다고 용기잃지 마세요. 우린 인제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가진 그 용기밖에는요. 당신 몸만 건강하면 여태 우린 가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안해는 울음에 잠겨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안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나역시 말이 나오질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때문이 아니였다. 울고있었기때문이였다.

나는 어둠속을 응시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였다. 그리고 이를 꽉 악물었다. 그렇다. 나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을것이다. 가난에도 굴하지 않을것이다. 인간은 오직 살아가는것만이 위대하지 않는가.

나는 또 지쳐서도 되지 않는다고 만용에 가까울만큼 자신을 채찍질했던것이다. 그런 다음날 이사를 감행하게 되였다.

리야까에 짐들을 챙겨실은후 줄을 걸어서 묶었다. 그리고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다. 나는 리야까의 앞쪽으로 가서 두손바닥에 침을 한번씩 찍 뱉었다. 힘껏 리야까의 채를 잡아끌었다. 안해는 뒤에서 밀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짐뭉치들도 리야까를 마구 눌러 채를 끄는 나를 비틀거리게 했고 얼마 안있어 이마를 땀으로 범벅이 되게 했다.

나는 연방 두리번거려서 복덕방을 찾았다. 눈에 보이는 복덕방마다 리야까를 세우고 찾아들었다. 리야까를 세우고 땀을 훔치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복덕방에서는 번번히 고개를 흔들었다.

《어찌된 노릇인지는 몰라도 방을 구해놓고 이사짐을 실어올 일이지 짐부터 싣고 와서 방을 구하겠다니. 딱두하셔.》

세번째 복덕방의 문을 닫고 돌아서는 내 뒤통수에 대고 하던 남자의 말이였다. 이제는 복덕방도 보이지 않았다. 입으로 단내를 내뿜으면서 나는 뒤에서 밀고있는 안해에게 물었다.

《동사무소의 직원이 뭐랬다고 했지?》

《무엇을요.》

《아니, 거 하모니카집에서 나가면 갈데가 없는 사람들말야. 어디로 보내면 된다고 했잖아.》

《아, 거기에 오기전의 그곳으로 보내라고요.》

《그래…? 그럼, 우린 거기에 이사가기전에 살았던곳이 어디였지?》

《봉래동… 아니, 신선동, 거기 말고 대교동…》
《그앞에 또 있었잖아.》
《그래요. 반송동… 또 구포에…》
《그렇다면 우린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말야.》
《네?》
나는 기진해서 쓰러질것 같았다. 안해도 뒤에서 비틀거리는가보았다. 나는 그만 앞이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채 나는 안해 몰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울고있었다.

지금도 여기는 5월이다

강 현 만

누구에게나 물어도 5월은
향기넘치는 꽃계절이라 하리
허나 여기선 아니란다
남녘의 5월은 피의 계절이란다

아, 피의 5월—
그날엔
자연의 봄을 맞아
산과 들, 공원에 피여나던 장미꽃들도
민주를 갈구하며
통일을 부르며
결사의 마당에 쓰러진 그네들의 붉은 피로
더더욱 붉게 탔더라

피의 5월—
그날엔
무르녹는 인생의 봄을 맞아
한창 사랑을 속삭여야 할 그 목소리들이
《미군 축출!》
《매국정권 타도!》를 목터지게 부르짖으며

항쟁의 거리에 끓는 피 쏟아
온 남녘의 하늘땅을 붉게 물들였더라

누구에게나 물어도 지금은
흰눈덮인 겨울이라 한다
허나 여기선 아니란다
지금도 여기 남녘은 5월— 피의 5월이란다

보라, 저기를
미국을 화형하는 세찬 불길로
온 하늘을 붉게 태우며
가슴속에 터져오르는 민족의 울분을 터치며
포도우의 흰눈을
장미빛 붉은피로 물들이는 저 모습들을

보라 또 저기를
이 시각도
철쇄에 묶여 질식당한 민주를 부르며
외세로 하여 잃은 통일을 찾으려
결사를 각오하고 노도치는 저 구국대오는
그날에
큰 원한 품고 아직도 잠못드는
무등산의 그 령혼들이 아닌가

오, 그래서
정녕 여기선 지금도 5월이 계속된다

미제를 몰아내고
민주를 성취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알아라 그날이 오기전에는
광주의 5월은 가지 않으리라

1990

오 늘

강 위 조(재미동포)

통일의 소식이
올것 같은 오늘
그러한 기다림에
기쁜 오늘일것 같으면서
그러한 그리움에 서글픈 오늘

통일될 조국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기쁜 오늘인것 같으면서
슬픈 오늘이

왔다가 갔다가
마흔해가 넘었다
나의 머리엔 흰이슬이 덮였고
흘러가는 세월은
나의 얼굴에 고랑줄을 그었다

오늘!
통일의 소식이 올 오늘
오늘을 잡아두자

세월은 멈추어라
통일의 소식이 오기전에
오늘을 보내지 말자!

길

고　　은(남조선)

길을 보면
나에게 부랴부랴 갈데가 있다
신영리나 내리마을을 보면
나에게 저 마을을 지나서
갈데가 있다
그렇도다 마정리 에움길 하나에도
장호원 이백리길도
나에게 그냥 잠들지 못하게 한다
길을 보면
나는 불가피하게 힘이 솟는다
나는 가야 한다
나는 가야 한다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말아라
저 끝에서 길이 나라가 된다
그 나라에 가야 한다
한평생의 추가령지구대
그 험한 길 오가는 겨레속에
내가 살아있다
남북삼천리 모든 길에
내가 살아있다
나는 가야 한다

기필코 하나인 나라에
이르는 길이 있다

아직도 숨을 쉰다면

고　　원(재미동포)

외로운것이 아니다
인기척 없이
총칼 총총
총의 밀림에 갇혀서
아직도 숨을 쉰다면
외로운것은 아니다

시간마저 죽어가는 잠시
별이 총총 애타는 하늘은
맘속에서만 밝은 자리
아직도 숨을 쉰다면 외롭지 않다
치가 떨려 치욕을 깨물면서
어둠의 무게를 등으로 떠받치는
가쁜 호흡이 고독은 아니다

그러면 또 기다림일가
남쪽 혼을 붙들고
밀림 서울에 새벽을 기다림일가
저 짐승새끼 어깨에 박힌
저것을 잡아라
높은 빛을 가릴만큼 크게
화약으로 만든 미친 별들—
저 별을 잡아라

1980

자 유 민 주 주 의

김 규 동(남조선)

그냥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를 머리에 하나 더 얹었으니
얄궂기는 해도 괜찮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떠드는 사람들은
민중의 지지를 못받는
케케묵은 지도자들인게 탈이다
그들은
력대 독재정권밑에서
민중이야 죽든살든
갖은 악행 다 저지르며
자신의 부귀영화 누린 사람들이다
악명높은 그때의 명사들이
오늘
저들의 얄궂은 프랑카드 쳐들고 나섰다
돈으로 사들인 수천만개의 피켓 든 손이
거리를 지난다
외세와 핵폭탄이 지나가고
백골단도 함께 지나간다
백년 하루같이 반공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숱한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후예들도 지나간다

도랑물처럼 흘러가는
이 낭비를 보고
사람들은 모두 굿굿 혀를 찼다
새 력사의 수레바퀴는
거역 못할 큰 힘 모아
남북삼천리 꿰뚫고가는데

1989

조 국

김 남 주(남조선)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이
남의 나라 군대의 발아래 있다면
어머니 차라리 나는 그밑에 깔려
밟힐수록 팔팔하게 돋아난 청맥이고싶어요

날벼락 대포알에도 그 모가지 꺾이지 않아
남북으로 휘파람 날리는 피리이고싶어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남의 나라 병사의 발아래 있다면
차라리 나는 그밑에 밟혀
석삼년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 풀잎이고싶어요
그 잎새 달빛머금은 이슬에 젖어
목마른 고개넘고 오시는 님의 입술 적시고싶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이
남의 나라 돈의 무게에 있다면 그밑에 깔려
밤송이로까지는 피묻은 처녀의 골짜기라면
그 아픔에 지는 어두운 하늘의 비명이라면
참말 이제 마을 떠난
내 누이의 식칼이고싶어요 등에 꽂혀

놈들의 가슴에 꽂혀 피흘리는
옛 사랑의 무기 죽창이고싶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이
흰둥이 군대의 발아래 있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깜둥이 병사의 발아래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이
딸라에 눌리는 중압아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불러야 할 자유의 노래
놈들의 총검아래 숨지는 그림자라면
어머니 참말 이제 나는
청맥이고싶어요 풀이고싶어요

바람보다 먼저 눕기도 하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기도 하는
어머니 참말 이제 참말 이제 나는
식칼이고싶어요 죽창이고싶어요

총알보다 대포알보다 먼저 꺾이지만
그들보다 먼저 꽂히기도 하는

천 둥 소 리

김 남 주(남조선)

옛사람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데
입이 여럿이면 무쇠라도 녹인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데

이를테면 갑오년에는
안으로는 량반과 부호들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흉포한 외적의 무리를 무찔러
나라를 반석우에 올려놓자고
이 고을 저 고을 삼천리 방방골골이 한데 합세하여
파죽지세로 터지는 우뢰소리가 있었다는데

이를테면 기미년 삼월에는
밖으로는 제국주의 일본놈강도들을 몰아내고
안으로는 강도들과 한통속인 친일매국노들을 쫓아내여
민중을 나라안팎의 적으로부터 해방시키자고
이 고을 저 고을 삼천리금수강산이 한데 합세하여
파죽지세로 터지는 천둥소리가 있었다는데

어디 가면 오늘
그런 소리 우뢰소리 들을수 있을가
어디 가면 오늘

그런 소리 천둥소리 들을수 있을가

저기 가면 들을수 있을가
저기 저 당당한 의사당에 가면
저기 가면 들을수 있을가
저기 저 높다란 집 례배당에 가면
저기 가면 들을수 있을가
저기 저 커다란 집 신문사에 가면

나는 듣지 못했다 어디 가서도
곧은 소리 바른 소리로 갈라지는 대쪽소리를
나는 듣지 못했다 어디 가서도
천방져 지방져 열에 열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으르릉 쾅쾅 쏟아지는 폭포소리를
나는 듣지 못했다 어디 가서도
번개불을 신호탄으로 하여 하늘높이에서
못된놈 머리우에 떨어지는 천둥소리를

민의의 전당이 어쩌고저쩌고하는
의사당에 가서도 나는 듣지 못했다
정의의 성당이 어쩌고저쩌고하는
례배당에 가서도 나는 듣지 못했다
사회의 목탁 어쩌고저쩌고하는
신문사에 가서도 나는 듣지 못했다

나는 들었다 오늘 논뚝길 밭뚝길에서

한입으로 터지는 천만 농민들의 분통소리를
나는 들었다 오늘 공장에서 거리에서
피묻은 주먹과 함께 치솟는 천만 로동자의 절규를
나는 들었다 오늘 전민련광장에서
천만 농민의 분통이 천만 로동자의 절규에 합세하여
으르릉 쾅쾅 터지는 천둥소리 우뢰소리를

아 그 소리가 그 소리였다
옛사람의 말씀에
입이 여럿이면 무쇠라도 녹인다는
바로 그 소리였다 바로 그 소리였다
그 소리 천만 농민들의 소리
그 소리 천만 로동자의 소리
한데 합세하여 치솟는 민족의 소리 민중의 소리
아 그 소리가 그 소리였다

못된놈 머리에서 터지는 벼락소리였다
배부른놈 배때기에서 터지는 천둥소리였다
압제와 착취의 발등에서 갈라지는 폭포소리였다
그 소리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 정상모리배들의 모가지를 베고
그 소리 밖으로는
양키제국주의 쪽발이제국주의를 몰아내여
안으로는 로동자 농민을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라함이였다
밖으로는 우리 나라를 이 민족의 압박에서 해방시키
　고저 함이였다

아 그 소리가 그 소리였다
량반들과 부호 밑에서 고통받은 민중들과
고급관리들앞에서 기를 펴지 못하는 말단관리들은
우리와 함께 로동자 농민과 함께
원한이 깊은자라
주저치 말고 일어나라 함이였다

락 엽

김 상 오

남녘의 산야를 물들이며
락엽이 진다

무성한 여름의
푸른 불길속에
생명을 불사르고

열매를 못맺은채
스스로 떨어져
대지로 돌아가는 우수

먼 하늘을 이고
이제 벌거벗은 나무들이
삭풍에 울 때

조용히 뿌리에 스며
다시 올 3, 4월
저 눈부신 5월의
숨가쁜 지향을 안는다

무심히 밟지 말라

쓸어모아 불사르며
아직은
슬피 추모하지 말라

생명의 푸른 즙
어머니—자유의 나무에 다 주고
엄한속의
그 굳건한 삶과
다시 필
더 찬란한 봄을 위해
스스로 불붙으며 떨어지는 넋

남녘강토를 붉게 물들이며
락엽이 진다
별들이 진다

1990

무등산의 봄

김 상 훈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밭이랑을 밟는다

상기둥같은 아들은
박정희세상에 끌려가서 죽었다
맏손자도 막내딸도 죽었다
도청앞 광장에서 한날에 죽어
차례로 업어다가 산비탈에 묻었다

봄은 무작정 밀려왔는데
집안에는 불러볼 젊은이 하나 없어
할아버지가 괭이를 찾아들고
할머니가 삼태기를 메고
이른아침부터
비탈진 밭고랑을 탄다

종달새가 안타깝게 운다
산바람도 차마 그옆을 못떠나고
무등산도 쓸쓸한 모습으로
늙은이들을 굽어보고있다

그러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숨 한번 쉬지 않는다
두손가득 씨앗을 움켜쥐고
타는듯한 눈길로 내려다본 다음
땅속에 깊이 묻고
수걱수걱 밟아나간다

늙은이들은 믿고있다
어머니 젖가슴같은 땅속에 묻혔으니
이 씨앗은 자라날것이다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으나
흙속에서 서로 뿌리가 엉키고
크고 실한 싹들이
소리를 지르며 솟아오를것이다

땅속에 묻힌 생명은
죽는 법이 없다
비바람이 하늘을 덮고
어둠이 납덩이처럼 내려눌러도
몸부림치며 솟아오르는
삶의 새싹은 어쩌지 못한다…

악귀같은놈들의 처참한 살륙으로
아우성소리 누리에 고이던 날
맏손자와 막내딸을 땅에 묻으며
그때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조상대대로 지켜온 땅
만백성을 키워준 땅이니
아이들을 땅속에 묻으면
아이들은 씨앗처럼 살아나리라

심장가득 보람을 안고
자유, 민주, 통일을 부르면
그 목소리도 살아날것이다
그 눈망울도 살아날것이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똑같은 생각에 잠기면서
내려쪼이는 따사로운 봄빛아래
앞서거니 뒤서거니 씨앗을 묻는다

오라지 않아 대지의 마음으로
들판을 뒤덮을 생명들을 묻는다

1988

다시 5월을 불러

김 영 근

다시 5월이 왔다!

하늘아
억수로 눈물을 뿌리지 말아
땅아
한떨기 꽃도 피우지 말아

눈물로 강을 이룬다고
광주가 흘린 피 씻을수 있느냐
꽃으로 바다를 이룬다고
이 찢기운 가슴들에 봄을 줄수 있느냐

분노를 안고 너를 다시 부른다, 5월아
자유냐!
죽음이냐!
의분에 불을 질러 화산으로 일어섰던
아, 그 땅을 살려내라
그 봄을 불러오라

무참히 숨지였다
청춘의 가슴에
삶이 꽃피는 봄을 안고싶어

《유신》을 불사르며
파쑈를 짓부시며
어깨겯고 나아가던 우리 아들들이

총칼이 울지 않는 학원의 창가에서
밝은 미래에로 나래를 펴고싶어
단발머리 날리며
항쟁의 파도속을 달려가던 딸들이

아, 투쟁속에 밝아오는
통일의 려명을 머리에 이고
쓰러져 못다부른
자유의 노래
민주의 웨침
남녘의 하늘땅에 메아리치는데

어디로 갔느냐
피젖은 포석을 움켜잡고
백번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가슴에
마주안겨오던
그 밝은 강산이!

어디로 꺼져갔느냐
원쑤의 불뿜는 총구앞에서도
꽃나이 딸들이
호수같은 눈에 비껴담았던
그 푸른 하늘이!

자유가 꽃펴야 할
이 땅우에
민주가 꽃펴야 할
이 강토에
어느놈이 짓밟고 일어섰느냐
그것은 잔악한 《유신》의 독버섯
새로운 《유신》—

암흑이 다시 덮인 이 하늘
철쇄만이 우는 이 땅우에
5월이여, 너는
꽃을 피우려 왔느냐
봄을 주려 왔느냐

봄이라도, 그 봄빛으로는
의분의 나래 퍼덕이며
손뻗쳐 끌어안던
그 땅을 살려내지 못하리라
그 봄을 꽃피우지 못하리라

5월이여, 다시 너를 불러 청하노니
우뢰로 안아다오
폭풍으로 안아다오
천추에 울려갈 광주의 웨침—
피의 자유를!

아, 그러면 이 땅우에
불굴의 넋은 굳게 살아 일어나리라!
투쟁으로 꽃피운
민주의 새봄을 안고
투쟁으로 불러온
통일의 강산을 안고

1990

진 달 래

김 윤 호 (재일동포)

하늘같이 맑디맑은
우리 겨레의 마음을 그려내듯
하얗게 피여난 진달래

복된 앞날을 바라보는
불타는 내 가슴마냥
붉게붉게 피여난 진달래

5월 따사로운 봄날을
마음껏 노래부르려느냐
진달래야

올해도 5월 그 봄날이 다가와
너희들은 시절을 도피치 않고
피여났구나

지난해에도 이맘때에
진달래는 어기지 않고 피여났어라

그날
지난해 그날에 핀 진달래는

류달리도 아름다왔고
류달리도 불타게 피여났어라

이여땅 행복의 마당에 핀
너희들과 같이
올해에도 광주, 항쟁의 땅에
진달래는 피였으리

봄을 먼저 알리는것이
진달래라 일러왔거니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이
무등산 기슭에
금남로의 그 길가에
진달래는 봄을 불러 피였건만

봄을 가로막으려는 무리들의
모진 발악으로
무참히도 꺾어버렸던 그날

여기 이 땅에 피여난
너희들도 차마 못견디여
몸부림치며 그 아름다운 빛갈을
흐리던 그날의 기억이
바로 어제인듯

진달래는
맵짠 바람 기승부리는

겨울을 겪었건만
이른봄부터 푸른 잎 더욱 푸르러
화창한 새봄을 맞아
아름답게 아름답게 피여났어라

여느해와 같이
불타게 붉게 피여났어라
순박하게 희게 피여났어라

영원한 봄을 불러 싸우는
내 마음과도 같이…

1981

머언 후일의 이야기

김 인 숙(재카나다동포)

머언 후일에
아기가 물으면
딸아…
무어라고 말하려니?
지금은 너의 품안
젖향내속에
쌔—ㄱ쌕 잠자는 천사같은 아기가
머언 후일
그 얘기를 물으면…
서로의 시신을 베개 삼어
술한 젊음 잠자는 피의 도시
지옥도 이야기를 네게 물으면…
무슨 말을 해주려니? 딸아

용솟듯이 기운차게 솟구쳐뛰며
몽둥이 내려치는 이 아미가
어느 나라 아미냐고 아기가 물으면…
줄줄이 오라줄에 묶이워가는
고개를 떨구고 묶이워가는
개끌듯이 무참히 끌리워가는
저들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으면…

제 나라 제 땅
제고장 거리에서
도살당한 민권, 80년의 오월 신화
새별눈 반짝이며 아기가 물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니?

오!
쿠르울르 코리언
오—! 비셔스 코리언!
WHY? 마미는 코리아서 태여나
코리언이 됐냐고 아기가 물으면
그때에… 너는… ?
너는…?

(* 아미—군대, 마미—어머니)

광주의 5월

김 정 곤

광주
너의 5월은
민주의 새봄 부른
꽃시절의 5월
항거의 피방울
터치며 온다

광풍을 맞아
꽃잎 흩어져도
광주
너의 5월은
무성하는 여름에도 온다
열풍에 스며온다

광주
너의 5월은
잎지는 가을에도 온다
나무껍질속 생신한 즙을 주며
줄기에 부풀며 온다

광주

너의 5월은
바람찬 겨울에도 온다
백설밑에 움트는 봄잔디처럼
지리밟혀도
머리들고 온다

광주
너의 5월은
민주의 봄
통일의 봄을 부르며
그 언제나 숨쉬며
때없이
온 남녘에 온다

1990

오 월 곡

김 정 환(남조선)

푸르디 푸른 조선의 하늘아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인간성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젖가슴 잘리고 대포 총 칼에 흐트러진 살점으로
낯익은 거리에 피바다로 흐르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근육을
우리를 배반한것은 백주의 대낮이였습니다
그 대낮에 끔찍한 일이 저질러졌던것입니다
은밀한 죄악의 밤조차 진저리쳤던 대낮이였습니다

그러나 쓰러진자는 다시 살아 이렇게 웨칩니다
그해에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쓰러진자의 거대함
상처투성이 목숨의 찬란함 보았는가 그해에
무엇을 보았는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목숨 다해 피 철철 흐르는 붉은 태양 보았는가
자유여 가난이여 목숨이여 공동체여
무엇을 보았는가 이 골목 저 신작로에 쌓인 시체더미
그우로 치솟는
반역이며 총칼의 이발이며 웃음거리며

보았는가 어둠의 얼굴을 어둠의 정체를
어둠의 개백정을 어둠의 량민학살을
찬란함이여 비린내여 펄펄 살아 뛰는 목숨의 비명소리여
지치고 지친 목숨의 끝
죽음이 끝내 한줌 남은 목숨보다 위대한 시간
쓰러짐이 인산인해로 나뒹구는 피비린내 끓는 학살의 끝
그렇다 우리는
결코 더이상은 물러설수 없는
우리들 가난의 힘이 스스로 죽창으로 치솟아
푸르디 푸른 하늘을 이루는것 보았다
우리들 쓰러짐이
정의와 간사한 도배들 확연히 갈라놓는것 보았다
쓰러지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우리들 가난의 공동체여, 짓밟힘이여, 신음소리여
차라리 목놓아 울부짖을
맨 땅이 갈라질 함성소리여
아아 그렇다 우리는
피맺힌 굶주림이 스스로 불끈불끈 솟는
근육을 이루는것 보았다
피맺힌것은 분노뿐아니라 사랑뿐아니라
굶주린 목숨 그자체인것을 보았다
그것이 백성임을
그것이 우리임을 보았다
아아 피맺힌 자유, 피맺힌 제3세계여 공동체여
피맺힌 평화, 피발서린 눈동자여

아아 피끌상접이여 사막이여 위대한 싸움터여

푸르다 푸른 조선의 하늘아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인간성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젖가슴 잘리고 대포 총 칼에 흐트러진 살점으로
낯익은 거리에 피바다로 흐르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근육을
우리를 배반한것은 백주의 대낮이였습니다
그 대낮에 끔찍한 일이 저질러졌던것입니다
은밀한 죄악의 밤조차 진저리쳤던 대낮이였습니다

아아, 광주여 우리 나라의 십자가여!

김 준 태(남조선)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사이에
피눈물만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 어디에 파묻혔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채 누워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또 어디에서 찢어져 산산이 쪼각나
버렸나

하나님도 새떼들도
떠나버린 광주여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아침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여
죽음으로써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아아, 통곡뿐인 남도의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해 바람이 곤두박질치고
이 시대의 모든 산맥들이
엉터리로 우뚝 솟아있을 때
그러나 그 누구도 찢을수 없고
빼앗을수 없는
아아, 자유의 기발이여
인간의 기발이여
살과 뼈로 응어리진 기발이여

아아,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노래와 꿈과 사랑이
때로는 파도처럼 밀리고
때로는 무덤처럼 뒤집어쓸지언정

아아, 광주여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등산을 넘어
골고다언덕을 넘어가는
아아, 온몸에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여

정말 우리는 죽어버렸나
더이상 이 나라를 사랑할수 없이
더이상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할수 없이 죽어버렸나
정말 우리들은 아주 죽어버렸나

충장로에서 금남로에서
화정동에서 산수동에서 용봉동에서
양동에서 계림동에서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아아, 우리들의 피와 살덩이를
삼키고 불어오는 바람이여
속절없는 세월의 흐름이여

지금 우리들은 다만
쓰러지고 쓰러지고 울어야만 하는가
공포와 목숨 어떻게 숨을
쉬어야만 하는가

아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있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넋을 잃고 밥그릇조차 대하기
어렵구나 무섭구나
무서워 어쩌지도 못하는구나

《여보 당신을 기다리다가
나는 죽었어요…
왜 나의 목숨을 빼앗아갔을가요
세방살이 신세였지만
우린 얼마나 행복했어요
난 당신에게 잘해주고싶었어요
아아, 여보!
그런데 나는 아이를 밴 몸으로
이렇게 죽은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아, 여보 내가 결국
당신을 죽인것인가요》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을 뚫고나가
백의의 옷자락을 펄럭이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언덕을 다시 넘어오는
이 나라의 하나님 아들이여
예수는 한번 죽고
한번 부활하여
오늘까지 아니 언제까지 산다던가
그러나 우리들은 몇백번 죽어도

몇백번을 부활할 우리들의 참사랑이여

지금 우리들은 더욱 살아남아나는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튼튼하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아아, 지금 우리들은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이 나라의 무등산을 오르는구나
저 미치도록 푸르른 하늘을 올라
해와 달을 입맞추는구나

광주여 무등산이여
아아, 우리들의 영원한 기발이여
꿈이여 십자가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젊어갈 청춘의 도시여
지금 우리들은 확실히
굳게 뭉쳐있다 확실히
굳게 손잡고 일어선다

1980.5 항쟁현장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김 지 하(남조선)

신새벽 뒤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뒤골목의 어딘가
발자욱소리 호르락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속에 내 가슴팍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우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우에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광주는 우리 분노의 도시

김 학 렬(재일동포)

무등산마루에 타오르고
영산강물우에 타오른 그 불길

금남로, 충장로
산수동, 계림동…
격분한 길목우에 타오른 그 불길

대검에 찔리고
차에 깔리고
방망이에 실컷 얻어맞은
형제들의 가슴팍에 타오른 그 불길이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계속 타오르는
광주는 새날을 부르는 기발

젖가슴을 잘리운 녀학생의
시체우에 타오른 그 불길
배를 찔린 임신부의 비명우에
태아의 소리없는 울음우에 타오른 그 불길

피로 쓴 글씨로
얼룩진 띠를 불끈 동이고
찢어져라 웨치는 젊은이들의

함성우의 그 불길

웨치다웨치다 목이 쉬여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눈물의 호소를 보내는
어린 소년들의 절규우의 그 불길이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광주는 우리 분노의 도시

아들의 주검앞에서
며느리와 함께 주저앉아
밤새도록 통곡하는 어머니의
땅을 치는 손에 지핀 그 불길

피와 살덩어리와 흐느낌과
사랑의 넋들우의 그 불길이
지금도 계속 활활 타는
광주는 노호하는 불바다
광주는 노호하는 우리 가슴

파쑈악당을 부추기고
몸서리나는 동족대학살을 저지른
그 원흉
그 원흉은 바로
바다멀리 워싱톤에 있음을
똑똑히 본 도시

광주는 반미의 불웨침으로.

우리 심장을 두드리는
불사조의 성새
광주는 자주만이 살길임을
천하에 밝혀주는 우리 기발

이 시각
이 가슴에도 활활 타오르는
반미구국의 거센 투지

살과 뼈로 응어리진
광주는 인간량심의 기발
시커먼 하늘 찢어내고야말
민족자주 우리 승리의 기발이다

1990

거역의 몸짓으로 살아

김 현 아(남조선)

1

그대
어디에서 오는가
이 허허로운 반도 어느곳서
아쉬움의 계절을 살다
오늘
희망처럼 이 들판으로 달려오는가

동강난 조국
반쪽의 위장된 력사를 배우고
규격화된 외면만을 암기하며
상실의 언어를 강요받던 그대들

노래하자
이제 노래하자
스물
아아 스무살의 은어로
우리의 그리움을 노래하자

2

오늘처럼 희망이 물빛으로 출렁이는 날이면

가슴한구석에 고개를 드는
그리운이의 모습,
그대여
오늘은 죽음의 미학을 이야기하자

86년
미제 양키용병교육 거부한다
불꽃으로 타오른
김세진 리재호 학형

회색의 시대
지식인의 량심과 진리에 고민하다
한강에 젊음을 묻은
박혜정학형

지금도 남영동을 지날 때면
한기가 들고
분노가 가슴을 치는
죽음으로 동지를 지킨
박종철학형

독재타도 호헌철폐
목터지게 불러보던
민주주의를 껴안고
력사의 숲에 뿌리내린
리한렬학형

늦봄의 명동성당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
아아,
흰옷 입은 조선의 혁명가
조성만학형

광주학살 배후조종 미국놈들 몰아내자
척박한 땅 단비이고자
마지막 하나까지 불꽃으로 태운
박래전학형

아,
투쟁으로 자유로운 식민의 땅
거역의 몸짓으로 순수를 지키고
죽음으로 영원히 살은
학형이여!
렬사여!

3

그대
어서 오라
그대와 나
어깨를 걸자
선배의 령전에
한다발 국화꽃을 바치기보다
그들 형형의 눈빛을 가슴에 묻고

그들 못다한 노래를 부르자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가슴으로
자주여,
민주여,
통일이여

(필자는 중앙대학교 국어문학과 학생임)

1989

땅을 씻지 말어라

김 홍 권

민주의 제단에
목숨을 얹고 간
남녘의 형제들이 피흘린 땅이다
백두의 천지를 못보고 간
청춘의 넋이 붉게 물들인 땅이다

주룩주룩
하염없이 내리는 여름비
씻어내지 말어라
씻어내지 말어라
피붉은 그 땅을 씻어내지 말어라

희망에 타는 눈동자
통일조국을 그리던 그 꿈
그들이 바라던 길은 막힌채 있고
그들이 부르던 민주와 자주는 밟힌채 있다

내리며 흐르며 우는 여름비
씻어내지 말어라
땅을 씻어내지 말어라
그 자욱 만지며 울 사람이 있다

그 자욱 두드리며 터칠 우뢰가 있다
그 자욱 안아들고 내릴 심판이 있다

비야
그 자욱 씻어가지 말어라
타오르는 항거의 넋이 거기 있거니
쓰러진 그들이 그리던 날이
쓰러진 그들이 바라던 밝은 날이
머리우에 얹힐 때
그 깨끗하고 신성한 피
통일의 꽃으로 붉게 피게 하자

1988

새 동지

남 해

목청을 돋구며 주먹을 흔들며
가두시위를 불러오는 롱성의 밤
뜻을 같이한 세 학우
구석진 강실에서 일손을 다그친다

창틈으로 간신히 새여드는
달빛의 어스름속에서
그들은 말없이 찍어낸다
《6공》을 단죄하는 삐라를

별안간
복도문이 열리더니
난데없이 들어서는 불청객
늘 조용한 백발의 교수

미처 건사 못한 등사물을
황급히 옷자락에 밀어넣으며
의혹의 눈길들은 마주친다
—왜 왔을가?

책상머리에 다가선 교수
손을 내밀며 하는 말

—그걸 이리 주시오

방안의 잉크냄새 증오에 얼어붙는다
어둠속에 분노의 번개가 인다
교수를 쏘아보는 눈빛, 눈빛
—이제는 끝장이란 말인가?!

삐라묶음 움켜쥐고 나가던 교수
문가에서 돌아서더니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리곤 어둠속으로 사라진다…

날밝기전
광주의 넓은 거리를
백발의 교수 활기있게 걸어가는데
그가 걸어간 뒤로는
때아닌 흰눈이 흩날렸다

1990

시 초

통 일 열 원

동 기 춘

분 렬

분렬—
분렬된 땅이여서
전쟁도 했다
죽기도 했다

분렬—
분렬된 땅이여서
눈물도 뿌렸다
허리띠도 조였다

마흔하고도 다섯해
통일숙원을 땀젖게 지고
아버지 뛰던 세월도 가고
내가 달린 세월도 거의 가고…

이 분렬된 땅과
분렬의 원쑤들을
우리까지 다음세대에

그 무슨 상속물처럼 넘길수야 없지 않는가

력사는 그 어떤 량해를 기록하지 않더라
후손들은 선대의 결과만을 인정하거니
우리 세대가 통일을 못한다면
피와 눈물과 모지름을 그토록 바치고도
후세앞에 머리들수 없을게 아닌가

아, 절통한 분렬
이대로 더는 못살아
틀어쥐는 주먹, 주먹속에서
통일운명에 90년대가 꿈틀 고패치라

아 픔

3천만이 갈라져
7천만이 되였다

오늘도 역적은
호화락에서 코카콜라를 흘리고
무등산 잎떨어진 나무밑에는
안공이 튀여나온 렬사를 묻었다

먼날의 후손들은 안대도 다 모르리라
남녘의 아픔이며 흘린 피
던진 돌멩이와 화염병을
꺾이운 뼈와 뿌려진 살점을

매국노들의 이름이 덕지덕지 묻은

딱지같은 력사
그 얼룩을 지우려
사생결단하는 웨침은 이 시각도…

그렇게 근 반세기
3천만이 갈라져
7천만이 되도록
못이룬 통일, 아 못이룬 그 통일

막아선 무리들
미제와 파쑈의 무리들을
그놈들을 강토우에 그대로 두고
우리 1억을 내다볼수야 없지 않느냐

우리의 통일은

넘어서면 칼을 밟고가야 할 땅에
누구도 지켜 못준 운명의 《수잔나》
성모 승천하신 날이여서
한가닥 하느님의 지킴에 몸기대고
분단선을 밟으며 미사를 올렸던가

절망엔 희망이…
슬픔엔 기쁨이
있어지라 있어지라
눈감고 기원한 그 8. 15

민족아, 우리는 과연 힘이 없어
7천만이 울며 보는 앞에서
그 장한 통일의 꽃 수경이
가슴치며 가슴을 치며
하느님을 찾게 하였더란 말인가

믿었으리 아니 바랐으리
순수한 애국의 그 절절한 기원이면
청와대의 《사탄》들을 움직여
떠드는 통일이 빈말 아니될것을

허지만 수갑을 찼고
허지만 감옥에 갇히고
《국가보안법》의 희생물이 되더라도…하던
눈물배인 그 목소리는 눈물만 퍼내고…

아, 우리의 통일은
누가 줄 자비의 선물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저 제주도 려염집아낙까지
폭파된 콩크리트장벽의 잔해우에
자유래왕의 발자국 찍을 거기에 있다

어머니의　부름

—해외동포들에게—

바다너머 저 멀리

산너머 들너머 저 멀리
내 동포 내 형제
들으시나요
어머니의 부름소리를

쇠사슬을 허리에 감고
긴긴 마흔다섯해
얼마나 아프시면
피나는 상처를 붙잡고
흩어진 자식까지 찾겠습니까

제 부모 급할 때면
자식들이 단지도 했다는데
자식된 그 마음이야
물건너 있다고 다르며
먼 땅에 있다고 다르겠나요

피를 나눈 한겨레
살을 나눈 한동포
들으시나요
어머니조국의 부름소리를
다같이 저린 가슴 부둥키고 일어서자요

어머니는 지난 사연 묻지를 않는답니다
애오라지 기쁨줄 자식은
통일을 위해 오늘에 피더워하는
그 열에 있다고 해요

그 옆에 있다고 해요

통일열원

꿈결에도 그리움에 소스라칠
나의 살붙이 거기 없고
피를 나눈 형제도 없고
흘러간 시절의 련인도 없건만
어느 먼 친척도 거기 산일 없고
내 자란 고향도 거기 아니고
동요의 옛추억이 사물거리는
들딸기, 산나리, 개암숲이
거기 어느 산협에 없어도
부르노라 부르노라
피지도록 부르노라, 나의 남녘이여

내 한때는
저 먼날 한때는
생각했노라 분한 마음으로
갈라진 가족들의 쓰린 고통을
한동네에 살던 춘천집 늙은이
제 생전에 때묻은 길을 밟아야
자손들께 이건 아무개고 저건 누구라고
인사라도 시키겠다 하던
그 늙은이 세상 떠나던 날
발인하는 걸음이 돌에 걸채며
통일아 통일아—

내 피맺히게 소원했더라

조국이여, 나의 고백을 들어다오
내 한때는 분렬의 비극과 통일의 절박함이
심각한 가족들의 생리별에 있어
피로와하는 그대인줄 알았노라
하기에 그것을 가셔드리려
젊은 날의 잠못든 밤들이 있었노라
그런 날 그런 밤에
동화같이 철조망 훌훌 제끼고
귀밑머리 희여진 슬픔에 찬 손들을 잡고
전라도로 경상도로 가는 꿈도 꾸었노라

했건만 세월은 무엇을 깨우쳤더뇨
남녘이여, 오 남녘이여
어이하여 거기에선
젊은 목숨들이 포도에 등을 밀고
배를 가르며 몸에 불을 질렀느냐
그들이 제 아들딸이여서
그 희생을 막아보려고
백발의 목사가 사지판을 넘어
희망의 평양에 왔던가
홍안의 처녀 수경이는
갈라진 어머니가 북에 있어
지구를 한바퀴 돌아서 왔던가
통일렬사들이 살아있는 대학의 창가에 앉아
그들이 오빠여서 형제여서 울었던가

내 또한 이 모든것이
밭은 혈붙이들이여서
주먹으로 눈굽을 짓누르고
락조꺼지는 공원에 점도록 앉았던가

아니여라, 정녕
혈육, 그것만이 아닌것
오늘에 고통스럽고
후손들앞에 죄되고 욕되는
이 반도의 분렬이 아파서,
이 분렬에 명줄건 놈들이
통일성업을 롱락하며
모략과 권모술수와 협잡으로
민족을 학대하는것이 가슴아파서
온 겨레가 나서고
울컥울컥 치미는 분노에
나 또한 가슴을 뜯는것

통일이란 말만 나와도
순간으로 폭발되는 민족의 열원
그 념원 땅우에 차넘쳐
땅밑에도 통일갱, 통일역을 만들며
하늘의 해와 달을 쳐다보아도
가를수 없는 그 하나가 생각나고
뛰는 심장에 귀기울여도
둘일수 없는 그 귀뜀에 피끓는

아, 오늘의 실체

남녘이여 오, 남녘이여
내 듣노라 너의 절규를
바란 일 없는 분렬의 세월
우리 서로 눈물을 흘렸다 피도 뿌렸다
그 눈물값으로 그 피값으로
되찾자 하나된 내 나라
자주의 푸른 하늘을
민주의 푸른 땅을

만일 이 세기를 넘어 분렬을 끈다면
더는 시계들에 태엽을 감지 말라
나에겐 만일이라는 그 말조차 역겹노라
허지만 만일 그때까지
분렬의 적들을 그대로 둔다면
조선이란 말은 무엇때문에 있고
민족이란 말은 무엇을 위해 필요하더냐
3천리강토여
7천만겨레여
저 백두와 한나에 터졌던 용암을
하나로 모아
이 세기의 하늘에 화산으로 뿜어올리라
그 불물에 장벽이며 철조망이 녹아빠지고
모든 시계들이 통일세월을 기뻐 새길 때
오, 그때만이 우리 떳떳이
그때만이 우리모두가

조상과 인류와 세계 앞에서
수치와 오욕과 불행을 결별한
조선사람이 되리라

1990

알몸우에 흰 수의를 걸쳐도

—옥중에서 동료교사에게 보내는 시—

동 종 환(남조선)

어둠이 짙을수록
쇠창살이 더욱 또렷해옵니다
잠못들어 뒤척이는
수인의 고적한 어깨너머로
또 하루가 흔적없이 저물었습니다
때묻은 모포를 끌어덮으며
아직도 다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한가닥 외로운 진실을 놓지 않고
굶어쓰러지면서도 우리와 함께 있는
이름들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세상밖에서 가졌던 모든것을 벗기우고
지금 알몸우에 흰 수의를 걸치고 살아도
우리가 빼앗긴 세월을
반드시 돌려받을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옥의 안에서나 밖에서나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기때문입니다
이름을 빼앗긴채
가슴에 수인번호를 락인처럼 달고 살아도
아이들의 가슴에 새기고 온 우리의 이름은

아무도 지울수 없는것처럼
우리의 뜻을
세상에서 지워버릴수는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몸을 적실
물 한방울에 얽매이게 하고
배를 채울 보리밥 한술에
무릎을 꿇게 하여도
그리하여 우리를 짐승처럼
마루장에 뒹굴게 하여도
우리는 이 길을 곧게 갑니다
그렇게 살다 죽음으로 실려간다 해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허공에 풀잎처럼 걸려있는동안도
자기의 자리를
한발작도 벗어나지 않으며
한올의 사랑도 실천하지 않는 동료들이
아직도 내 빈의자의 옆에 가득하다 해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믿어 이 길을 택했으므로
옳은것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것도
죄악이라고 믿었으므로
우리는 새벽이 오는쪽을 향해
당당히 웃으며 갈수 있습니다
서슬푸른 칼날에 수천의 목이 잘리고
이 나라 땅의 곳곳이
새남터가 된다 하여도

우리는 이 감옥에서 칼날에 꺾이지 않는
마지막 이름으로 남을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곳에 쓰러져있어도
빛나고 높은 그곳을 향해
우리는 이 길을 끝게 갑니다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량 성 우(남조선)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나 이미 떠났다고 대답하라
기나긴 죽음의 시절
꿈도 없이 누웠다가
이 새벽 안개속에
떠났다고 대답하라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나 이미 떠났다고 대답하라
흙먼지 재를 쓰고
머리풀고 땅을 치며
나 이미 큰강 건너
떠났다고 대답하라

5월의 광주여, 온 남녘이여!

렴 우 봉

잔디도 설피게 푸른
무등산 기슭
가냘픈 들꽃을 피워
5월은 왔느냐

길가던 나그네여
그 꽃을 꺾지 말라
채 피지 못한 꽃나이들이
그밑에 누워있다

봄날의 교정을 나와
가을학기에 돌아못간 학우들
기다리는 어머니품에도
다시 안기지 못한 아들딸들이
거기에 묻히였다

금남로 피고인 돌바닥을
열손가락으로 뜯고 허비다
대검에, 화염방사기에
열백번 고쳐 죽고

죽어 흩어져

산골짜기에 버려졌다고
《시민증》도 다시 찍어
빈 련번호가 메워졌다고
어이 모르랴

이름없던 무등산은
머리를 높이 들어
파쑈의 죄상을 고발하고
광주는 그 이름같이
피의 성시로 더욱 빛나거니

아, 끝내는
피와 민주를 바꿔야 하는 땅
피흘려 넘어선 강쪽우에만
자유의 다리는 놓여지는가

인간의 도살장에서
인권의 불모지에서
《유신》을 불사르려
민주를 되찾으려
인민이 어깨겯고 나아갈 때

총에 맞고도 엄마를 찾는
일곱살 소년으로부터
손주같은 애들을 살려내라는
칠순로인의 가슴에까지
총알을 마구 쏘아박은놈

치떨리는 그 폭거로
스스로 인간이기를 그만둔
아니, 애당초 인간이 아님을 보여준
살인두목 전두환역도

다름아닌 그 《공적》으로
미국제 《룡상》을 타고앉아
오늘도 인간의 언어 아닌
《랭동호텔》을 지껼이고
《넥타이공장》을 늘이거니

아 어제도 또 오늘도
울어도 보고
속아도 보며
선채로 살아온 우리—

정녕 이제는
항쟁의 거리에서 움켜쥐였던
그 돌이 남았노라
살인귀를 복수해달라던
전우의 마지막 부탁이 남았노라

—전두환 찢어죽이라!
누를수 없는 피웨침을 안고
사윌수 없는 불길을 안고
다시 온 5월의
광주여, 온 남녘이여!

소리쳐가자
불붙여가자
우리의 노래
우리의 투쟁을

하여
인간쓰레기들의 무덤우에
우리의 새 세상을 세우자
저 가냘픈 들꽃 대신
용사들의 비석도 번듯이 세워주자

1985

황소여, 무등산이여

류 인 성(재일동포)

황소가 누운것 같은 무등산
멀리 광주학생사건
작년의 5월인민봉기
민족해방의 불길을 헤쳐온 무등산
찬비 오는 오늘도
광주시가를 굽어본다

영웅도시 광주는
반역자의 총검에 찢기우고
미국제 무한궤도에 짓밟혔건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

황소, 황소는 비통한 조선의 력사를
수난의 력사를 혼자 지닌것처럼
멍—하고 운다
눈물방울을 뚝뚝 흘린다
행방불명된 숱한 령을 생각해선가
슬피 운다

황소, 황소는 내 어려서
삼배바지 걷어올리고

이랴—이랴 밭갈이할 때
고역에 굴하지 않고 꾹 참던
순종의 동물

코를 꿴 소고삐 잡고
풀먹이던 어린 시절의
잊지 못할 버덩아
나의 고향아

열기 뿜는 태양
건드러질듯한 풀냄새
어린 나는 실신하며
가도가도 끝이 없는 초원길을
소를 몰고갔노라

가난해서 소를 팔러 장으로 가던 고개길
소는 싫다고 발을 버티며 울던 언덕길
아! 그리운 옛영상 한토막

누운 황소같은 무등산이여
숙명의 산이여
밤이면 머리우에 뭇별을 이고
엎드려 잠든것 같지만
반드시 일어설 날이 오리라
반드시 민주와 자유를 가져오리라
황소여, 무등산이여

1981

종 다 래 끼

리 동 순(남조선)

할수만 있다면
싸리대로 이쁘게 엮은
종다래끼 하나
멜빵달아 어깨에 메거나
배에 둘러차고 우리 나라의
고운 씨앗을 한가득 담아
남천지 북천지 숨가삐 오르내리며
풀 나무없는 틈이란 틈마다
씨를 뿌리고
철조망 많은 무장지대 비무장지대
폭격연습한뒤의 벌겋게
까뭉개진 산허리춤에다
온통 종다래끼 거꾸로 쏟아
씨를 부어서
저 무서운 마음들을
잠재우고도싶고
또 할수만 있다면
짚으로 기름히 엮은
종다래끼 하나
어깨에 메거나 배에 둘러차고
충청도 물고기 담아가서

황해도 시장에 내다팔고
함경도와 백두산 푸른 나물을
그득그득 눌러와서
철없는 내 어린것에게
맛보이고싶어라
이남의 물고기맛과
이북의 산나물맛이
한가지라는걸 보여주고싶어라
아, 정녕코
할수만 있다면 이렇게
우리 나라는 하나여라 하나여라
하나여라

남녘의 감방에 부쳐

—남조선의 민주인사 문익환목사에게—

리 찬 호

알고싶노라
문익환목사여
나에게 그처럼 인상깊은
모란봉에서의 추억을 남기고
통일의 날 만날것을 굳이 약속한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

방송원이 전한 보도를 듣고
밤은 깊어도
온 식구가 잠들지 못하노라
그날의 즐거운 들놀이에서
당신을 할아버지라 부르며 안기던 아이들도
영문을 몰라 나에게 자꾸 묻노라

어떻게 대답하랴
목사여,
고령의 몸으로 족쇄에 묶인
당신이 정녕 죄인이라면

아, 평생소원이던 제 나라 땅
평양을 찾아온것이 죄였던가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지 못함이
그리도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
피같이 불같이 시를 쓴것이 죄였던가

정녕 그것이 죄란 말인가
모란봉 푸른 잔디우에서
혈육의 정 고인 술 한잔 받은것이
서울의 할머니에게 전해달라고 한
평양어린이의 편지를 받은것이

아니여라, 목사여
그대가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늘에 물어도 분노하리라
혈육이 모여 함께 살길 원한것이 죄가 되는
파쑈의 광풍이 잦을 날 없는 남녘땅을 두고

원통하여라
이 손에 마치를 들고 당장 달려가
당신을 묶은 족쇄를
단매에 까부시지 못함이

하건만 목사여
비록 철쇄에 묶이웠어도

분렬주의악당들을 내놓고는
당신을 죄인이라 볼 사람
이 세상에 없어라

1990

잔디 푸른 땅

문 성 락

10년전
5월의 광장에
때아닌 눈서리 맞고
속절없이 꽃들이 졌다고
그 푸르름을 잃은것 아니여라

군화로 짓밟아도
무한궤도로 짓뭉개여도
봄이면 어김없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싹처럼

최루탄가스로 질식시키고
화염방사기로 불태웠어도
봄이면 봄마다
봄을 향해 움터오르는 푸른 잔디처럼

땅속깊이 묻힌
씨앗이
교정에서 무등산에서
열매맺을 꽃계절 부르는
아 광주여!

원쑤들은 지껄였다
모조리 죽이고
닥치는대로 짓눌렀으니
이제 다시 일어서지 못할거라고
원쑤들은 장담했다
그대 뿜어올린 불이 꺼져
메마른 화산재만이 남을것이라고

허나
원쑤들은 오산했다
보라 봄우뢰소리에 머리 쳐드는
새싹의 뿌리깊은 그 씨앗

그 아무리 불에 태워도
기약한 통일의 노을 향해 꽃처럼 피여나고
지지리, 지지리 짓밟아도
천만 창끝이 되여 솟구쳐오르는
광주의 푸른 잔디

하늘에 해가 있으면
봄싹 어김없이 돋아나듯이
그대 령혼을 안고
진정한 자주의 봄
참다운 민주의 봄
온 남녘천지에 아름다운 화원을 안아오리니

사나운 광풍에
먼저 진 꽃 그 향기도 좋지만

부활하는 생명,
억제못할 새 삶의 숨결 안고
언제나 푸르름 떨치는 땅
아, 잔디 푸른 광주여!

1990

5월이 오면

문 익 환(남조선)

5월이 오면 부끄러워라
눈을 감아도 천길 바다속
터지는 가슴으로 부끄러워라
귀를 막아도 억하심정 하늘 스치는 바람소리
한맺히는 슬픔으로 부끄러워라
살아 숨쉰다는게 숨막히게 부끄러워라
휴계소에 내려서면 허파로 스며드는
풀내음 꽃향기도 부끄러워라
하늘도 땅도 얼굴 들수 없어라
도시사람이라는게 부끄러워라
39년 온갖 애환 쉬어마시며 살아온
환갑 진갑 다 지난 할망구와 나란히
벨트를 메고
부끄러움도 없이 고속도로를 달린다
벽오동 보라빛은 오늘따라 저다지도 슬픈데
모내는 농부들이여
그래 당신들은 금년농사 걱정만 하면 그만인가요
건너편 젊은 어머니가슴에서 잠든 아가야
마냥 행복하구나
오늘은 초파일이네요
절간과 암자로 찾아드는 불도들이여

당신들은 부처님이 자랑스럽기만 한가요
이 싱싱한 오월에
시월도 아닌데 한창 물오르던 푸르름
락엽으로 구르며 구두발에 짓밟히던
아우성소리들아
찢겨터진 살점아
차라리 난 이 자유가 부끄럽구나
흐르는 물이 부끄럽구나

잠꼬대 아닌 잠꼬대

—올해 정월 초하루 새벽에 설인사를 위하여 찾아온
친지들앞에서 읊은 시—

문 익 환(남조선)

난 올해안으로 평양으로 갈거야
기어코 가고말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롱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아니랄가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구
나는 이 1989년이 가기전에 진짜 갈거라고

가기로 결심했다구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 있지 않아

모란봉에 올라 대동강 흐르는 물에
가슴적실 생각을 해보라고
거리를 거닐면서 오가는 사람 손을 잡고
손바닥온기로 회포를 푸는거지
릉라도 버들 흩날리는 봄바람으로
얼어붙었던 마음 풀어버리는거지
난 그들을 괴뢰라고 부르지 않을거야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부를 생각도 없어
동무라는 좋은 우리 말 있지 않아

동무라고 부르면서 열살 스무살때로 돌아가는거지

아 얼마나 좋을가
그땐 일본제국주의사슬에서 벗어나려고
이천만이 한마음이였거든
한마음
그래 그 한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당나라 백만대군을 물리쳤잖아

아 그 한마음으로
칠천만이 한겨레라는걸 확인할 참이라고
오가는 눈길에서 화끈하는 숨결에서말이야
아마도 서로 부둥켜안고 평양거리를 딩굴겠지
사십사년이나 억울하게도 눈을 흘기며
부끄럽게도 부끄럽게도 서로 찔러죽이면서
괴뢰니 주구니 하며 원쑤가 되여 대립하던
사상이니 리념이니 제도니 하던 신주단지들을
부셔버리면서말이야

배속 편한 소리 하구있구만
누가 자넬 평양에 가게 한대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구
객적은 소리 하지 말라구

난 지금 력사이야기를 하고있는거야
력사를 말하는게 아니라 산다는것말이야
된다는 일 하라는 일을 순순히 하고는
충성을 맹세하고 목을 내대고 수행하고는
훈장이나 타는 일인줄 아는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구
력사를 산다는건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구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오늘 력사를 산다는것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이 량반 머리가 좀 돌았구만
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력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머리가 말짱한것들아
평양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그만두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수 없지
구름처럼 넋으로 가는거지

1989

붉은 잎사귀

문 재 건

공정대놈들
미친듯 쏘아대는
총탄의 소낙비에
하나 둘 쓰러지는 대학생들

그들 머리우에 가슴우에
즐벅한 붉은 피우에
우수수 한잎, 두잎
내려앉는 가로수 파아란 잎사귀

아, 봄의 락엽이여
때아닌 5월의 락엽이여
너는 흐르는 피에 젖어
붉은 잎사귀 되였구나

통분코나
때이르게 가야 하는
가야만 하는 아까운 청춘들
몸부림치는 광주의 5월이여

흉악무도한 파쑈의 광풍속에 흩날리는
5월의 붉은 잎사귀는
불꽃이 되여
격문이 되여 온 세상에 날린다

1986

통일만이 살길이다

—림수경에게 드리는 노래—

문 창 남(재중동포)

더는 참을수 없어 종주먹 쥐고
더는 기다릴수 없어 몸부림치던 투사여
그대는
피젖은 하아얀 남녘의 비둘기
허리꺾인 어머니조국의 비운속에
남먼저 철든 아침비둘기

녹쓴 분계선 콩크리트장벽에
무지개타고 날린 연꼬리에도
동화의 꿈은 깨여져버렸나니
지척이 천리던가 만리던가
이역 수만리 숨가빠 돌아날아온
슬픈 반도의 딸, 기특한 효녀여

웃음과 단꿈만이 차례질 그 애숭이시절
너무나도 일찍
물고문 매고문에 숨진 동학
살인 최루탄에 쓰러진 동학…
경악스런 참경만이 차례진것은

지성이 모자랐더냐, 소원이 못마땅해서냐

《전대협》 학우들 절규의 웨침소리
《청와대》 대들보 날려보내고도 남으련만
《전대협》 학우들 격투속에 흘린 피
한나산 철쭉꽃 먼저 산허릴 두르고도 넘치련만
왜 가자는 길에 발목 팔목 쇠사슬에 묶이고
왜 만나자는 초점에 설레이는 꽃발 아닌
카빙총 울타리만 쇠비린내 풍겼더냐

그대 쓰라리고 고달픈 날개
정녕 어머니손길로 쓰다듬어주는곳은 어디냐?
그대 귀엽고 장한 뜻
정녕 아버지눈길로 헤아려주는곳은 어디냐?

갑사댕기 사주던 아버지손길
엿가락 물려주던 어머니손길
밥상머리에 된장찌개, 상추잎 올려놓고
말없이 그대 기다리던 부모님 정보다
더 따사롭고 미더운 품
해와 별이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고있거니

그대 가는 길에
백두의 설한풍 몰아친들 어떠리
그대 가슴은 만병초의 웃음꽃으로 설레이리
삼복의 소나기 쏟아진들 어떠리
그대 온몸은 선렬의 눈물로 적셔지리

림수경, 7천만이 사랑하는 처녀야
한강기슭 실버들 달빛속에
희망을 속삭이던 동학도 그리우련만
현해탄 건너 비내리는 이역의 부두가에서
등짐에 채찍에 피물고 쓰러진 그 자손들
두만강건너 눈보라치는 만주벌판에서
이리떼, 승냥이에 물리고 짓쫓긴 그 자손들
정처없이 떠도는 해외의 번지없는 동포자손들
지금, 지금, 그대를
하아얀 마음의 비둘기 그대를
통일의 열화속에 얼싸안고있나니

그대는 7천만과 함께 가고있다
그대는 온 세계 정의와 함께 가고있다
그대 가는 길에
심산의 나무도 뿌리뻗어 지맥을 이어주고
벽골의 샘물도 고랑파서 수맥을 이어준다
열두삼천리 금수강산도
《통일만이 살길이다!》
피타게 메아리친다 그대따라 메아리친다
그대 가는 길, 우리 함께 가는 길
막아서는놈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만약 원쑤의 총부리 그대 가슴 겨눈다면
우리모두 장벽되여 그대 몸 막아주리
만약 피비린 수쇄 그대 손목 채운다면
우리모두 육탄이 되여 철창을 짓부시리

더는 참을수 없다！
더는 기다릴수 없다！
오직 통일만이 살길이다！
7천만 동포여！
해와 별님 따라 일심동체로
평화의 흰 비둘기 얼싸안고
통일의 새 아침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1989

또 늦었구나 생각하면

백 기 완(남조선)

또 늦었구나 생각하면
멀리 잦아드는 피눈물의 자유종이
노을빛을 타고 서녘을 넘는다

또 놓쳤구나 되씹으면
아득한 고향길이 열리며
불붙는 솔밭이 성이 나

일제히 일어서는 한밤을
불효자식은 뜬눈으로 지새는데
누가 감히 통일을 외면하는가

우리의 통일은 갈라진 시대의 모든걸
헌신짝처럼 버리는곳에 있는데
우리의 통일은 통일 이외의것은
갖지 않는곳에 있는데

우리의 통일은 통일이란 두 글자가
모든것에 우선하는 법인데
우리의 통일은 통일 그외의것은
모두가 가짜인데 우리의 통일은

민족사의 전진이자 세계사의 전진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통일은 누가 말해야 하나
제 아픔을 앓는자자신이 말을 해야 한다
이제부턴 우리의 괴로움도
속으로만 썩히기를 끝장내고
제 아픔을 낑낑댈 때가 왔다

울어서 될 일도 아니요
참아서 될 일도 아니요
잊어서 될 일도 아니요
오천년 아니, 사십년동안 우리의 썩은
내장을 한껏 토해낼 때가 되였다
맺힌건 풀어야 하고
독이 묻은 파편은 사그리
제껴야 할 때가 왔다
하늘은 하나인데 우리는 둘이기때문이다
조상은 하나인데 족보는 둘이기때문이다
백옥같은 흰구름은 분단선을 넘나드는데
흰옷의 우리는 갈수도 없고 올수도 없는 땅

크게 취합으로도
그 슬픈 가락으로도
다할수 없는 우리의 아픔
이토록 갈라진 아픔이
우리의 뼈속 마디마다
우리의 삶속 줄기마다 스며들어

통일이 아니면 개인도 없고
민족도 없이 되였는데

집안에 쌀가마니나 쌓아둔 사람이나
되박쌀에 쫓기는 사람이나
다급한건 우리의 통일인데

진정 통일을 말하는이
따져야 한다
우리를 가르고있는것은 무엇이며
갈라진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며
통일로 가는 길앞에 자신은 무엇인가

모든 《한국》사람은 스스로 묻되
온 《한국》사람의 량심은
스스로 대답하라

《한국》의 량심이 대답하기전에
통일, 통일, 통일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데
다시 태여나는 천지개벽인데
누가 감히 함부로 통일을 말하는가

동 해 바 다

백 기 완(남조선)

저 검푸른 물결속
그대로 뛰여들고싶구나

모진 한 세상
뒤집힌 배전에서
나를 떠메고
있는 나를 통채로 떠메고
바다, 바다가 살아서 뛰노는
공간으로 나를 열어다오

까마득한 수평선
넘실대는 바람
바람으로 날 띄워만 준다면

개바람에 그슬린
억센 팔뚝으로 끝까지 노저어
다시 한평생 바다를 산들
어떠랴

떠나리라
저 검푸른 바다로 떠나서

밤하늘 지친 별이 잠기면
바다에서 낳아서
바다에서 싸우다 돌아간
무수한 혼백으로 쓸어안고

새 아침
물기 먹은 태양이 영웅의 피빛인양
바다를 물들이면
이를 한껏 들이마셔
거대한 불기둥으로 치켜세우는
물개가 되나이다

오오, 바다
어기찬 력사의 사연을
한여름 땔땔 흘리는 바다여
바다는 하나인데

우리는 둘이라니
고향은 지척인데
바다까지 가로막힌
우리들의 갈라짐을

돌이킬 짬도 없이
때리는 몰개
그 몰개로 이 세상 모든 장벽
여지없이 깨지게 하라

어여쁜 내님은 죽어

박 남 준(남조선)

그대 내 무덤밖에서 부르는
봄노래소리 들었네
오월 들판이 저녁놀빛 닮아갈 때
거리서 거리로 마을서 마을들로
꽃들 살불을 붙이며 쓰러져갈 때에
흰옷 입고 멀어지는 봄노래소리 들었네
그대 내 무덤가에 찾아와 가슴찢으며 불러도
사방 대못쳐진 어둔 방속에 나 있기에
손짓할수 없지만 일어설수 없지만
그대 내 무덤밖에서 부르며 꼭 들려주어야 할
힘찬 봄노래소리 기다리고있었네

남녘땅 고향에 부치여

박 산 운

동구앞엔 정자나무
시내가엔 늘어선 버드나무들
산밑으로 구불구불 읍내로 뻗어간
이따금 지나가는 길손이 들리군하던
초라한 주막이 있는 신작로

까막까치가 부리를 닦고있던
호박꽂 박꽂이 수두룩히 핀
고삭은 초가지붕들
청명한 가을날이면
거기 널린 빨간 고추들

이 나라 어디서나 볼수 있던
술도가와 야장간과 공동묘지가 있던 마을
이름난 명산도 명인도 고적도 없는
새벽이면 닭이 울고
밤이 되면 개가 짖던고장
그 이름도 평범한 상부리—

어찌하여 류다른것 하나 없는 그고장이
이토록 오래동안 내 눈을 빼앗고
한생이 접도록 뼈에 사무치는가

이렇듯 내 가슴 설레게 하는가…

살아서는
이름없는 그고장 지켜 피흘리고
죽어서도 그고장 결구어
소나무가 된 참나무가 된 피나무가 된
조상들이 묻힌 마을 뒤산이
나를 불러서인가

그들처럼 그고장에서 살기 위해
죽창을 들고 총을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 진을 쳤던 옛 동무들
밤이슬 맞으면서 청춘을 바친
그 젊은이들이 나를 불러서인가

아니면 헐벗은 녀인들과 소녀들이
봄이면 나물바구니를 끼고 헤매던 들판
그 논이랑 밭이랑과 언덕들이 굽어보이는
뒤산에 묻히기가 소원이던 사람들
그 소원 이루지 못하고 간
한고향내기들이 나를 이끌어서인가…

내가 안고다닌 고향산천이여
네가 그려보인
어머니나라의 정다운 얼굴
내가 바라본건 언제부터였던가
너와 함께 울고 웃던 어머니나라 목소리

내가 처음 들었던건 언제였던가

나는 돌아가리라 네 품으로
네 품에 묻히지 못한 그들의 소원안고
너의 황량한 산과 들과 진펄로
네가 들려준 어머니나라의 노래
다 부르지 못하고 간 그들을 위해

나는 돌아가리라 너를 찾아
너를 비쳐준 해를 이고 별을 이고
내 인생의 첫걸음마 뗀
그 땅을 다시 밟기 위해
그 하늘 다시 바라보기 위해

네 품에서 첫울음 울고
네 품에서 철이 들었던
이내 모습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내 목소리 너에게 들려주기 위해
나는 돌아가리라 너를 찾아
자유롭고 아름다워야 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너를 찾아

1990

오 월 의 노 래

박 선 욱(남조선)

새벽부터 부슬부슬 비는 내리고
이른아침 산새가 운다 새여
가신님 서러워 우는것이냐
아직도 하늘은 캄캄할뿐인데
네 울음 구슬피 앞산을 흐르는구나
가끔 뻐꾸기소리 들려오고
사람들 발자국소리 땅거죽을 울려도
아 구슬피 우는 새여
이 오월에 님 그리워 그리워
너는 불같이 붉은 피 토하며
차라리 재되여 쓰러질것만 같구나
하지만 슬퍼 말아 새여
이 땅엔 사나운 개짖는 소리
모진 비바람과 천둥뿐이건만
이렇듯
마른 가지에서 속잎이 나고
죽은 나무들마다 꽃을 피우는데
더이상 슬퍼해 무엇하리
너와 나 오직 눈물로 껴안을
흙투성이 그 아름다운 날을 위해
이제는 진정 눈물을 아끼자꾸나
아 오월에 구슬피 우는 새여
네 울음 피울음 서슬퍼런
칼날같은 새여

항쟁영웅의 령전에

박 세 옥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면
어디나 먼저 갈줄 안 너의 심장은
고동을 멈추었구나

어두운 남녘의 하늘에
한쪼각의 푸른 하늘이 그리워
모자를 거머쥐고 항쟁의 광장으로 달려가던
꿈많은 너의 가슴을
아, 가혹한 세상
원쑤들은 무참히도 짓밟았구나

이 땅의 쓰라림을
한가슴에 끌어안으며 너는 쓰러졌다
살아서는 조국에 다 할수 없는것을
남는 나이를 조국의 영생에 바치며…

오오, 조국이여 삼각산을 들어
이 아들의 머리를 높이 괴여주라
한강의 흐름에 명주필을 씻어
피젖은 이 아들의 이마를 씻어주라

영광의 길이면 그 어디나
먼저 갈줄 안 심장이여
저 자유의 목소리를 들으라
네앞에 무릎꿇고 눈물 씻으며 일어선
항쟁의 광장은
너의 자랑스러운 붉은 심장을 추켜들었다

1990

대　　인

박 인 환(남조선)

임양을 평양에 마중간것은
젊은 신부님이였다
다들 엄두를 못내는데 그분이 갔다
용기있는분이다
대인

1989

세우자, 통일의 기념탑을

송 찬 웅

교정의 양지바른
나지막한 등성이에
4.19의 기념탑은
오늘도 말없이 서있다

봄잔디우에 함께 누워
푸른 꿈 펼치던 벗은 갔다
매일아침 들창가에 서서
그대의 이름을 부르던 부르던…

그대의 학우들은 철창에 갇힌채
아직도 해빛을 보지 못하고있다
원쑤의 총탄에 상처입은 용사들은
하나 둘 불구의 몸이 되고있다

그대가 바란것은 무엇이였던가
정녕 이런 참상을 보자고
모교에 4.19기념탑을 세웠던가
그저 그렇게 돌부처처럼 서있으라고…?
그대여, 잠시 고개들어 바라보라
빛잃은 석벽에 또렷이 새겨진

지금은 불러도 대답없는 이름들
웨칠듯 절규하는 피로 쓴 비문을

—자유여 영원한 소망이여
  피흘리지 않곤 거둘수 없는 고귀한 열매여
  불의를 무찌르고 자유의 나무에 피거름되여
  우리는 여기 누워있다
  사람들아 잊지 말자!
  뜨거운 손을 잡고 맹세하던
  아 그날 4월 19일을…

잊지 말자 그대여!
4월, 격동의 그 나날에
총검의 숲을 헤치고 달려가면서
피타게 부르짖은 불같은 절규를

그대의 벗들이 쓰러지면서
그대의 팔에 안기며 남긴 부탁
사랑하는 벗의 시체를 끌어안고
그대가 피눈물로 다진 그 맹세를

벗은 갔어도 그날의 함성은
아직도 삼각산과 북악산
저 남녘천지에 메아리치고
4월에 진 전우들의 령혼이
또다시 항쟁에로 부르고있거니

오, 때는 왔다 그대여
그날의 젊은 용사—사자들이여
달려가자, 4월의 광장으로,
쓸어내자, 4월을 짓밟은 파쑈의 무리들을

세우자!
그대들의 교정에 4월의 광장에
쓰러진 전우들과 그대들의 념원을 담아
력사의 비문이 빛나게 아로새겨질
자유와 민주의 탑, 통일의 기념탑을!

1963

아아,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신 경 림(남조선)

불길을 헤치고 물속을 헤엄치고
가시밭 돌무덤 바위산을 뚫고서
모두들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온 나라에 울려퍼지는
노래 크게 웨쳐 부르면서

등에는 깊은 이발자국
이마와 손바닥엔 아직 피 붉은채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끝내 흔들리지 않을 기발
저 하늘높이 세우기 위하여

철창에 뜨는 달 먼산에 피는
아지랑이에 한숨 짓기도 했지만
마루바닥에 이마 대고 울기도 했지만
깊은 절망에 한숨 쉬기도 했지만
모두들 주먹 다시 부르쥐는구나
어둠 이 땅 구석구석에서 몰아낼
큰 홰불 드높이 밝히리라고

이제 우리 갈 길을 알았노라고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갈가리 찢긴 이 땅덩어리와 함께
밟히고 꺾이고 으깨여져
조그맣게 움츠러든 이 겨레와 함께
이제 갈 길을 알았노라고
아아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모두들 손에 손잡고 섰구나
저 강건너 동녘을 향하여
새 해살 새 별빛 아직 멀어도
잃을것이 없는자에겐 두려움이 없으니
망설임도 없으니

손과 발에 매인 사슬 끊어던져라
아양과 눈웃음에 우린 속지 않는다
모두들 힘차게 달려가는구나
온 겨레 얼싸안고서
어깨동무하고 나갈 북소리 울리며

내 아들이 오고있다

—남녘의 어머니가 부른 노래—

염 득 복

어디에 있느냐
이 아침도
분명히 저 대렬속에 있는것만 같아
떨쳐나선 얼굴들을 하나하나 더듬으며
못잊을 너의 모습 찾는다

손에손에 프랑카드를
돌을 들고 파도쳐 내닫는
대렬의 앞이냐, 뒤냐
저 건너편 거리냐, 옥상이냐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집안에 둘도 없는
살붙이고 기둥이던 네가
원쑤의 총탄에 쓰러질 때
어여쁜 순이도 함께 간 그 길을 떠나
이 에미 그 무슨 살멋이 있었겠니

아침엔 숟가락을 빨리 놓던

너의 얼굴 떠오르고
한밤엔 서재우에 얼굴묻고 잠들던
너의 모습 안겨와
버릇처럼
습관처럼 나서는 이 길

나는 저 대렬속에서
낳아키운 아들을 찾지 않는다
품은 생각, 내닫는 걸음 꼭같은
살아 숨쉬는 아들들을 똑똑히 보고있다

나는 내 아들을 사진속에서 들여다보지 않는다
나는 아들이 없는 어머니라고
단 한번도 생각한적 없다
내가 낳은 아들 하나에
오히려 숱한 아들들이 늘어난 그 긍지속에
오늘도 이 마음 저 항쟁대렬속에 세워본다

그렇다
백이 나서면 백이 내 아들 같고
천이 나서면 천이 다 내 아들 같아
한품에 안아보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성스러운 저 항쟁의 파도속에 끼워야
그리움속에 못견디게 찾아오는 내 아들
저녁이면 내 집 내 품으로
더 빨리 가까이 오는것만 같아
밤중에도 그 얼마나 거리에 나섰던가

마음같이 못가는 이 어미의 걸음
저 격노한 대오의 흐름 어찌 따르랴만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아노라
높아가는 항쟁의 저 함성
아, 이것은 너희들모두가
내 집문턱으로 가까이 오는 소리인줄

이 나라의 장한 아들들을 안은
무등산이여!
너 잠시 머리 들어보라
아름다운 민주의 봄을 안고
내 아들들이 내앞으로 오고있다
자유의 푸르른 하늘을 머리우에 이고
광주의 아들들이 내앞으로 달려오고있다

1990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오 영 재

1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몇번째 써보는 편지인지
그것은 나도 모릅니다
보내는 편지마다
이 땅을 갈라놓은 분계선 철조망에 찢기여
저주를 안고 나의 가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때로 그 장벽을 넘어 나래쳐간 마음의 편지는
온 남녘땅을 헤매이다가 찾은
늙으신 어머니의 머리맡에
아들의 말없는 안부를 남기며
이내 가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까
어머니품에서 열여섯해
어머니없이 열네해를 나는 자랐습니다
열여섯해동안 나의 곁에서 나를 기른 어머니는
새옷 한벌 해주지 못하던 어머니였고
열네해동안 나의 곁에 없는 지금의 어머니는
고생많은 그 몸에 새옷 한벌 감아드리지 못하는
아들의 가슴에 안타까운 어머니입니다
용서하시라, 어머니의 년세마저 착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이 아들을
달이 가고 해가 바뀔 때마다
가버린 또 한해를 생각하며 이 마음은 괴롭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내가 사는 평양의 밤을 잠재우며
밖에는 흰눈이 내리고있습니다
붉고푸른 무궤도전차의 불빛이
수은등 빛나는 거리를 달려갑니다
아름다운 대동강가에 자리잡은
아빠트 5층 불밝은 책상앞에서
머지 않아 돌을 맞을
딸애를 잠재우며, 어머니 손녀를 잠재우며
끝맺을길 없는 이 기나긴 편지를 씁니다
대답없는 어머니를 부르고 부르며

희미하게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이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는
그 어느것 하나도 지금은 나에게 없고
다만 파도높은 고향의 바다기슭
해질무렵 비오는 창가에서 나를 업고 서성거리며
나직이 불러주던 자장가와… 밤을 새우던 물레질소리
열에 들뜬 나의 머리말에서 물오이를 깎아주시던
그 손길만이 나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젖먹이 누이동생을 업고
이 아들을 찾아온 칠십리길…

야영훈련소의 은행나무밑
의용군복장을 한 아들을 보며 웃으며
몸성히 싸우고 돌아오라 이르고 돌아서 간 칠십리길…
석양이 뉘엿뉘엿 저물던
그 먼지 낀 신작로길로 멀리 사라져가던
아아,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모습이여
그밤 어두운 길을 무사히 가셨습니까…

2

열네해나 어머니품에서 떨어져사는
이 아들은 외로움을 모르고 지냅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순간이면
어머니는 때없이 나의 가슴에 찾아오셨습니다

잊을수 없던 그 봄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나는 뒤산 잔디우에
어린애처럼 볼을 대이고, 미여지는 가슴을 달래며
오래도록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부터 대학생의 어머니입니다

내 철없을 때 들은 말이
불현듯 그 순간에 되살아올랐습니다
…어느 여름밤, 쑥불로 모기를 쫓으며
한집안식구가 편상우에 누워자던 밤
내가 잠든줄만 알고

온종일 일하기에 피곤하여 잠든줄만 알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몰래 늦도록 이야기하셨지요
학교에 그처럼 가고싶었던 이 아들을 두고
학비를 댈수 없는 구차한 집살림에 긴 한숨을 쉬며
—저 애는 집일이나 착실히 시키자고…

어머니여! 나는 그날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말 못할 괴로움을
아들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철없이 부려오던 이 어리광을 후회하는 마음에서였겠습니까
내 눈비를 가리지 않고 나무를 해서라도
늘그막에나마 어머니를 마음고생없이 모시고싶은
그런 즐거운 생각에서였겠습니까…

아, 그러나 지금은 철이 들어 어머니를 모실줄 알게 되였건만
어머니여, 어찌하여 지금 내곁에 없습니까
내가 사는 집, 내가 쓰는 모든것
내가 먹는 하루 세끼 더운 밥이
어찌하여 다만 나의것으로만 되여야 합니까
아침저녁 다니는 눈덮인 가로수길
꽃전등 밝은 명절의 밤
새벽을 기다려 온 조국이 잠을 모르던 선거의 전야와
광장에 흐르는 시위의 물결
만세의 환호성
울리는 노래소리

춤추는 아이들
해빛밝은 조국의 하늘과 땅이
어찌하여 이 불초한 아들의것으로만 되여야 합니까

나의 마음은 그때마다
어머니를 부르며 부르며
저 행복한 물결속을 헤매였습니다
그러나 부르는 소리는
환호의 꽃보라속에 묻혀버리고
어머니는 여전히 남해기슭, 비린내나는 바다가에서
바스레기를 주으며 바다풀을 건지며
발목에 짠물이 감기는 그 기슭을 따라
멀리멀리 가고만 있었습니다

3

새날이 밝아옵니다
거리에서는 다섯시방송이 울립니다
이 아들이 밤새워 부르는 이 목소리
어머니는 듣고나계시온지…
아,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이미 가버린 어머니를
이렇듯 헛되이 붙잡고 이밤을 새운것은 아니옵니까

날이 갈수록
행복에 겨운 이 한가슴이 차고넘칠수록
어머니를 위하여 남기여놓은

마음 한구석이 가슴에 아프도록 저미여옵니다
이 허전한 마음의 한구석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수 있단 말입니까
땅이여, 바다여, 무한의 하늘이여
무변광대한 이 세상의 그 무엇이
과연 나의 빈 가슴을 채워줄수 있단 말입니까
아아, 그것은 하늘과 땅이 부딪치는
백주의 번개로도 우뢰로도 채울수 없으리라
통일되여 내 고향에 돌아갈 때
어머니여, 어머니의 가슴에 안기는 순간의
내 가슴에 차고넘칠 그 크나큰 감격도
순간에 나의 가슴을 다 채워주지는 못할것입니다

아, 메밀꽃 하얗게 핀 고향의 밭머리
가물거리던 올이 굵은 그 머리수건이여
어머니를 찾는 아들의 부름에
《왜야—》 나직이 대답하시던 정이 어린 고향의 사투리여
다시금 느껴보고싶어라 어머니여
어린 시절 여름날의 강변에서
나의 몸을 씻어주던 그 손길을…

바치렵니다
나의 힘도 나의 슬기도
나의 심장, 나의 숨결, 나의 목숨도
통일의 그날을 안아올 그 길우에 바치오리다
기다리시라, 살아계시라

그러면 내 기어이 달려가리라
대나무 우거진 그 오솔길에서 어머니품에 안기리다

어머니 머리우에 동이 트리다
대숲은 세차게 설레이고
온 천지는 눈부신 해발로 덮이리다
아, 그날을 믿으며
어머니여 그날까지 굳세게 살아갑시다

1964

80년 5월, 그리고 결단

임 정 남 (남조선)

나는 십년동안 시를 쓰지 않았다
시를 써 이름을 얻는다는게
몸서리쳐지게 싫었다
쓴다는 두려움을 감당할수 있을 때까지
그 두려움의 힘이
진정한 힘으로 불타오를수 있을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만 했다

1980년 5월 18일, 남쪽에선
학살이 시작되고있었고
쓰러진 민중들이 군트럭에 실려가고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나는 여의도 아빠트잔디발에서
포고령위반과 내란음모죄로 쫓기는
친구들을 기다리고있었다
담배를 피우고있던 나의 눈에
한 아이의 모습이 비수처럼 박혀들었다

도적놈새끼처럼 눈알만 반짝이는 예닐곱살 먹은 한 아이가 어느 층에선가 먹다버린 사과 한쪽을 잔디밭에서 움켜쥔채 파먹고있었다. 남에게 빼앗길가봐 두려워서 잔디밭 무궁화나무밑둥에 엎드려 파수를 보는 자세로 먹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 아이는 한마리의 독사새끼처럼 분노와 적의에 가득찬 파란 눈빛으로 나를 향해 공격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는 슬금슬금 뒤걸음치다가 도망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아이를 쫓아갔다. 왜 쫓아갔는지 나도 모를 일이였다. 한 블럭을 쫓아갔지만 다람쥐처럼 빠른 그 아이를 따라잡을수가 없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씻으며 친구들과 약속한 장소로 오고 있는데 나는 그 아이를 다시 발견했다. 그 아이는 또 아빠트단지 잔디밭으로 기여들어가 누군가 먹다내던진 비스케트쪼각이나 흙묻은 사탕알따위를 주어먹고있었다. 그 아이는 먹을것을 찾고있었고 그 아이에게 먹을것을 주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은 동정심은 그 아이로부터 보기좋게 거절당했던것이다.

과연 나는 저 아이의 편인가? 나의 친구들 역시 저 아이의 편인가? 저 아이는 이 세상에 태여난지 불과 7, 8년밖에 되지 않는다. 불과 7, 8년을 산 저 아이의 분노와 40년을 산 나의 분노사이를 무엇으로 련결시킬수 있는가? 내가 지고다니는 지식, 내가 누리는 문화, 내가 량심이란 이름으로 치장한 동정심따위로 저 아이의 편에 설수 있을가? 정말 저 아이와 내가 식탁에 마주앉아 김치찌개남비속에 한개의 숟가락으로 스스럼없이 나눠먹으면서 각자의 꿈과 희망을 얘기할수 있을가? 광주시민군은 지금 도청을 점령하기 위해 총을 들었다.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 서있는가?

아저씨가 시인이야
시가 뭐야, 그거 먹을수 있는거야

아니다 먹을수 없는거다
그럼 내 편이 아니야
먹을수 있는것만 내 편이야
그렇다, 네 말이 옳다
먹고싶은 사람을 내버려둔채
안락의자에 앉아 커피나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잔뜩 피대를 올리고있다
네 말이 백번 천번 옳다
내가 쓰는 시가 먹을수 없는거라면
너의 배를 채워줄수 없는거라면
너에게서 먹을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을 향해
나의 시는
그들의 심장을 조준한
무기가 되여야 한다

네 말이 천번 만번 옳다
나의 시는 그 무기들을
온몸으로 잡아당기는 방아쇠여야 한다
나의 머리속에 넘쳐흐르는
이미 페기처분되였어야 할 지식의 중압을 벗어난
너의 짓눌린 분노를 위해
우리의 시는 집결되여야 한다

추도시

복수의 칼을 들라!

— 고 조성만렬사의 령전에—

장 혜 명

조국통일의 미래도 보지 못한채
우리곁을 떠나간 학우여
민주의 제단에 청춘을 바치고 간
고 조성만학우여

울어울어 그지없는 비분을 안고
주먹이 으스러지는 분노를 안고
남과 북 따로 없이 조객이 되여
그대와 영결하는 이 시각

무거운 이 흙을
어찌 그 가슴우에 얹는단말이냐
북남학생회담의 열망 불길처럼 치솟아
하루전만 하여도
판문점회담장으로 달리던 그대였거니

찢기고 터지고 피엉킨 몸은
한겹의 수의로 감쌀수 있다 해도
사랑하는 학우를 잃은 이 원한을

천만겹의 수의로도 가리울수 없나니

떠오르는 해빛도 남녘의 하늘에서
빛발을 거두라
두터운 먹장구름을 부스러뜨려
렬사를 발인하는 앞길에
슬픔의 비발을 뿌리라

검푸른 남해여, 거세찬 물결을 일으켜
이 세상 끝까지 노도쳐가라
대륙과 대륙의 기슭을 치며
우리의 성만이가 웨치고간 피의 절규를
만천하에 알리라

빼앗긴 조국을 부르며
이역만리에서 할복했던 그 민족이
오늘은 제 나라 제 땅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부르며
배를 갈라야 하는 이 비극을!

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린다
스물다섯 청춘이
창자를 쏟으며
그렇게 죽으라고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않았다

작은 연필을 깎다가 손가락을 베여도

눈물 지으며 잠 못들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가슴이 슬픔에 터지라고
칼을 들어 배를 가르지 않았다
층층 높은 집아래로 몸을 던지지 않았다

불러도 오지 않은 민주
웨쳐도 오지 않은 자주
그것이 남녘에 오고
그속에 학우들이 살 그날을 위하여
스스로 할복과 투신의 길을 갔거니

렬사여 그대의 심장
고동을 멈춘것이 아니다
믿어다오 알아다오
그대 한목숨 바쳐
온 남녘이 칼을 들게 하였음을

투쟁을 깨우치고 간 그대
복수를 부르고 간 그대
남녘은 서슬푸른 장검을 높이 들고
그대 생전의 념원대로
미제와 로태우살인마들의
사지를 자르리라
배를 찔러 오장을 탕쳐버리리라
파쑈의 철창과 교수대를 찍어던지리라
그대의 피 헛되지 않게

서울에서 광주로
장지는 멀어도
겨레의 마음에 받들려가는 그대
광주와 함께 살아있을 그대
고 조성만학우여
고이 잠들라!

청　　춘

전 동 우

두팔에 가득히 땅을 그러안은채
젊은이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구나
검은 구름장 머리우에 뭉게치고
그의 가슴밑에서 크나큰 대지가
피에 젖은 어깨를 들먹이고있구나

쇠도 녹일 갓 스물의 가슴이라 했더라
꿈도 많고 눈물도 많은 가슴이라 했더라
원쑤가 질겁하여 총을 쏜 그 가슴—
아직은 한번 마음둔 처녀에게
고백도 못해본 가슴이라 했더라

한세상 반의 반도 못살았건만
누가 그처럼 사랑할줄 알았던가!
고향과 어머니와 친구와 처녀와…
몹시도 많이 그는 사랑했건만
아, 목숨은 오직 하나에만 바쳤도다

뜨거운 가슴에 안겨 우는 대지여
너의 흐느낌으로 비구름을 흩날려

맑게 열린 그 눈일랑 흐리우지 말라
지심을 뒤울리는 너의 들먹임으로
그의 고운 미소일랑 깨뜨리지 말라

세월의 비바람은 모든것을 씻어가도
조국이여, 그가 흘린 피만은 지우지 말라!
청춘은 짧고 조국은 영원하여도
이 땅의 젊은이는 소원이 아니였던가
그 짧은 나이마저 너에게 보태주기가
아, 조국이여, 통일된 내 조국이여!

1990

원쑤들이 바리케트를 쌓고있다

—서울시민들에게—

정 서 촌

원쑤들이 바리케트를 쌓고있다,
동대문과 광화문, 서울의 한복판을 휩쓸며
폭풍을 안고 밀려가는 그 막을수 없는 노한 물결을 막
　아보려고
원쑤들이 이제는 바리케트를 쌓고있다
해빛을 등진 두터운 담벽안에 당신들을 가두고
무거운 쇠사슬로 손발을 얽어놓던 그놈들이
오늘은 넓은 땅을 내여주고 어쩔수 없이
제스스로 좁디좁은 울타리속에 기여들고있다

바로 어제까지 그놈들은 네활개를 치며
서울의 온 장안을 구두발로 짓밟지 않았는가
바로 어제까지 그놈들은 당신들 더운 가슴에
총구멍을 대이고 제멋대로 으르렁대지 않았는가

열다섯해— 그렇다, 열다섯해 긴긴 세월
당신들은 많은것을 그들에게 빼앗기기만 하였다,
붉은 피를, 귀중한 청춘을, 밝은 웃음을,
학원의 문을 열고 들어설 자유도,

그리고 당신들은 철없는 아기의 맑은 눈동자마저
모조리 빼앗기지 않았는가!

이제는 세임을 결산할 때가 왔구나!
모든것을 당신들이 되받아낼 때가 왔구나
가슴속에 맺힌 원한의 치부책을 펼쳐들라
더는 남을것 없는 당신들 붉은 손에
돌을 들어쥐라! 억세게! 튼튼하게!

불길은 이미 사나운 바람을 안았다,
불길은 이미 꺼질수 없는 화염을 하늘에 치솟고있다,
마산에서, 부산에서, 대구와 청주에서
인천의 부두가에서, 남녘의 모든 땅에서
불길은 타올라 원쑤의 소굴을 재가루로 날리고있다

세월의 한모퉁이 막다른 골목에서
원쑤들이 지금 바리케트를 쌓고있다,
온 겨레가 폭풍처럼 원쑤를 휘몰아갔나니
묵묵하던 북악산도 이제는 몸부림치며 일떠섰나니

형제들이여! 아직도 막아서는 원쑤의 총부리를 꺾어
던지라!
무기고를 산산이 들부시라!
원쑤들 머리우에 돌벼락을 안기라!
기울어진 경무대 기둥을 단김에 쳐넘기라!

원쑤들이 지금 바리케트를 쌓고있다,

겁에 질려 놈들이 그안에 떨고있다,
서울의 형제들이여! 지체말라!
한걸음, 한걸음 가까이 더 가까이 죄여들라!
놈들이 쌓는 바리케트— 그것이 놈들의 마지막 무덤이
  되게 하라!
그것이 남녘땅에 암흑을 가져온놈들
피묻은 력사의 종지부가 되게 하라!

1960. 4

누구를 위한 장벽이냐

조 성 관

누구를 위한 장벽이냐
무엇을 위한 장벽이냐
조국의 한 허리를 가로질러선
연연 600여리 장벽은

한겨레의 말소리조차
넘나들지 말라고
한피줄 이은 부모형제들
얼굴조차 넘보지 말라고
철근으로 다져 콩크리트로 쌓아올린
저 장벽

가로막힌 미국제 철조망우에
억울히 억울히 흘러간
빼앗긴 세월이 절통한데
이제 다시 겹쌓아 높인
아, 천부당만부당 국경일수 없는
저 《국경선》은…

연연 5천년을 이어
한강토우에 진토된

조상의 유골도 소스라쳐 일어서라
연연 천만년을 이어갈
아직은 태여나지 않은
미래의 후손들도 소리모아 단죄하라

누구를 위한 장벽이냐
무엇을 위한 장벽이냐
조국의 동서를 가로막아선
철근콩크리트장벽은—

미친 눈에도 부끄러워지더냐
장벽 없이는
세상의 눈을 막아줄 울타리 없이는
미국상전의 란동이
일신의 부귀와 권세를 위한
군사깡패의 칼부림이

미친 눈에도 끔찍스러워지더냐
장벽 없이는
도살장의 울타리 없이는
선지피 강물처럼 흐르던
남녘의 참상이…

무참히 죽어가는
원한의 비명이 새여날가보아
지옥도 무색할
죄악의 정체가 드러날가보아
청천백일하에서는

한순간도 이어갈수 없는
암흑의 왕국 《유신》의 장벽—

천겹을 만겹을 겹쌓으라 하라
악취 풍기는
죄행을 감추지 못하리
천척을 만척을 더 높이라 하라
하늘에 치닿은
통일의 열망을 막지 못하리

원한에 사무친
인민의 피눈물에 삭으리
죄악의 울타리
연연 600여리 장벽은
마주 불러 애끓는
부모형제들의 목소리에 무너지리

천부당만부당 국경일수 없는
《국경선》은
물먹은 토담벽과도 같이
해빛을 받은 얼음덩이와도 같이—

1984

그 피는 물이 아니여서

조 태 현

광주에도 봄은 왔다—
꽃이 피고 잎이 푸른
봄은 봄이로되
해마다 오고가는 그런 봄이 아니다
광주의 5월은

들에 피는 한송이 노란꽃도
다치면 금시 피빛이 될듯
가로수에 갓 돋은 연약한 잎새도
다치면 금시 칼끝처럼 서슬 뿜을듯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일렀건만
총탄에 가슴이 뚫리고
땅크에 온몸이 찢기고
대검에 등이 찔리며
거리가 질벅하게 쏟은 5월의 피
이날까지 씻기지 않았다
이때까지 잦아들지 않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물처럼
고이고 잦으며

강으로 흘러들면 그만인
그런 물이 아니다
광주가 흘린 피는…

피가 물이라면
살아있는 가슴들 이다지 저릴소냐
쓰러지면서도 민주를 부르짖은,
숨지면서도 통일을 소원한,
죽어서도 눈뜨고 원쑤를 절규한
정의와 애국의 넋이 피줄로 이어져
광주는 노호한다 노호한다

보아라
광주에 태여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자장가만으로 자란다면,
교문을 나드는 학생들의 가방에
교과서만을 넣고다닌다면,
증서를 받아쥔 졸업생들의 눈에
취업근심만이 비낀다면
오늘의 저 웨침
10년전 그날과 어이 같을수 있으랴

미제를 내쫓지 않고서는
매국노들을 산채로 두고서는
살아도 산것이 아니여서
흘린 피값을 받아내자고
광주는 피젖은 항쟁의 기발

놓지 않는다

광주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들고
축배잔을 든 야수들아
또다시 피묻은 칼을 빼든 살인마들아
백배로 피를 토하라
천배로 피를 토하라

살인마 네놈들이
제피를 강물처럼 토하기전에는
광주가 흘린 5월의 피
씻기지도 잦아들지도 않으리라
그 피는, 그 피는 물이 아니여서

오, 자주의 봄
민주의 봄
통일의 봄이 오기전에는
노호하는 광주의 저 함성
어느 하루도 멎지 않으리라!

1990

비지 않은 자리!

—광주봉기에 참가했던 대학생이 부른 노래—

진 철 헌

여기 강의실
네 자리는 비여있건만
부르면 선뜻 대답하며
몸가짐 바로하고 일어설듯싶은
내 사랑하는 순아!

다가서면
네 앉았던 자리 조용하건만
네 부르는 청고운 노래
상기도 방안에 흐르는듯

글소리 높던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귀기울이면
향학열에 불타던 네 목소리
어쩌면 더 그리워지는구나

아, 강의실 창가우에
떨기떨기 피여웃는 꽃은
너의 다정한 그 모습이런듯

화단우에 설레는 푸른 잎새는
가슴에 고이 간직했던
네 희망에 찬 꿈처럼 생각되는구나

그 어느 악귀같은 무뢰한이
푸른 꿈 안고 들뛰던
너의 소중한 그 봄시절을
그리도 무참히 짓밟았단말이냐

그 어느 야만같은 광신자가
네가 웨치던 민주의 노래를
그리도 가뭇없이
그리도 참혹하게 사그러놨단말이냐

아, 네 얼굴 다 비치는
정숙한 책상앞에
다가서면 걸음걸음 다가서면
살벌한 광주항쟁의 그 나날
네가 흘린 그 붉은 피가
여기 얼룩져 끌내는 피빛으로 보이는구나

네 자리는 비지 않았다
애타게 통일을 갈구하던
너의 령혼이 조용히 자리잡은
이자리!

민주와 학원의 자유를

피로 찾자고
피끓는 그 시절 헌헌히 바치며
내 가슴에 뜨거운 혈소를 주고간
이자리

백두에서 한나까지
자주의 새 아침 당겨올
그날을 기어이 찾자고
한목숨 기꺼이 바쳐
내 가슴에 백배의 넋을 주고간
이자리

순아
너의 보람찼던 그 삶과
너의 지칠줄 모르던 그 심장이
뜨겁게 고동치는 이자리
오늘은 내가 서있고
수천수만의 민중의 아들딸들이
말없는 너의 부름에 합창하고있다!
항쟁의 격류로, 투쟁의 합성으로!

1990

항쟁의 열흘

차 영 도

피가 흐르고
피에 젖고
그렇게 흘러간
광주의 열흘낮 열흘밤!

그래도 그 열흘이 좋았다
잠시라도 이 광주, 이 남녘에
파쑈가 숨죽어버린
그 열흘이 좋았다

《공정대》의 철갑모를
쭈그렁박같이 발밑에 짓뭉그리며
민주가 소리쳐 웃던 그 거리가 좋았다
목청껏 자유만세를 부르짖던
오랜만의 그 삶의 희열이 좋았다

절량에 울다못해
광주에 달려온 농민들
햇풀이 돋는 5월의 밭이랑에
씨를 못뿌려도 좋았다

좋았기에
빈민촌의 판자집 령세민들
울분의 피가 오른 두손에
마지막 서까래를 뽑아들고나왔다

오, 더는 《유신》의 노예로 살수 없어
몸부림쳐 불러찾는
그 자유, 그 민주 앞에
굳이 목숨까지 바쳐나선
광주!

어린것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 철부지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것들마저 고사리손에 돌멩이를 쥐고
피의 거리에 따라나선것이
목이 꺽 메여오르는 광주의 눈물이였다

외세가 공포에 떤 열흘
파쑈가 기를 못편 열흘
이 열흘이 목숨이였기에
바리케트에 뿌린 피가 두렵지 않았고
대검에 찔리운 창자를 부둥켜쥐고 나가던
항쟁의 대오, 항쟁의 광주!

오, 력사여
광주가 흘린 피에
영원히 망각의 흙을 덮지 않는 세월이여

전대미문의 살륙을 당한
원한의 광주앞에
묵도의 머리만을 숙이지 말라

원한이 옥맺힌 가슴에
천백배 복수를 벼리며
쓰러진 시체를 붙안고 통곡하던
목불인견의 그 참상—

허나, 그 참상
그 류혈과
열백번이라도
이 열흘을 다시 바꿀
오, 광주의 의지, 광주의 피타는 갈망을
력사여, 너 듣느냐!

오늘도 광주의 웨침소리
겨레의 고막을 찢는다
자유를 달라!
민주를 달라!
통일을 달라!

1990

추 석

춘 구(재카나다동포)

북인가 남인가
먼 하늘가에
봄은 가고
가을은 오고

한가위 달안에
그리운 얼굴
보고 또 보다
40여성상

눈물도 쇠잔한
긴 세월에
못내 기다리다
가버린 사람이여

그래도 그리워서
황천의 빛을 따라
넘어서 헤매인
38도선

안 개낀 산봉우리에

그리운 사람을
불러보네
목메여 불러보네

막힌 강산에
메아리치는
애절한 부름이여
혈육의 눈물이여

중추절 밝은 달밤
산소에 맺힌 이슬
무릎우에 떨어지고
귀뚜라미 함께
서럽게 우네

아, 정다운 요람
내 강산이여
휩쓸어가는 폭풍을
몇번이나 견뎠던가!

내 어머니의 품
숭고한 땅이여
병들어 저물어가는
20세기의 락조에
너는 새날을 기약하라

그날 우리 겨레는

이어진 땅에서
풍악을 울리리라
청춘이 뿌린
피의 땅에
고운 꽃을 피우리라
아, 시들은 강산에
고운 꽃을 피우리라

민　족

최 승 칠

어찌하여 남녘에서 찾아온 어린 처녀를
온 겨레 그리도 눈물로 환호하는가
어찌하여 량순한 그 얼굴
먼 빛에 보기만 해도
심장은 터질듯 울보채는가
말해다오, 진정 민족이란 무엇인가?

세상끝에서 찾아온 팔십로인이
백두산 거친 돌을 백발로 부빌 때
만리길 업혀온 갓난아기의 머리에도
통일행진대의 푸른 띠가 얹어질 때
가슴 뭉클 찔러오는 생각
민족이란 무엇인가?

어데서 들려오는가
오래고 오랜 구슬픈 민요가락
피줄속에, 흙속에 마쳐오는 저 소리
잠뱅이 짚신발들 억새풀 후려 낟알 뿌리며
소금밭 잔등에 아기들을 키우며
력사의 급류속을 달려오는 저 소리

민족
그속에 한번 태여나면
죽어서도, 하늘끝에 흘러가도
떨어질수 없는것이여
공들여 가꾸면 영생의 대가정
저버리면 황금을 움켜도 복이 없어
삼복철에도 가슴 얼쿠더라

민족이여
너는 죽은 사람도 놓아주지 않건만
살아있는 너는 어찌 갈라져 견디느냐
분노는 쌓여 활활 타는 불
피눈물은 모여 강물처럼 흘렀구나

오, 폭풍우를 안고 날뛰는 바다여
하늘을 찔러솟은 산악이여
빈다, 너의 무한한 힘을 빌려다오
내 천년묵은 느티나무 뿌리채 뽑아
저 핵이발로 으르대는 분단역귀들을
세상밖으로 쓸어던지리

그때 나는
북과 남을 잇는 다리가 되리
온 민족이 고려련방으로 부둥켜안고
묵은 설음 울어씻을 다리가 되리
그러면 몸은 비록 티끌로 날려도
넋은 푸르러 땅우에 무성하리

1989

새 홰불

—문익환목사의 방북을 지지하며 향기그윽한 성과에 접하여—

한밝 김 리 박 (재일동포)

1

그 홰불은
동해바다를 건너야 했고
두 남 나라를 거쳐서야
빛을 보게 되였으니
쓰타리기도 하고
원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첫… 홰불보다
더 크고
더 밝고
더 참된 홰불이였다

2

잊을수 없는 《7.4》홰불이
겨레 맘길을
훤히 밝혀주었을 때

우리는
근 삼십년만에
서로 굳게 껴안아
뜨겁게 울었고
몇며칠
미친듯 춤추며 노래부르며
쌓이고쌓인 회포를 풀었고
손길잡고 줄곧 나아갔었다

3

그때로부터 또 근 이십년
호반이 둔갑할 때마다
허위와 날조의 숲은 더 무성해지고
우리의 념원과 희구는
그들의 총칼로
입을 막히고
오금도 못쓰게 박혔으니
성화— 《7.4》홰불은
애타게, 구슬프게 탈뿐이였다

우리는 절대로
그 성화를 끌수는 없었고
지켜야 했다
그제, 그 누군가가
갖은 지성과 정열과
목숨과 나라 사랑을 바쳐서
북으로 가야 했고

온 겨레에게
더 크고
더 밝고
더 참된 새 홰불을 지펴주어야 했다

4

그 길은
제 뜻과는 아주 달리
동해바다를 건너야만 했었고
두 남 나라를 거쳐서야만 했으나
분명
백범선생께서
헤쳐가신 뜻길이요
목숨바치신 얼길이요
온 겨레의
피웨침의 살길이요
대단결의 큰길이다

그러기에
그 새 홰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요
우리 오천년 력사와
칠천만 우리 민족의
얼이요
생명이요
피불이요
금석비다

1989

풍자시

개

허 남 기(재일동포)

김포비행장서부터 서울까지의 길을
너는 하루에도 몇번씩
닦는다
너는 하루에도 몇번씩
훔친다

처음에는
비질을 하고
다음에는 걸레질을 하고

그러고도 마음이 안놓여
너는 그 색안경우에
또하나 돋보기를 겹쳐서 끼고
먼지를 하나하나 손으로 줏는다
누런 혀를 질질 끌면서
오물을 하나하나
주무른다

어느 나라의 총리대신이 온다고서
조금이라도 심상을 상하게 해서는
큰일이라고

혀로써 하나하나 집어삼킨다

미국의 《대감님》도
《대감》인데는 틀림없지만
너무나도 도도한데다
떠벌이는 말이 또한 미국말이라
잘 알지도 못하고 《예스 써》 하는데
싫증이 난 네놈이
오늘은
그 옛날의 《상전》의 말
듣기만 해도 눈물이 저절로 나는
그 《대일본제국》의 일본말을 쓰며
찾아오는
일본국의 총리대신을 맞이하는데
정신을 못차린다

네놈 생각에는
일본국의 총리대신만 오면
모든것이 다 해결되고
네놈 생각에는
일본국의 총리대신만 오면
곧이라도 만사가 다 풀릴것 같아

내놈은 그 새 《상전》
《이또 히로부미》의 나라에서 온
옛 《상전》의 후예가 도착하는것을
꼬리를 흔들며 기다린다

그 새《상전》이 지나가는
길닦이에 여념이 없다

너는 갖은 악법을 다 만들고
너는 닥치는대로
사람을 잡아넣어
《예, 서방님》이란 소리외에는
아무 소리도 안들리게
한다

그러나
지금은 60년전의 그날그때가 아니고
오늘의 조선인민은
리완용과 《이또 히로부미》가
판을 치던
그때의 조선인민이 아니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네놈이 꿈꾸고있는
력사의 반복은 있을수 없다
네놈 생각엔
1905년 다음에 1910년이 오고
《한일보호조약》 다음엔
《한일합방》이 계속되듯이
그 옛날의 《상전님》과
네놈과의 관계가
다시한번 계속되기를

원하는것 같으나

그러나 력사는
그렇게는 안된다
조선인민은
두번다시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

전대미문의 매국노여
너 미제국주의와
아세아의 지점장
일본군국주의의
이중의 충직한 개여

사람의 꼴을 한
반신불수의
개여!

1977

광 주 여!

현 창 성

산언덕에, 강기슭에, 거리거리에
다시 또다시
봄비가 내리고
나무잎이 피여나도
광주여, 너에겐 봄이 없구나

어데로 갔느냐
구국항전의 폭풍치던 5월
너 그렇게도 피를 뿌리며 찾던 봄
자유와 민주와 통일의 봄은
어데로 갔느냐, 그 어데로?

앙큼하게도 뒤에 숨어
너의 아들딸들의 피를 흠뻑 마신
침략자 미제의 군화밑에
괴뢰개무리들의 군화밑에
영영 짓밟혀버렸단말인가

아니여라,
아니여라,
광주여, 항쟁영웅들의 도시여

내 너의 거세찬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나니

자유냐, 죽음이냐
총검을, 화약을, 괭이를 틀어쥐고
무한궤도를 맞받아
화염방사기의 불길을 맞받아
나아가던

아, 불새같이 나아가던
너의 슬기로운 열혈의 아들딸들이
눈동자에 담고간
그렇듯 꿈많던 봄은
네 가슴에 고이 간직되여있구나

《유신》파쑈독재의 기둥뿌리를
그렇게도 세차게 뒤흔든
준엄한 그 봄의 우뢰소리를
남녘땅 산발마다 강하마다
자랑높이 간직하고있구나

그래서 원쑤놈들 겁에 질려 날뛴다
그래서 원쑤놈들 피를 물고 날뛴다
오, 참대숲 설레이는 무등산에 의지해
영산강 젖줄기를 마시며 수수백년
언제나 굴함없던 너 광주여!

다시 구국항전의 봉화를 올리라
천백배 복수의 화산을 터쳐
지지리도 긴 암흑의 밤을 불사르려
불러오라, 광주여,
5월의 그 봄을, 온 남녘땅에

그 봄, 자유의 봄, 민주의 봄, 통일의 봄
아름다운 인민의 봄을 꽃피우라
너의 아들딸들의 입술들마다에서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영원한 봄노래 흘러나오도록

투쟁의 봄이 와야 인민의 봄이 온다고
력사가 너를 부른다
시대가 너를 부른다
미래가 너를 부른다
광주여, 피타는 5월이여!

1990

광주인민봉기 10돐기념문학작품집
분노의 지점에서

편 집	리명호, 강인철
표 지	남민우
교 정	신현의
낸 곳	문예 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2
인 쇄	1990년 7월 30일
발 행	1990년 8월 5일

ㄱ-06310

우리의 소원은 통일

1.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을 이루자

2. 우리의 소원은 자주 꿈에도 소원은 자주
이 목숨 바쳐서 자주 자주를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자주 이 겨레 살리는 자주
자주여 어서 오라 자주를 이루자

3. 우리의 소원은 민주 꿈에도 소원은 민주
이 목숨 바쳐서 민주 민주를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민주 이 겨레 살리는 민주
민주여 어서 오라 민주를 이루자